

강 혜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재량시간을 활용한 『열하일기』의 교수학습 연구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진 아

# 재량시간을 활용한 『열하일기』의 교수학습 연구

강 혜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진 아

# 인 준 서

김진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2006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며 사상가였던 연암 박지원은 한국 고전 문학사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만큼 연구열도 높아 연구 성과 역시 양적 풍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국문학계에서의 연암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의 문학가운데 연암이 20세 전후에 잠깐 썼던, 이른바 한문 소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양반전>, <허생전>, <호질>등의 몇 편에 국한되다시피 한 형편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학계 연구에 영향을 받는 교육 연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대다수 연암 관련 교수학습 논문들이 한문 소설 즉 전(傳)양식에 치중되어 있고, 교과서에 실린 작품 역시 전(傳)양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암 문학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연암 문학을 다양한 교육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십여 편에 불과한 그의 ‘한문 소설’로부터, 양적으로 방대할 뿐 아니라 연암의 대표적인 저작인 『열하일기』로 연구의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연암의 대표적인 저작인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10학년을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보다 융통성 있는 교수 학습을 위해 교사의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재량활동시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문학 교육은 문화지향의 문학 교육과 표현능력 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열하일기』가 이 두 방향에 모두 부합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녔음을 증명하고 두 가지 방향에 맞추어 활동지를 중심으로 한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열하일기』의 ‘문화지향의 문학 교육’적 성격은 실학사상과 상대주

의적 태도에서 찾았으며 <허생전>과 「막북행정록」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열하일기』의 표현능력 교육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기행문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때에 따라 에피소드나 논설문, 우언의 형식 등 다양한 갈래를 수용하여 작품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주제 전달의 효용성을 높이는 점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성경잡지」, <벽돌론>, <호질>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활동지만으로도 1차시의 수업이 진행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좋은 『열하일기』 교수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열하일기』는 조선시대 대문호 연암의 대표작이다. 연암의 자유롭고 혁신적인 사상과 문체적 특질로 인해 연구계의 중심에 섰고 끊임없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그 작품의 우수성에 비해 교육되는 방식이나 활용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인해 『열하일기』를 학교교육에 활용해 보고자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해보았다. 미진한 자료이지만 학교 현장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b>1</b>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1
2. 연구 방법과 연구대상.....	5
<b>II. 연암 문학의 교육 현황</b> .....	<b>9</b>
1. 1차~7차 교육과정의 수록 현황 .....	10
2. 문제점.....	28
1) 수록된 작품 갈래의 편중성.....	28
2) 접근 방향의 편향성.....	32
3. 연암 문학 교육의 지향점.....	36
<b>III. 재량시간을 활용한 『열하일기』의 교수학습 방안</b> .....	<b>41</b>
1. 문화지향 교육과 『열하일기』의 교수 학습 방안.....	43
1) 이용후생의 실학사상-〈허생전〉을 대상으로.....	49
2) 상대주의적 관점-「막북행정록」을 대상으로.....	66
2. 표현능력 교육과 『열하일기』의 교수학습 방안.....	80
1) 기행문의 형식-에피소드 형식의 활용.....	85
2) 논설문의 형식-〈벽돌론〉을 대상으로.....	97
3) 우언의 형식-〈호질〉을 대상으로.....	105
<b>IV. 결론</b> .....	<b>118</b>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

# I. 서론

##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연암은 중세 해체기에 살면서 근대적 사유의 맹아(萌芽)를 보여 주었던 지성사의 거인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조선 후기의 대문호(大文豪)이자, 실학의 일파인 북학파의 중심인물이었다. 그가 조선 후기는 전통적 농업 사회로부터 근대적 산업사회가 움트고 있는 전환기였기에 많은 경제적 변화가 있었고, 전통적 사회질서가 동요되면서 사회구조 자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의 사회경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개혁안을 구상 제시하였다. 이들 중 노론의 명문대가 출신인 연암 박지원은 일찍부터 사회현실에 눈을 돌려 당시의 극복해야 할 역사적 과제 앞에서 고민하며 가난하고 황락하게 살다간 선각적인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연암이 생존했던 시기는 보수적인 벽이 두꺼워 연암의 선구적 사상이 받아들여질 만한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못했다. 그러다 이후 본고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암 사상의 집약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열하일기』가 세상에 나오면서 연암은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며 사상가였던 연암은 한국 고전 문학사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만큼 연구열도 높아 연구 성과 역시 양적 풍요를 이루고 있다.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시도되어 오늘날까지 논의된 논문만 해도 500여 편이 넘는다. 그는 사상과 문학의 양면에서 찬연히 빛나는 학자로 문학작품을 통하여 18세기가 당면하고 있던 사회문제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이용후생(利用厚生)을 통한 상공업 발전과 생산 기술의 개혁을 주장한 북학 사상가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연구는 국문학, 한문학뿐만 아니라 역사학계, 경제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국문학계에서의 연암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의 문학 가운데 연암이 20세 전후에 잠깐 썼던, 이른바 한문 소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의 몇 편에 국한되다시피 한 형편이다.<sup>1)</sup> 이러한 연구 경향은 학계 연구에 영향을 받는 교육 연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다수 연암 관련 교수학습 논문들이 한문 소설 즉 전(傳)양식에 치중되어 있고, 교과서에 실린 작품 역시 전(傳)양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가 앞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열하일기』는 대문호 연암 박지원의 문학을 대표하는 저작으로서, 조선 시대 한문학의 유산 가운데서 근대 지향적인 성격이 가장 뚜렷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열하까지의 여행을 통해서 본 청나라의 실상, 시대의 흐름을 통찰했던 북학과들과의 사상적·문학적 교류, 그들과의 토론을 통해 꿰뚫어 본 시대 모순과 문제점들의 근본 원인, 그 해결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따라서 연암의 열하기행기록인 『열하일기』는 단순한 기행문학이 아닌 여행록의 형식을 빌린 연암 자신이 의욕적으로 의도한 총체적인 경세서(經世書)이자 조선 후기 사회구조의 모순을 자체 내의 에너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우리 고전 문학의 빛나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연암 문학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연암 문학을 다양한 교육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심여 편

---

1) 김명호, 『박지원 문학 연구』 p81,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에 불과한 그의 ‘한문 소설’로부터, 양적으로 방대할 뿐 아니라 연암의 대표적인 저작인 『열하일기』로 연구의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sup>2)</sup>

연암 문학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제2차 교육과정부터 꾸준히 이어져 학습자들은 <허생전>과 <양반전>, <호질>등 몇 편의 작품을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 받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연암 문학에 대한 연구도, 교육적 접근도 일부 한문소설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열하일기』의 국어 교육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1990년대 중반에 와서야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최미숙은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경험의 재구성으로서의 글쓰기에 관해 연구하였다. 『열하일기』 곳곳에서 발견되는 ‘타자의 시선으로 자기보기’와 서술자 ‘나’를 설정하여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는 연암의 글쓰기 방식에 주목하여 국어교육 ‘자기반성적 글쓰기’에 접목시키고 있다.<sup>3)</sup> 『열하일기』의 서술자의 태도와 연암의 글쓰기 방식을 국어교육에 접목시키고 그 가치를 탐구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최미숙의 연구 성과는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문제제기와 쓰기 교육적 가치만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없고 때문에 현장 교육에 바로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

이지호는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하여 연암의 글쓰기 방법을 연구했다. 그는 연암의 글쓰기가 범고창신(法古勗新)을 대상 해석의 방법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그 방법이 지니고 있는 이념적 지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피고 있다. 그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연암의

---

2) 김명호, 앞의 책 p82.

3) 최미숙, 「경험의 재구성으로서의 글쓰기에 관한 연구: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연구, 1996.

글쓰기 방법을 지금의 글쓰기 교육에 적용,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sup>4)</sup>

전부용은 『열하일기』 속 연암의 사상을 고찰하고 있다. 내용 분석을 통해 연행록으로서의 성격, 작품의 문학성, 연암의 사유방식 등을 고찰함으로써 연암 사상과 작품의 유기적 연관성을 찾았다.<sup>5)</sup> 그 결과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집권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적 주자주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박지원이 모색한 새로운 사상적 대안으로 노장사상이 작품 속에 자주 등장했던 것에 주목한 점이 독특하다. 그러나 교육대학원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차봉준은 독자가 문학작품을 수용하여 창작에 이르게 하는 문학 교육의 흐름 속에서 텍스트를 해석할 때 그 무엇보다도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패러디 텍스트에 주목하였다. 『열하일기』가 고전 소설의 한 유형을 이루고 있는 ‘여행 모티브’라는 구조를 차용하면서도 의미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서사 상황을 창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연암의 『열하일기』를 현대적으로 재맥락화한 최인훈의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간의 차이와 반복을 고찰해 나가는 ‘패러디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워 읽기’ 행위를 보여 주었다.<sup>6)</sup>

정명진은 7차 교육과정에서 고전문학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정리하고, 기행문과 기행가사의 교육적 요소를 추출하면서 『열하일기』와 <연행가>를 교육적 자료로 살피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도출한다.<sup>7)</sup> 기행문으로서 『열하일기』가 가진 교육적 요소를

---

4) 이지호, 「燕巖 朴趾源의 글쓰기 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5) 전부용, 「燕巖 朴趾源의 『熱河日記』 연구- 燕行文學의 성격과 表現上 특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6) 차봉준, 「『열하일기』의 빈자리 채워 읽기」, 『송실어문』, 송실어문학회, 2002.

분석해내고 연암의 사유방식을 조직화하여 언어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외에 문현경이 연암의 문학을 생태학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국어교육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했다.<sup>8)</sup>

이렇게 여러 연구자들은 『열하일기』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고, 여러 측면에서 연구해 왔다. 그러나 살펴본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열하일기』를 활용한 구체적인 교수 학습방안을 제시하거나, 학교 교육에 구체적으로 접목시킨 기존 연구는 찾기 힘들다.

그래서 본고는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문화 교육적 측면, 창작 교육적 측면에 적합한 텍스트를 선별하여 교육 활동 자료로 제시하고,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2.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연암 문학은 그의 사상의 탁월함이나 내용과 서술의 광범위함, 독창성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고전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이러한 연암 문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열하일기』가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은 학

---

7) 정명진, 「기행문학의 교수-학습 방법론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8) 문현경, 「박지원 문학 연구 생태사상과 국어교육적 활용에 대한 소고(小考)」,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계의 전문적인 연구와 학교 현장의 국어 교육을 연계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교육 과정 속에서 연암의 문학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확인하고 학교 교육에서 연암 문학의 위상과 입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7차 교육과정까지 연암 문학 수록 현황을 살피고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암 문학 접근 방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이 연암 문학에 접근 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 문학 교육의 방향에 부합하는 연암 문학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열하일기』의 교육 자료로서의 적합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3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심화시켜 『열하일기』의 교육 자료서의 가치를 문화지향 교육의 측면과, 표현능력 교육의 측면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안 제시한다. 교수학습은 『열하일기』에서 교육적 자료로서 적합하다 여겨지는 텍스트를 선별하여 만든 활동지 중심으로 전개되며, 제시한 활동지만으로도 1차시의 수업이 완성되도록 구성해 보겠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즉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10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재량시간을 그 대상시간으로 한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열하일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학년 국어(하)교과서에 <허생전>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작품이 가지는 사상의 깊이나 텍스트 수준으로 볼 때 10학년이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수록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허생전>을 제외하고는 연암의 작품 대부분이 검인정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국 대다수의 학습자들 중 일부만

이 『열하일기』라는 텍스트를 접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열하일기』라는 텍스트를 소개받지도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다. 또한 교과서에 『열하일기』가 수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규 본시 수업에서는 국가에서 정해진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열하일기』라는 보물창고와 같은 텍스트를 다양하고 창의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많은 학습자들이 『열하일기』라는 텍스트를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하게 하기 위해 본고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재량시간’을 대상시간으로 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량활동시간이라고도 불리우는 ‘재량시간’은 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의 자율과 재량권을 확대하고, 국민공통기본 교육 기간에도 학생의 교과 선택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이다. 과거 6차 교육과정까지의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차원에서의 중앙집권형 지시하달식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학교차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실행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주변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수준 및 지역의 요구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학교 나름대로 다양하고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수업을 꾸려갈 수 있도록 재량활동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시간 운영, 장소 활용, 교사 조직, 주제 설정, 집단 편성, 교재 선정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특색 있고 융통성 있는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교사의 관심도와 실행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별한 자료를 교사의 재량껏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간은 『열하일기』라

는 거대한 텍스트를 다루기에 적합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구획된 시간 즉 ‘선택과목 학습’과 ‘교과 재량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이라는 시간과 연계할 수 있다면 『열하일기』라는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본고는 10학년 재량 시간을 활용하여 『열하일기』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 II. 연암 문학의 교육 현황

교육 과정이란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어떠한 교육 내용·방법·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공통적·일반적 기준이다. 이런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실태를 반영한 지침을 만들고, 각 학교에서는 이 교육 과정과 시·도별 지침에 따라 그 학교의 실정에 따른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고 있다.<sup>9)</sup> 이러한 교육과정은 그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내용과 범위를 국가수준에서 규정하여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교과서 내 작품의 접근 방향은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같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접근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연암의 작품이 각 교육과정 별로 연암의 작품이 얼마나 수록되고 어떤 방향에서 수록되었는지를 살피려 한다. 이는 지금까지 연암 문학이 주로 어떤 방향에서 접근되어 왔는지를 이해하고, 그 문제점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리라 하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전 문학 영역의 목표 변화를 살피고, 다음으로는 연암 문학에 대한 교과서 접근 방향을 작품이 수록된 단원의 성격<sup>10)</sup>을 통해 이해하

9) 박재용, 「국어과 제7차 교육 과정의 검토와 국어 교육의 전망」, 『한민족어문학』 33, 1998.

10) 교과서에서 단원의 제목은 그 단원안에 포함된 작품이 어떤 방향에서 접근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지가 된다. 대개의 교과서가 교육과정해설서에서 분류한 영역의 제목을 단원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단서가 된다. (7차 교육과정 국어과 해설서에는 문학을 ①문학의 본질 ② 문학의 수용과 창작 ③문학과 문화 ④문학의 가치화와 태도로 분류하는데, 대부분의 문학교과서 역시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역을 분류하거나, 약간 수정-‘문학과 문화’→‘한국 문학과 문화’정도-하여 사용하고 있다.

도록 하겠다.

## 1. 1차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의 수록 현황

우리나라의 문학교육과정의 흐름을 간략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기본적인 언어소양 교육에 중점을 두어 문에 대한 교육은 미미했던 시기이다. 문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시작된 것은 제2차 교육과정(1963)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문학의 이해와 감상을 강조했다. 제3차 교육과정(1974)에서는 지배적 이념을 반영하였으며, 제4차 교육과정(1981)에서는 이해와 표현의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언어적 기능에 신비평을 주로 한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을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인지 심리학과 스키마 이론과 아울러 반영론과 수용론을 바탕으로 전개되었고, 제6차 교육과정(1992)에서는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을 ‘문학’으로 통합하고 ‘독서’와 ‘화법’을 따로 두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이해와 감상을 넘어 넓은 의미의 문학 창작과 문화 철학으로서의 문학 교육을 예술과 가치의 체계와 접목하는 구도를 갖추었다. 도구 교과로서의 언어 기능의 신장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문학 교육을 삶의 총체적 이해와 발상적 창작, 그리고 문화 현상으로서의 문학, 가치의 수용과 창조로서의 문학 교육을 외연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sup>11)</sup>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설정된 학습목

11) 홍승현, 「1-7차高等學校 文學教科書에 收錄된 古典小說 教育 研究」, 西原大學校 教育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4.

표에 맞추어 교수된다. 즉 하나의 작품이 어떤 교육과정에서는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교수되고, 어떤 교육과정에서는 ‘작가의 사상과 문체적 특징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교수될 수 있다. 곧 시대상을 이해한다는 목표를 가지면, 학습활동의 문제는 시대상을 이해하는 위주로만 구성되며, 학생은 그 작품에서는 오로지 시대상에 관한 지식만을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작품을 총체적으로 즉, 반영론, 표현론, 효용론, 구조론의 측면에서 깊이 있게 살피기보다는 단원의 학습목표에 충실한 ‘자료’로서만 활용한다는 것, 이것은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야하는 ‘제도’라는 틀로 인해 발생하는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이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작품이 어떤 단원을 교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작품의 수록수를 조사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연암의 작품이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sup>12)</sup>에 수록된 작품수를 표로 만든 것이다.<sup>13)</sup> 우선 이 표를 바탕으로 1차에서 7차까지<sup>14)</sup> 연암 작품의 수록 현황을 살피고 각 교육과정과 접근방향을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12) 본고는 고등학교 10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암 작품의 수록도 1차에서 7차까지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함을 미리 밝힌다.

13) 이 표의 고전소설부분은 홍승현의 논문 「1-7차 高等學校 文學教科書에 收錄된 古典小說 教育 研究」와 김혜경의 논문 「1-5차 高等學校 古典小說 教育研究 - 教科書 作品 收錄을 中心으로」를 참고하되 7차 교육과정 중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수정하였으며(예컨대 선생전, 광문자전, 민옹전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본인이 조사하여 추가), 고전소설 외의 장르는 조희정의 논문(「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를 참고하되 부족한 부분(건국중앙기 중등 국어 교과서에 <도강록>이 수록되었으나 본고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함으로 아래 표에서는 생략하였으며, 1차 교육과정에서는 연암 문학이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과서 조사결과 <도강록>이 수록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추가했음)은 수정하여 만들어진 표이다.

14) 교수요목기의 교과서는 현재(2006년 상반기) DB구축 작업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자료의 열람이 불가능했기에 조사범위는 1차에서 7차로 한정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07년쯤 DB작업이 끝나면 인터넷으로 교과서 원문 열람이 가능하다고 함.)

표 1 교육과정기 별 고등학교 교과서 연암작품 수록 현황

수록작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양반전		2	2	3	6	12	10	35
허생전				1		2	4	7
호질		1			1	1	2	5
광문자전							1	1
민옹전							1	1
예덕선생전							1	1
통곡할 만한 자리							2	1
도강록	1	1						2
일야구도하기			1	1			1	3
계	1	4	3	4	7	15	21	.

연암의 작품은 제1차 교육과정(1955)부터 수록되기 시작하여 현행 7차 교육과정까지 꾸준히 수록되고 있다. 연암의 작품은 「방경각외전」<sup>15)</sup>에 수록된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민옹전(閔翁傳)>, <광문자전(廣文者傳)>, <양반전(兩班傳)>과 『열하일기』의 <허생전>, <호질>, <통곡할 만한 자리<sup>16)</sup>>, <도강록(渡江錄)>,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이렇게 9편의 작품이 학습 자료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 숫자는 김시습의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 김만중의 <구운몽>, <사씨남정기>와 비교해 볼 때, 단일작가의 작품수로 볼 때 가장 높은 수록수를 자랑한다.<sup>17)</sup>

15)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 연암 박지원(朴趾源)의 문집인 《연암집(燕岩集)》의 권8 단편소설집.

16) 『熱河日記』, 「渡江錄」 8월 7일 내용을 디딤돌 문학교과서에서 '통곡할 만한 자리'라 이름붙이고 있다.

또한 <양반전>의 수록수 역시 교과서에 수록된 단일 작품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실린 것이어서 숫자상의 기록만으로도 단연 돋보인다.<sup>18)</sup> <허생전>은 4차 때부터 수록되었고, 6, 7차에서는 국정교과서에 연속으로 실리기도 했으며, <호질>은 2차에 수록되었다가 3차, 4차에서는 제외되고 5차부터 다시 꾸준히 수록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곡할 만한 자리>,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민옹전>등 연암의 다른 작품들이 여러 편 수록되어 연암 문학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전(傳)이 아닌 부분으로는 색칠해진 <통곡할 만한 자리>, <도강록><sup>19)</sup>, <일야구도하기>등이 있는데, 아직 교육의 체계정립이 미흡했던 1, 2차 교육과정에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4차 교육과정 이후 수록되지 않고 있으며, 7차에 들어서야 겨우 <통곡할 만한 자리>가 수록되었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sup>20)</sup>

위의 표를 각 과정기별 특성과 고전에 대한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 구분,<sup>21)</sup> 그리고 연암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단원 등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7) 홍승현, 「1-7차 高等學校 文學教科書에 收錄된 古典小說 敎育 研究」,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8) 홍승현, 앞의 논문.

19) <도강록>의 경우 1, 2차 모두 6월 24일자 “만운은 벌써 여기를 나와서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우리는 봉황성에 사는데 장백산 가서 나무를 쳐오오. 말이 아직 끝나기 전에 뗏목은 어느새 멀리 떠내려가 가물가물하게 보인다.”부분까지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 단원명과 학습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20) <일야구도하기>의 경우 전문이 실리지 않고 서너 줄 짧게 소개되어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식의 학습활동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이 역시 7차 교과서에서 겨우 발견되었다.(문원각 문학교과서)

21)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을 네 영역으로 나누어 공부해야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각주27번) 이러한 영역구분은 그 이전의 해설서에서도 추려낼 수 있었다.(표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6차 교육과정 해설서부터이다.) 앞으로 제시되는 ‘고전 영역 구분’은 바로 이러한 체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제1차 교육과정기(1955)는 연암의 작품이 처음으로 교과서에 수록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시기 국어과 교육은 언어영역과 문학영역으로 구분되고 문학영역이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으로 나뉘어졌으나 고전이 ‘읽기’영역의 하위 갈래<sup>22)</sup>로 들어가 있는 등 아직 교육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교과서의 체제나 지도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정립된 시기이다.

이 시기 고전 영역은 ‘1. 대표적 고전 작품의 이해 감상’, ‘2. 선인들의 삶과 시대적 풍습 및 사회제도 이해’, ‘3. 국어 국문학사의 이해’, ‘4. 고전문학에 나타난 전통적 정서의 연구’, ‘5. 구비문학 채집 연구’, ‘6. 한문학의 국문학에 대한 영향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sup>23)</sup>

<표 2> 1차 교육과정 연암 문학 수록 현황표

수록 작품명	서명	편저자	수록수(총6종)
도강록	고전독본	양주동	1/6종

연암의 문학은 <도강록>이 『고전독본』<sup>24)</sup>이라는 검·인정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 교과서는 삼국시대부터 갑오경장까지 시대 구분 없이 작품만 나열하고 있으며, 갈래별로 작품을 배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강록>은 ‘V. 수필을 읽자.’라는 단원의 첫 번째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6월 24일자 “만윤은 벌써 여기를 나와서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우리는 봉황성에 사는데 장백산 가서 나무를 쳐오오. 말이 아직 끝나기 전에 뗏목은 어느새 멀리

22) ‘읽기’영역이 ‘문학학습’, ‘고전학습’, ‘언어지식 습득’, 으로 나누어져 있다. -문교부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육과정』 1955 참조.

23) 홍승현, 앞의 논문.

24) 양주동, 문교부 『고전독본』, 탐구당, 1956.

때내려가 가물가물하게 보인다.”부분까지 연암이 압록강을 건너기 전 통관(通關) 과정과 강을 건너며 ‘홍’등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교과서 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학습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습활동(‘익힘문제’로 표기되어 있음)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1. 도강록(渡江錄)은 유명한 ‘열하일기’의 일부다. 통관(通關)하는 대목을 따로 적어보자.
2. 실학과(實學派)에 대해 조사해 보자.
3. 박지원이 지은 한문 소설의 종류와 내용을 조사해 보자.

학습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1번 문제는 작품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활동이고, 2번과 3번 문제는 작가와 그의 사상에 대해 묻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도강록>을 ‘대표적 고전 작품의 이해 감상’과 작가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교육과정은 1964년부터 1974년에 이르는 시기로 국내 정세의 변화로 인해 반공 도덕 교육을 강조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문학 교육은 제1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문예의 감상과 창작 기도를 통해 표현력의 신장, 사상 감정의 도야에 공헌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독서 지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전 교육에서는 선인의 사상이나 감정 등 민족정신, 민족 정체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sup>25)</sup>

이 시기 고전 영역은 ‘고전문학 독해 감상’, ‘국어 국문학사’, ‘현대 언어와 문학과 관련성’, ‘선인들의 삶과 정서 이해’, ‘한문학이 국문학에 끼친 영향’, ‘국문학의 정통성 파악’, ‘갈래별 특성이 뚜렷한 작품 선정’등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1차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

25) 홍승현, 앞의 논문.

이 시기 연암의 문학은 <양반전>, <호질>, <도강록> 세 작품이 검·인정 교과서에 수록된다. <양반전>은 각각 ‘Ⅳ. 중세문학’<sup>26)</sup>, 과 ‘Ⅲ. 조선시대의 문학’<sup>27)</sup>, 단원에서 다루지고 있으며, <호질>은 ‘Ⅳ. 중세문학’에서, <도강록>은 ‘Ⅴ. 조선시대의 문학’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작품에 대한 접근 방향이 ‘고전문학 독해 감상’, ‘선인들의 삶과 정서 이해’라는 영역과 맞물려 있음을 알게 해주며 작가에 대한 문제가 매번 나타나고 있어 작가의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2차 교육과정 연암 문학 수록 현황표

수록 작품명	서명	편저자	수록수(총20종)
양반전	고전	박성익, 송민호	2/20종
	우리 고전	박병채	
호질	고전	박성익, 송민호	1/20종
도강록	고전	김윤경	1/20종

제3차 교육과정은 1974년부터 1981년에 이르는 시기로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기본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과 기술 교육의 쇄신이란 전신 아래, 제 1,2차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경험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식과 가치관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 교육과정은 형식적인 체계가 갖추어진 반면 가치관 교육을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교과서 편찬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sup>28)</sup> 때문에 이 시기에는 고전의 영역 구분이 해설서에

26) 박성익, 『고전』, 광명출판사, 1968.

27) 박병채, 『우리고전』, 박영사, 1968.

28) 홍승현, 앞의 논문.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4> 3차 교육과정 연암 문학 수록 현황표

수록 작품명	서명	편저자	수록수 (고전교과 총5종)
양반전	고전	박성의, 송민호	2/5종
	고전	전광용	
일야구도하기	국어2	한국교육개발원	국정교과서

3차 교육과정에는 <양반전>이 검·인정 교과서 2종에, 「산장잡기」의 <일야구도하기>가 ‘물’이라는 이름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2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양반전>은 각각 ‘V. 근세 문학.’<sup>29)</sup>단원과 ‘VI. 조선시대 후기의 문학(2)’<sup>30)</sup> 단원에 수록되었는데, 박성의 편 교과서에서는 조선시대 한문학 자체에 관계된 학습을 유도한다는 점이<sup>31)</sup>, 전광용편 교과서에서는 한문소설의 구조적 특징과 희극미에 관계된 학습을 유도한다는 점이<sup>32)</sup> 독특하다. 물론 이 두 종의 교과서 모두 연암의 작품에 대한 활동을 마련하고 있다.

<일야구도하기>는 ‘물’이라는 이름으로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나와 바위에 부딪치며 사납게 흘러간다.~나는 또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앞내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이것을 경험(經驗)해 볼 것이려니와, 장차 몸놀림에 교묘(巧妙)하고 스스로 총명(聰明)한 것을 자신하는 자에게 이를 경계(警戒)하고자 하는 것이다.”부분 까지가 수록되어 있다. ‘고전의 세계’라는 단원에 수록된 이 글은 지은이가 깨

29) 박성의, 『고전』, 광명출판사, 1979.

30) 전광용, 『고전』, 일지사, 1979.

31) 학습활동이 ‘1. 조선 후기 한문학에 있어 ‘4가’와 ‘신파4가’는 누구이며 그들의 저서는? 2. 박지원의 한문 단편 소설을 조사해보자. 3. 양반전의 즐거리를 요약해 보자.’로 구성되어 있다.

32) 학습활동이 ‘1. 한문소설의 구조적 특징을 알아보자. 2. 어느 계층을 풍자하고 있는가. 3. 부는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 대목을 요약하여 설명하라. 4. 특히 희극미를 요약하여 설명하라.’로 구성되어 있다.

달은 ‘도(道)’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러한 지은이의 견해를 비판하고, ‘마음을 잠잠하게 한다’는 것에 관해 생각해보는 활동문제가 주어져 있다. 이는 수필의 자기 고백적 성격과 개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작가에 대한 언급이나 시대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까지의 연암 작품에 대한 접근 중 가장 새로운 유형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981년에 문교부 고시 제 442호로 개정 공포된 제4차 교육 과정<sup>33)</sup>은 제3차 교육 과정이 표방한 가치관 중심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기능 중심의 교육 원리를 도입하였으며, 학문적 배경을 갖춘 교육 과정을 추구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에 따라 국어과 교육 과정은 언어 기능의 신장 강화, 문학 교육의 강화, 언어(지식) 교육의 강화, 쓰기 교육의 강화, 가치관 교육의 내면화를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다. 문학 교육 내용이 교육 과정에 체계화되었고, 고전 문학 지도 내용 가운데 고전소설 교육의 내용이 특히 자세히 제시되었다. 고전의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한문 소설, 조선 후기 한문 단편 소설, 설화, 가전체 등의 고전 산문 작품이 언급되었다.

고전 문학 지도상 유의점은 제3차 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훈고 주석에 얽매이지 않으며 현대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대 문학과 고전 문학은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하여 평가상의 유의점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

연암의 작품은 <양반전>이 2, 3차에 이어 4차 교육과정에도 계속 실려 있고, <일야구도하기> 역시 3차와 마찬가지로 ‘물’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텍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4차에서는 <허생전>이

---

33) 문교부, 『고등 학교 교육 과정』,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1982.

새로이 수록되는데, 이때부터는 한문학도 국문학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표 5> 4차 교육과정 연암 문학 수록 현황

수록 작품명	서명	편저자	수록수(고전교과 총5종)
양반전	고전	이상익, 김진영	3/5종
	고전	박갑수, 이철수	
	고전	김동욱, 김태준	
허생전	고전	김기동, 박준규	1/5종
일야구도하기	국어3	한국교육개발원	국정교과서

<양반전>은 세 종의 다른 교과서이지만 모두 ‘IV. 조선 후기의 문학’이라는 단원에 속해 있다. 다만 이상익편<sup>34)</sup>과 박갑수편<sup>35)</sup>은 ‘한문학’이라는 소제목을, 김동욱편<sup>36)</sup>은 ‘귀족층의 삶’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활동 문제를 보았을 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대상과 작가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허생전><sup>37)</sup>은 ‘조선후기의 문학’이라는 단원에 수록되어 ‘한문학’으로서의 특질을 연구하는 방향에서 접근되고 있다.

<일야구도하기><sup>38)</sup>는 ‘8. 수필’이라는 단원 수록되었으며, 3차와 동일한 지문이 그대로 담겨있다. 3차와 마찬가지로 수필의 자기 고백적 성격과 개성을 이해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도 역시 작가나 시대상에 대한 언급은 ‘교사용 지도서’에서만 발견할 수 있

34) 이상익, 『고전문학』, 동아출판사, 1983.

35) 박갑수, 『고전문학』, (책이 훼손되어 있어 확인하지 못함), 1983.

36) 김동욱, 『고전문학』, 동아출판사, 1983

37) 김기동, 『고전문학』, 교학사, 1983

38) 한국교육개발원, 『국어3』, 문교부, 1986.

었다.

1988년 공포된 고등학교의 제5차 교육 과정<sup>39)</sup>(문교부 고시 제 88-7호)은 문학 교육을 강조한 제4차 교육 과정의 정신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 시기에 국어 I·국어Ⅱ가 폐지되고, 국어, 문학, 작문, 문법이 편제상의 교과목으로 신설되었다.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이 문학으로 통합된 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을 지양하고,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을 분리하여 지도하는 데서 오는 연속성의 괴리에서 벗어나, 한국 문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지도상의 유의점 (6)항 중에는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연계성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며, 고전 문학 지도에서는 고전 문학이 쓰여진 당대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언급이 있다.

문학과 관련한 교육 과정 개정에서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 과정이 제5차까지 개정되는 동안 교육 목표와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sup>40)</sup>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문학 영역을 ‘(1) 문학의 본질과 한국 문학의 특질, (2)문학 작품의 이해 및 감상 1·2, (3) 한국 문학의 민족 문화적 특징’으로 정확히 구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검·인정 교과서의 내용체계가 훨씬 체계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 연암의 작품 수록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傳)외의 작품들이 교과서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표에서도 살폈듯이 6차까지 이어져 나타나 1989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근 10

---

39) 문교부, 『고등 학교 교육 과정』, 문교부, 1988.

40) 김혜경, 「1-5차高等學校 古典小說 敎育研究 敎科書 作品 收錄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여 년 동안 학습자들은 연암의 소설 작품만을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연암의 작품에 대해 이해하는 방향이 편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표 6> 5차 교육과정 연암 문학 수록 현황표

수록 작품명	서명	편저자	수록수
허생전	고등국어(상)	교육인적자원부	1/1종
양반전	문학	박동규, 서대석, 송백현, 김태식	6/8종
	문학	김윤식, 김종철	
	문학	우한용, 박인기, 정병현, 최병우	
	문학	김용직, 박민수	
	문학	김홍규	
	문학	김봉군, 한연수	
호질	문학	김동욱, 김열규, 김태준	1/8종

<양반전>은 검·인정 교과서 6종에 수록되었으나 김홍규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문학의 흐름과 감상’이라는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작가와 시대, 작품의 관련성을 학습하는 ‘(2)문학 작품의 이해 및 감상 2’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김홍규편에서는 ‘서사의 허구와 진실’이라는 단원에 수록되어 ‘수난시대’와 함께 소설의 허구성과 진실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작품의 장르 체계를 이해하는 ‘(2)문학 작품의 이해 및 감상 1’영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정 교과서에 수록된 <허생전>은 ‘4. 소설과 사회’라는 부분에 수록되어 있으며, 접근 방향이 기본적으로 소설에 반영된 사회상으로 반영론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 교육과정 이후 오랜만에 수록된 <호질>은 ‘이야기체와 소설’

이라는 단원에 수록되어 ‘시점이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둔 학습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작품의 장르체계를 이해하는 ‘(2)문학 작품의 이해 및 감상 1’영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1992년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개정되어,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제6차 교육 과정이 적용되었다. 제6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개정도 ① 국어사용 기능 신장의 극대화 도모 ② 국어에 관한 지식과 국어사용의 올바른 태도 함양 ③ 문학 작품의 능동적 향유를 통한 건전한 인생관과 세계관 형성 도모 ④ 교사 중심의 국어과 수업에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창의적 국어 사용을 강조하는 국어과 수업으로의 전환 ⑤ 국어과의 각 영역별 내용의 체계화·구조화를 통한 학습 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41)</sup>

6차 교육과정에서는 5차 교육과정보다 더 교육내용과 체계가 구체화되어 표<sup>42)</sup>로 제시하기까지에 이른다. 이 표를 통해 문학 영역의 체계와 내용범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 연암의 작품은 총 세 편이 수록되었다. 김인정 교과서 ‘문학’이 8종에서 18종으로 10종이나 늘어났으며 고전소

41) 교육부, 『고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 1995.

영역	내용
1) 문학의 본질과 기능	가) 문학의 성격 나) 문학의 갈래 다) 문학의 수용과 가치
2)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가)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 방법 나) 문학 작품 구성 요소들의 기능 및 관계 다) 문학 작품에 나타난 갈등과 삶의 양상 라) 문학 작품의 현실 상황 마) 문학 작품의 미적 구조 바) 문학 작품의 내면화
3)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가) 한국 문학의 흐름과 성격 나) 세계 문학의 양상 다)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

42) 6차 교육과정 ‘문학’영역의 체계

설은 총 19편<sup>43)</sup>이 수록되었는데 단일 작품으로 가장 많이 수록된 것이 바로 연암의 <양반전>으로 모두 12종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표 8> 6차 교육과정 연암 문학 수록 현황표

수록 작품명	서명	편저자	수록수
허생전	고등국어(상)	교육인적자원부	1/1종
	문학	윤병로외 3	1/18종
양반전	문학	오세영외 1	12/18
	문학	권영민	
	문학	우한용외 4	
	문학	김윤식의외 1	
	문학	김용직외 1	
	문학	박갑수의외 1	
	문학	김열규외 1	
	문학	김봉근외 1	
	문학	김태준외 3	
	문학	구인환외 1	
	문학	남미영외 4	
	문학	한계전의외 2	
호질	문학	이문규외 1	1/18종

<양반전>이 수록된 단원을 살펴보면 남미영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조선시대 문학의 범주에 넣어 시대상과 작가의 사상 반영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있어 문학 영역 중 ‘3)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가)한국 문학의 흐름과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남미영편에서는 ‘Ⅲ.이야기와 소설 5.시점과 독자’이라는 단원에 포함되어 ‘2)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학습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국정교과서에 수록된 <허생전>은 ‘10. 문학과 현실’이라는 단원

43) 구운몽, 금오신화(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박씨전, 사씨남정기, 성진사전, 양반전, 윤영전, 유충렬전, 임진록, 장씨전, 전우치전, 조응전, 춘향전, 허생전, 호질, 홍길동전, 홍보전.

에 포함되어 있으며 5차와 마찬가지로 소설의 현실 반영을 위주로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며, 검·인정 교과서의 <허생전>과 <호질>은 연암의 실학사상과 허생을 연관짓고, 호랑이가 비판하는 바를 통해 연암의 사상을 깨닫는 문제여서 '3)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가)한국 문학의 흐름과 성격'영역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은 제 6차 교육 과정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중에서도 '국어과 학습은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며,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게 운용한다. 특히, 국어과 학습은 학습자가 국어사용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언어활동을 강조하여 국어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sup>44)</sup>라고 강조한 데서 제7차 교육 과정은 특히 실제적인 언어활동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 영역은 문학의 본질 및 작품 이해의 기본 원리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 내용을 '문학의 본질', '문학 작품의 이해', '문학 작품 감상의 실제'의 세 범주로 체계화하고, 내용을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과 문화',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로 구분하였다.<sup>45)</sup> 이는 1차부터 지금까지 교육과정체계화의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진 모습으로, 이로 인해 다양한 검·인정 교과서들이 모두 기본적으로는 같은 요소를 가지게 하여 대한민국의 학습자들이 모두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든지간에 같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44) 교육부, 『국어과 교육 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997.

45) 7차 교육과정 '문학'영역 체계

7차 교육과정에서 연암의 작품은 1차에서 6차까지의 교육과정에 비해 훨씬 다양한 작품이 수록되고 있다. 각기 10종, 4종, 2종에 수록된 <양반전>, <허생전>, <호질>외에도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민옹전>등이 수록되었으며 특히 10년만에 비한문소설 즉 수필적 성향이 강한 『열하일기』의 <통곡할 만한 자리>가 수록된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양반전>의 경우 10개의 문학교과서 중 8개의 교과서가 ‘문학과 문화’ 영역의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sup>46)</sup> 2종은 ‘문학의 수용과 창작’영역에서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다.<sup>47)</sup>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이 ‘조선 후기 시대상을 알고, 시대와 문학의 관계를 안다’, ‘박지원의 실학사상을 이해한다’ 등 당대 사회문화적인 면, 당대의 문

영역	내용
(1)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나) 문학의 기능 (다) 문학의 갈래 (라) 문학의 가치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사용과 창작 원리 (나) 문학의 수용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라) 문학의 창작
(3) 문학과 문화	(가) 문학 문화의 특성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다)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라) 문학의 인접 영역
(4)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가) 문학의 가치인식 (나)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다) 문학에 대한 태도

46) 권영민, 『문학』, 지학사, 2002,  
구인환외, 『문학』, 교학사, 2002,  
김상태외, 『문학』, 태성, 2002,  
한계전외, 『문학』, 블랙박스, 2002,  
박호영외, 『문학』, 형설출판사, 2002.  
한철우외, 『문학』, 문원각, 2002,  
오세영외, 『문학』, 대한교과서, 2002.  
우한용외, 『문학』, 두산동아, 2002.

47) 박갑수외, 『문학』, 지학사, 2002.  
김병국의, 『문학』, 한국교원미디어, 2002.

<표 10> 7차 교육과정 연암 문학 수록 현황

수록 작품명	서명	편저자	수록수
허생전	고등국어 (하)	교육인적자원부	1/1종
	금성 <sup>48)</sup>	박경신외 3	3/18종
	교학구	구인환외 5	
	디딤돌	김윤식외 4	
양반전	교학구	구인환외 5	10/18종
	대한	오세영외 7	
	두산	우한용외 5	
	문원각	한철우외 7	
	블랙박스	한계전외 4	
	지학박	박갑수외 4	
	지학권	권영민	
	케이스	김병국외 4	
	태성	김상태외 5	
	형설	박호영, 한승주	
호질	민중	김창원외 3	2/18종
	중앙	조남현외 4	
통곡할만한 자리	디딤돌	김윤식외 4	2/18종
	민중	김창원외 3	
예덕선생전	상문연구	강황구외 4	1/18종
광문자전	금성	박경신외 3	1/18종
민용전	금성	박경신외 3	1/18종

학 양상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허생전>은 총 문학 교과서 중 세 종에 수록되어있는데 각기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과 문화’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sup>49)</sup> 두 종<sup>50)</sup>에서 다루고 있는 <호질>은 모두 ‘문학과 문화’영역에서 다뤄

48) 7차 문학교과의 경우 한 출판사의 책에서 여러 편의 작품을 다루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별을 위해 ‘문학’이라는 교과서 이름 대신 출판사명을 명시한다.

49) 금성-문학과 문화, 교학사(구)-문학의 수용과 창작, 디딤돌-문학의 본질.

지고 있다. <광문자전>은 한 종<sup>51)</sup>에 수록되어 있는데 ‘문학의 수용과 창작’ 영역에 실려 있고, <예덕선생전><sup>52)</sup>과 <민옹전><sup>53)</sup>은 각각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다.

4차 교육과정 이후로 아주 오랜만에 <일야구도하기>가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V. 수필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단원에 수록되어 있는 <일야구도하기>는 작가의 개성적 특성을 학습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학의 영역 중 ‘문학의 수용과 창작’영역과 관련되어 접근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차부터 7차까지 교육과정의 성격과 함께 문학 영역의 내용 범주, 그리고 연암 문학이 그 안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연암 문학의 교육적 접근의 성향을 발견했고, 흐름을 읽어낼 수 있었다. 연암의 문학작품은 주로 작품을 통해 작가의 사상과 시대상을 읽어내는 방향에서 접근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1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7차 교육과정까지 일관된 성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교육과정기마다 수록된 작품에 미미한 변화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전(傳)양식을 중심으로 수록하고 있었으며 4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한문소설이 아닌 다른 양식이 수록되는 것은 찾을 수 없었다. 그나마 7차에 이르러 <일야구도하기>가 1종의 교과서에서 단원마무리의 문제 지문으로 제시되고,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새로운 지문이 추가되어 전(傳)양식에 대한 편중성을 조금이나마 덜어 보았으나,

---

50) 김창원의, 『문학』, 민중서림, 2002.

조남현의, 『문학』,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51) 박경신의, 『문학』, 금성출판사, 2002.

52) 강황구의, 『문학』, 상문연구사, 2002.

53) 박경신의, 『문학』, 금성출판사, 2002.

숫자상으로는 비중으로 보나 여전히 한문소설에 대한 편중성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앞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암 문학 교육적 접근의 성향을 통해 알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고가 연암의 작품을 어떤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 2. 문제점

높은 문학적·교육적 가치를 가진 작품이라 할지라도 학습자들이 작품을 접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습되어질 수 없으며, 접근 방향이 편중되어 있으면 교육 자료로서의 효용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연암 문학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바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앞서 연암 문학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있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그것을 바탕으로 연암 문학 접근 방향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 1) 수록된 작품 갈래의 편중성

우리는 앞서 연암의 어떤 작품들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학습 자료로 사용되어 왔는지 1차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방경각외전」<sup>54)</sup>의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민옹전(閔翁

傳)〉, 〈광문자전(廣文者傳)〉, 〈양반전(兩班傳)〉과 『열하일기』의 〈허생전〉, 〈호질〉, 〈통곡할 만한 자리<sup>55)</sup>〉, 〈도강록(渡江錄)〉,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이렇게 9편의 작품이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에 수록되어 근 50여년 동안 학습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이 중 국정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것이 3차와 4차의 〈일야구도하기〉, 6차와 7차의 〈허생전〉이며, 나머지 작품들은 학교에서 선택하게 되는 검·인정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검·인정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것은 〈양반전〉이었으며, 〈호질〉이나 그 외의 작품들은 한 종의 교과서 정도가 채택하여 수록했다. 한문소설류가 2차부터 꾸준히 수록되어 있는 반면, 수필류는 4차 이후로 수록되지 않다가 7차에 이르러서야 〈통곡할 만한 자리〉정도가 한 종의 교과서에서 한 단원을 가르치는 제재로 수록되었고, 〈일야구도하기〉는 단원마무리 문제의 지문정도로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접하는 연암의 작품이 ‘한문소설류’라는 점이다. 국정교과서에 실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배우게 되는 〈허생전〉은 전(傳)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른바 한문소설이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택하여 교재로 사용하는 검·인정 문학 교과서 18종 모두 연암의 전(傳)을 학습 제재로 채택하고 있으며 그 중 3종만이 연암의 수필을 전(傳)과 함께 수록하여 학습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 디딤돌(통곡할 만한 자리), 민중서림(통곡할 만한 자리), 문원각(일야구도하기)의 문학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의 학생만이 연암의 수필류의 텍스트를 접하고 있

54)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 연암 박지원(朴趾源)의 문집인 《연암집(燕岩集)》의 권8 단편소설집.

55) 『熱河日記』, 『渡江錄』 8월 7일 내용을 디딤돌 문학교과서에서 ‘통곡할 만한 자리’라 이름붙이고 있다.

다는 이야기이다. 안타깝게도 이 중 민중서림과 문원각의 교과서 경우 <통곡할 만한 자리>, <일야구도하기>를 심화·보충학습이나 단원의 이해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어 텍스트 자체에 대한 내용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다음은 민중서림과 문원각의 교과서의 활동 내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출판사	민중서림
작품	박지원, ‘열하일기’에서 <sup>56)</sup>
단원	IV. 문학 문화의 발전 3. 한국 문학의 전망.
학습목표	1. 한국 문학이 한국 민족의 언어 및 문화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이해한다. 2. 문학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한국 문학의 방향 탐구한다. 3. 한국 문학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 지닌다.
학습 활동	맛보기 (A. 박지원 ‘『열하일기』’ <sup>57)</sup> B. 이육사 ‘광야’) 1. 두 작품의 작가 의식 비교해보자. 2. 두 작품은 시대와 언어와 갈래 면에서 서로 다르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 ‘한국 문학’이라고 부르는 근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맛보기’문제로 제시되어 있는데 ‘민중서림’의 맛보기 문제는 본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 단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소개하면서 간단히 풀어보는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때문에 맛보기 문제로 제시된 제시문은 그 텍스트 자체에 대한 설명은 비중있게 다루지 않으며 오로지 단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sup>58)</sup> 결국 연암의 비소설류가 수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텍스트에 대

56) 교과서에는 “박지원, ‘열하일기’에서”라고만 기록하고 있으나, 내용은 「渡江錄」 8월 7일 내용 <통곡할 만한 자리>이다.

57) “내 오늘에 처음으로 인생이란 본시 아무런 의탁함이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돌아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부터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우리와도 같은 것이다”까지 지면의 3/5 정도의 짧은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58) 한 단원마다 대략 6~8개 정도의 ‘맛보기’문제가 소개되어 있는데, 단원 소개 내용에 삼

한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학습자들에게는 큰 교육적 영향<sup>59)</sup>을 미치기에는 다소 미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연암의 작가적 생애는 『열하일기』가 집필되던 1780년대 초를 경계로 전기와 후기로 양분되는데 학교교육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한문소설들은 대부분 1750년대 초에서 177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연암이 문학수업을 하고 번민 끝에 과거를 포기한 후 마침내 당화를 피해 연암협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연암 인생 전반기의 소산이다. 1786년 선공감 감역으로 처음 출사한 이래 안의현감, 면천군수를 거쳐 양양부사로 퇴관하는 만년에 이르도록 연암의 창작은 그칠 줄 몰랐으며 더욱 원숙한 경지를 보여준다. 노비문제 · 화폐유통 · 서학(西學)대책 · 수령론(守令論) · 농업정책 등에 관한 그의 사회사상이 표명되어 있는 글들 역시 이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다. 결국 연암 문학이 큰 결실을 맺은 것은 『열하일기』의 집필 이후인 후기의 일이며 후기의 작품들 중에 연암의 사상과 문예적 기질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이 접하는 연암의 작품 중 대부분은 작품들은 대부분 작가 스스로가 습작이라고 말한 초기의 작품(한문소설(傳))인 상황이라서 연암의 뛰어난 사상과 문예적 특징과 그것이 담긴 주옥같은 후기 작품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작품 수록의 편중성은 우리의 학습자를 위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제 4차 교육과정까지는 <도강록>이나 <일야구도하기>가 단원의 메인 텍스트로 수록되고 국정교과서에서 다루어져 김·인정에서는 한문소설류를, 국정에서는 비소설류의 작품을 다양하게 접해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나 현행 7차에서는 국정에서조차 소설류를 다루고 있으

---

입되어 있고 중간 중간마다 나오기 때문에 학습시 중요도는 다소 떨어진다.  
59) 연암 작품 중 비소설류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

니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더군다나 『열하일기』라는 연암 문학의 최고 성과를 부분만 취하여, 그것도 한문소설 부분만 취하여 교육하고 있는 것은 『열하일기』라는 작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작품의 편향성은 학습자들에 연암에 대한 오해<sup>60)</sup>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연암 문학의 가치와 사상을 균형있게 배우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

## 2) 접근 방향의 편향성

연암의 작품이 고르게 수록되지 못하고 전(傳)이라는 양식에 집중되어 수록되고 있음은 살폈다. 그러면 이렇게 수록된 연암 작품은 어떠한 측면에서 학습되어지고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 해당 작품의 학습목표, 활동 등을 분석해 보았다.<sup>61)</sup>

아래의 표는 가장 많은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양반전>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양반전>을 다루는 10종 중 가장 보편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을 뽑아 제시한 것이다.<sup>62)</sup>

---

60) 연암 박지원이 실학자이면서 조선 후기 한문소설가로 아는 사람들이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도 의외로 많았다.

61) 7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 실린 연암의 작품들을 학습목표,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표는 부록에 실었다.

62) 이러한 분석은 모두(7차의 연암 작품 모두) 부록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람.

출판사	블랙박스
작품	양반전
단원	VIII.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4.중세 후기 문학의 흐름
학습목표	<p>&lt;학습목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세 전기와 구별되는 중세 후기 문학의 특징을 이해한다.</li> <li>2. 중세 후기를 대표하는 문학의 갈래와 변모 양상을 안다.</li> <li>3. 중세 후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서와 세계관이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안다.</li> </ol> <p>&lt;감상의 포인트&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품의 배경이 된 당시의 시대상을 떠올리며 읽는다.</li> <li>2. 작가의 의도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고려하며 읽는다.</li> <li>3. 작품에 담긴 비판 의식을 박지원의 실학사상과 관련지어 이해한다.</li> </ol>
학습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작품에서 주된 풍자의 대상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li> <li>(2) 부자가 양반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li> </ol> </li> <li>2.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조사해 보자.</li> <li>(2)이 작품에 나타난 양반과 평민의 관계가 조선 전기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li> </ol> </li> <li>3. 문학 작품은 ‘작가 의식의 산물’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박지원의 실학사상을 조사해 보고, 이러한 사상이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발표해 보자.</li> </ol>

<양반전>은 ‘VIII.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4.중세 후기 문학의 흐름’이라는 단원의 학습 자료로 사용되는데 이는 문학의 네 개 영역 중 ‘문학과 문화’<sup>63)</sup>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문학과 문화’영역을 가르치는 단원이기 때문에 학습 활동 역시 시대적 배경을 묻고 있으며(활동2번) 연암의 실학사상에 대해 묻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활동3번) 물론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도 1번에 준비되어 있다.

63) ‘문학’이라는 과목은 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과 문화’,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그 영역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교수되고 있다.

이 교과서 외 7종이 <양반전>을 ‘문학과 문화’영역의 학습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sup>64)</sup>, <허생전>에서 1종, <호질> 2종, <통곡할 만한 자리> 1종<sup>65)</sup> 역시 같은 방향성을 취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다루지는 연암의 작품 19군데 중 11종이 ‘문학과 문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양반전>에서 2종, <허생전>의 1종<sup>66)</sup>, <광문자전>1종<sup>67)</sup>, <통곡할 만한 자리> 1종<sup>68)</sup>, <일야구도하기> 1종<sup>69)</sup>이 ‘문학의 수용과 창작’영역에서, 나머지가 각각 1종씩 ‘문학의 본질’과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영역에서 접근되고 있다.

이렇게 조선 시대의 시대상과 연결지어 접근하고, 연암의 실학사상을 관련시켜 접근하는 모습은 비단 7차 교육과정만의 문제가 아니며 1차부터 꾸준히 지속되었던 현상이라서 그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sup>70)</sup> “실학과(實學派)에 대해 조사해 보자.”, “박지원이 지은 한문 소설의 종류와 내용을 조사해 보자.”는 식의 활동문제는 1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도강록>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을 정도이다.

연암의 작품들이 당대 사회의 모순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사실주

---

64) 권영민, 『문학』, 지학사, 2002,  
 구인환외, 『문학』, 교학사, 2002,  
 김상태외, 『문학』, 태성, 2002,  
 한계진외, 『문학』, 블랙박스, 2002,  
 박호영외, 『문학』, 형설출판사, 2002.  
 한철우외, 『문학』, 문원각, 2002,  
 오세영외, 『문학』, 대한교과서, 2002.  
 우한용외, 『문학』, 두산동아, 2002.

65) 민중서림.

66) 금성-문학과 문화, 교학사(구)-문학의 수용과 창작, 디딤돌-문학의 본질.

67) 박경신외, 『문학』, 금성출판사, 2002.

68) 김윤식, 『문학』, 디딤돌, 2002.

69) 문원각.

70) 앞서 ‘1차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의 연암 문학 수록 현황’에서 다루었으므로 상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의적으로 형상화하여 풍자한다는 점에서 ‘문학과 문화’라는 영역의 좋은 학습 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주의적 형상화’나 ‘풍자’라는 수법, 우연의 형식, 작가의 사상을 하나의 정해진 갈래가 아니라 유동적으로 적절히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점<sup>71)</sup> 등에 주목을 한다면 비단 ‘문학과 문화’만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고르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연암의 상대주의적 사유방식이나 실용주의적 태도 등에 주목한다면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영역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며, 나아가 문학이라는 영역을 벗어나 인성교육 측면(민주주의 교육이나 상대주의, 실용주의 교육)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암의 작품이 수록된 반세기동안 늘 유사한 방향에서 접근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연암 작품이 높은 교육적 가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상이나 문화적인 면에 편중하여 학습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교과서에 실린 자료가 연암의 초기 작품들 중 한문 소설에 치중되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중된 시각에서 교수학습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습자에게 더 많은 연암의 작품을 접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최근 문학 교육의 동향을 살피고, 우리가 연암 문학을 교육하면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방향, 즉 본고가 교수 학습 활동을 제안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을 알아보겠다.

---

71) 연암이 『열하일기』에서처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기행문의 형식외에도 삼입시, 필담, 에피소드 형식등을 때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 3. 연암 문학 교육의 지향점<sup>72)</sup>

최근 문학 교육의 동향을 살펴보면 문화 지향의 문학 교육, 창작(표현능력)교육의 강조, 다매체 시대에 적합한 문학 교육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문화지향의 문학 교육은 문학을 문화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문학이 문화의 하나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정의가 아닌데, 최근 이 점이 특히 강조된 것은 21세기가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 민족 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세계 문화 속에서 민족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며 또 교류할 것인가가 새로운 세기의 큰 과제이다. 민족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산물인 문학을 꾸준히 수용하거나 그러한 가치관에 바탕을 둔 표현 활동을 하는 것은 민족 공동체의 문화에 동참하고 발전시키는 길이며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문학을 수용하는 것은 인류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동참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족이나 국가 차원의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인류 공동체의 연대 의식도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문화 지향의 문학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곳이다.

둘째, 창작교육의 강조 이것은 표현능력 교육의 강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 문학 교육학계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것 중의 하나가 창작 교육, 즉 표현 능력 교육이다. 종래 문학 교육이 이해와 가상 위주였던 것에 대한 반성과 보완책으로 창작 교육이 대두된 것이다. 창작 교육은 최근의 문학 교육학에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라 근대 이전의 문학 교육에서는 큰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다. 즉 조선시대

---

72) 이 부분은 기존의 연암 문학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지향해야할 교육 방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식인들은 시문(詩文)을 격에 맞게 잘 짓는 것을 교양의 핵심으로 삼아 그것을 숙달하는 것을 문학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었다. 근대에 들어와서 작가와 독자가 분리되고 다수의 독자는 소수의 전문 작가가 창작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역할만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 교육에서는 창작 교육보다는 독자들의 이해와 감상 교육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어 활동이 기본적으로 이해와 표현 활동이라는 점, 인간은 누구나 문학을 수용하고 창작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창작 교육은 당연히 문학 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 창작 교육 논의는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활동 중심 문학 교육, 문화 지향의 문학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이들은 모두 종래의 문학 교육이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충분하게 증진시키지 못했다는 반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은 교사 중심의 문학 교육에 대한 반성이다. 학습 규모를 비롯한 교육 환경의 미비점도 있었지만 교사가 학습자를 상대로 문학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거나 고전적인 작품을 풀이해 주는 교사 중심의 문학 교육이 종래의 문학 교육의 주류를 형성해 왔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학습자가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게 하는 한계가 있다.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은 수동적인 위치의 학습자를 능동적인 위치로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활동 중심 문학 교육은 문학에 대한 지식이나 작품 분석 위주의 문학 교육에 대한 반성이다. 모든 학습자가 갖고 있는 문학 능력을 발휘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고, 평가하고, 상상하고 표현하고, 활용하는 제반 활동을 중심으로 문학 교육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 중심, 활동 중심의 문학 교육은 과정 중심 문학 교육, 수행 중심의 문학 교육과 상통한다.

지식과 이해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 성취도만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문학 교육에 대한 반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과정 중심, 수행 중심의 문학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습자 중심, 활동 중심의 문학 교육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창작 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교육 내용의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 교육 방법론의 획기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다매체 시대의 문학 교육이라는 것은 영상 매체와 전자 매체가 등장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다매체 시대의 문학 교육의 방향과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문학 교육의 새로운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문학 영역의 확장, 매체 이해, 매체 활용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학이 이제 말과 글에 국한되지 않고 영상 매체와 전자 매체로 전이되고 확장되고 있으므로 문학 교육의 범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확대되어야겠다. 그리고 이 새로운 매체들이 기존의 매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파급 효과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매체에 대한 학습자의 주체성, 비판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등의 신장이 주목되고 있다.

연암 문학의 교육적 가치는 위에서 살펴본 세 개의 측면 중 ‘문화 지향의 문학 교육’과 ‘창작 교육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고, 본고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암의 대표작 『열하일기』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sup>73)</sup> 한 개인이 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그것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는

---

73) 『열하일기』의 문화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와 창작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는 3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점, 현재에 살고 있는 학습자들이 당대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 등은 모두 ‘문화’교육이라는 점과 부합되며 최근 문학교육이 지향하는 ‘문화 지향의 문학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 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세계 문화 속에서의 민족 문화의 의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21세기 문학 교육의 관심에도 부합한다.

이미 기존의 교육에서 일반적인 문화적 접근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다. 조선 후기 사회와 연결지어 작품을 해석하는 단순한 ‘당대 사회·문화의 반영’이라는 문화적 측면은 충분히 부각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때문에 ‘문화’라는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思惟), 행동의 양식(생활 방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협동을 학습한 사람들의 집단)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이다. 때문에 ‘조선 후기 사회’라는 당대 시대에 한정시키기보다는 그 의미를 확장시켜 교수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 지향의 교육’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방법이라 생각한다.

최근의 문학 교육은 ‘창작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열하일기』라는 텍스트를 학습자들에게 소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기존 교과서에 실린 작품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폈던 것처럼 현 교과서에는 『열하일기』 중 <허생전>과 <호질>, <통곡할 만한 자리>, <일야구도하기> 총 4편이 수록되어 있다. <허생전>과 <호질>은 전(傳)의 양식으로 한문 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통곡할 만한 자리>와 <일야구도하기>는 수필의 성격이 강한 텍스트이다. 앞의 두 작품은 당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뒤의 작품들은 작가의 독특한 사유방식과 그것의 표현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학습자가 직접

창작하는 문체는 주어지지 않았으며,<sup>74)</sup> 수록된 교과서도 적어(3종) 상대적으로 비중이 없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록된 4편의 작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열하일기』는 글쓰기 방식에 있어 독특하고 창의적인 특징을 가진다. 연행록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개성적으로 발전시킨 데 그 특징이 있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도 있다. 주요 여정은 일기체로 서술하되 이에 포함시키기 힘든 중요 사항들은 기(記)나 설(說)의 형식으로 독립시켜 해당 편에 부록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연행록의 두 가지 서술방식 일기체(日記體)와 기사체(記事體)를 연암이 개성적으로 수용 · 발전시킨 것이다. 뛰어난 묘사와 극적 장면 중심의 서술 역시 연암의 문학적 개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삽입시, 필담의 수용, 단순한 메모형식 등이 적절히 섞여 있어 연암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연행록이라는 긴 텍스트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까지 있다. 이는 글쓰기 방식의 적절한 선택이 작가나 독자에게 있어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열하일기』의 특징은 창작 교육 즉 표현 능력 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의 자료로 적합하며,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장에서는 연암의 대표작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재량시간을 활용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이 장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열하일기』의 문화 지향 교육적 · 창작 교육적 성격(가치)를 상세히 논하고, 각 성격에 맞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74) 부록 참조.

### Ⅲ. 재량시간을 활용한 『열하일기』의 교수학습 방안

연암의 작품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10학년의 <허생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인정 교과서에 실려 있는 현황이다. 더군다나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려 있는 텍스트의 대부분이 전(傳)이라는 양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은 국어나 문학과 같이 짝 짜여진 수업시간을 이용하기에 제약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교사들의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시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표 13> 고등학교 재량 활동의 영역별 주제.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영역	하위영역	활동주제	배정단위
교과재량활동	기본교과 심화·보충	10대 국민공통교과 심화 및 보충	4-6단위
	선택과목학습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중에서 선택	4-6단위
창의적 재량활동	범교과 학습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정체성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기타 프로그램	2단위
	자기주도적학습	주제탐구활동, 소집단 공동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자연체험학습, 기타프로그램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을 신설하여, 학교의 자율과 재량

권을 확대하였고, 국민공통기본 교육 기간에도 학생의 교과 선택권이 보장되게 하였다. 재량 활동은 크게 선택과목 학습과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심화 보충 학습을 하기 위한 ‘교과 재량활동’과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분된다. 재량활동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시간 운영, 장소 활용, 교사 조직, 주제 설정, 집단 편성, 교재 선정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특색있고 융통성 있는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10학년에 연간 12단위의 재량활동시간을 마련하여, 교과 재량활동 10단위 중 선택과목 학습에 4-6단위,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심화·보충학습에 4-6단위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단위는 반드시 창의적 재량활동이 실현되도록 편성함으로써, 교과 위주의 학습에서 교과 외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 스스로 관심과 흥미가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선택적인 활동을 창의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재량활동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어과는 재량시간을 활용하여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국어’를 심화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선택교과 ‘작문, 문법, 화법, 독서, 문학’등을 선택하여 수업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열하일기』 교수 학습 방안은 국어(하) 2단원 정보의 조직과 활용 <허생전>의 심화 수업이나, 선택교과 작문, 문학, 창의적 재량시간의 민주시민 교육 등 여러 면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겠다.

앞서 2장에서 우리는 최근 문학 교육의 경향을 알아보고, 『열하일기』가 가진 교육적 가치를 이해의 영역과 표현의 영역으로 나누

어 간단히 짚어 보았다. 이 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재량시간을 활용한 본격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만들어 보려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2장에서 간략하게 살폈던 『열하일기』가 지닌 교육적 가치를 보다 상세히 알아보고, 그것의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 및 효용성을 살핀 후, 구체적인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겠다. 2장과 마찬가지로 문화 지향의 문학 교육 즉 이해의 차원과 표현 능력 교육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다.

## 1. 문화 지향 교육과 『열하일기』의 교수 학습 방안

“문학을 문화로 보기”는 최근 문학 교육학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문학 교육의 경향이다. 이 입장에서 문학 교육은 곧 문화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라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강조되는 문화라는 용어는 매우 복잡한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라는 용어는 ‘agri-culture’라는 말이 보여 주듯이 어원적으로 농업이나 목축처럼 인위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면서 인간의 발전 과정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인간은 문화적 존재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처럼 오늘날에도 문화라는 용어에는 이런 개념이 함축되어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근자에 중요한 화제가 된 문화 논의는 문화에 관한 관점이 또 조금 다르다. 물론 그것은 문화를 삶의 방식으로 보기는 하되 그 특수성에 주목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던 데 기반을 둔 것이지만, 문화가 사회적 관계와 가치를 반영하고 표현하는 것이며, 그 의

미의 제시와 수용 그리고 비교가 발전과 변화를 낳게 한다고 보는 데로 나아간다. 그러기에 복잡한 사회에서 문화의 전체성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다원성을 전제함으로써 그 다양한 문화가 생산되는 것은 곧 의미의 생산이며, 그 유통 또한 의미의 유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의 문화론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문화들의 경쟁 관계, 그 문화적 의미들의 투쟁 관계, 그 문화의 정체성, 상징성 등이다. 따라서 문화란 일종의 사회적 의미 작용(signification)이며, 그 정의는 ‘의미의 생산과 유통’이 된다.<sup>75)</sup> 그 생산과 유통에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여기서 나아가 매체 언어는 그것의 조작까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이르면 매체 언어의 문화적 의미가 분명해진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의미 작용으로 다양한 형태, 예컨대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건축을 비롯한 예술 영역뿐만 아니라 학문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학도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하나로 문화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문학은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한다. 문학을 통해 사회의 잘못된 풍조나 모순을 비판하고 풍자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독자들은 작품을 통해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사회·문화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문학은 또한 사회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삶의 방식을 언어 구조물로 형상화한 것이기에 문화가 된다. 예를 들어 신화는 단순히 이

---

75) 김대행, 『문학 교육 뜰짜기』, 역락, 2000, p99.

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민족의 근원과 살아갈 방식에 대한 합의가 담긴 창조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또 그것에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전해 내려온 것부터가 구성원이 그에 동의하고 그와 동질적인 생활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 된다.

문학이 언어로 구성된다는 것 자체도 역시 문화적인 것이다.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言衆)의 삶이 배어 있는데, 그러한 언어로 이루어진 문학은 그 언중의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 등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문학은 한국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잘 그려낸 것이므로 이를 배우는 것은 한국인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된다. 또한 문학은 전통적으로 예술과 문화의 한 분야로 분류되어 왔고, 민족 문화의 정수(精髓)로 평가되어 왔다.

문학이 지닌 이러한 사회·문화적 성격을 고려할 때 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일은 문화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능력, 그리고 지적으로 삶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로 발전하게 되며, 이러한 문학을 배우는 것은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문화지향의 교육이 왜 필요한 것일까? 왜 국어교육은 문화로서의 문학에 주목하고 그것을 학습자에게 교수하려 하는 것일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모든 개인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사태에 대해 주체성 있는 반응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 필요해진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요구한

다.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일은 그 가치를 비판하고 공감하는 일이며, 타인의 삶과 세계를 인식하여 그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문학의 이러한 문화적 성격에 접근하는 것은 문학교육의 몫이면서 또한 국어교육의 내용이기도 하다. 아울러 말초적 또는 여가적 흥미만을 추구하는 문화 형태의 범람앞에서 적절한 취사와 선택을 통하여 개인의 삶을 조화롭게 이끄는 것도 새로운 시대의 문학 교육이 지향할 가치라 할 수 있다.

두번째로 민족적 정체성과 인간성의 고양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의 계승과 강조라는 국면이 강조될 수 있겠다. 특히 인문 정신의 실종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이 점이 강조되며, 인간이 본디 문화적 존재이고, 언어의 본질이 문화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도 중시된다. 특히 문화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문화를 체질화하는 것도 강조된다. 세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보편성과 고유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이다. 하나의 세계 속에서 그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보편성으로만 나아가게 되면 그 민족의 존재 의의는 사라진다는 점은 역사와 현실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교육은 그 목표에서 민족 문화의 계승과 창조를 강조한다. 기능 중심으로만 달려가는 교육의 병폐는 이 점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였기에, 이제는 그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세계의 문학 작품을 두루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문학적 전통이나 특색, 나아가 그 발전적 창조에 이르기까지 강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방향이다.

셋째, 인간은 제도의 변화 앞에는 쉽게 적응하지만, 문화의 차이 앞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겪는다는 점은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

이 된다. 다른 문화와 접하게 될 기회가 왔을 때 진정으로 겪게 될 어려움은 가치관의 차이와 행동방식의 차이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미리 대비하면서 저마다의 가치를 슬기롭고 조화롭게 찾아 가는 길은 진정한 문학이 추구해 왔던 인간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체질화를 통해서 구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학생들에게는 그 일이 필요하다.

연암은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실학자이며 문인이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유학자들과 달리 ‘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利用厚生)’하는 현실적 삶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형식의 글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열하일기』에는 이와 같은 연암의 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연암은 당시 중원을 지배하고 있는 청조를 객관적 시각으로 인식하고자 하였다. 그는 중국을 여행하면서 발달한 청의 문물과 중국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자세를 배워와서 우리 조선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연암의 이러한 자세는 <도강록>, 「일신수필」 등 『열하일기』의 곳곳에 피력되어 있다. 특히 당시 청조의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는 열하에 머무르는 동안 견문한 것을 바탕으로 쓴 <황교문답>과 <심세편>에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암의 대청관은 <관내정사> 7월 28일자 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호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연암이 중국을 여행한 때(1780)는 명나라가 멸망(1644)하고 청조가 중원의 주인으로 자리잡은 지 한 세기도 훨씬 지난 18세기 후반이다. 이 때 청조는 표면적으로는 태평성대처럼 보였으나, 내면적으

로는 철저한 탄압정책이 실시되고 있을 때였다. 소수민족으로 거대한 중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 법률 등을 통한 고압적 통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인은 정치적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탄압은 그 어느 계층보다 심했다. 이러한 청조의 탄압정책은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과거 시험으로 부귀공명을 추구하거나, 고증학, 훈고학 등에 몰두하게 하는 등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추구하게 하였다.

한편 당시 조선에서는 춘추에 기반을 둔 화이론을 극복하지 못한 고루한 유학자들이 스스로 소중화(小中華)라 칭하면서 청나라를 오랑캐로 멸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암은 『열하일기』에서 화이론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청조의 문화는 한족의 문화, 곧 중화의 문물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배척할 대상이 아님을 『열하일기』에서 다양한 글을 통해 강조하였다. 이렇게 연암은 華(화)와 夷(이)를 구별하지 않고 대등한 것으로 보고 중국의 문물을 배워야 할 대상이지 배척할 대상이 아님을 『열하일기』 여러 곳에서 피력하였다. 연암은 실제로 청나라를 여행하면서 조선의 유학자들의 문화우월주의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열하일기』에는 한 개인이 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그것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조선인 연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취할 것은 취하는 실용적인 태도, 타국의 문화에 대해 거리낌없이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열린 자세, 이러한 연암의 모습은 『열하일기』가 문화 지향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를 획득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열하일기』 곳곳에서 발견되는 당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조선의 문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대 문화에 대한 여러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해주어 민족 문화의 계승과 창조라는 국면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열하일기』를 교육함으로써 학습자는 타문화를 접했을 경우의 문화충격을 방지할 수 있고, 전통의 계승을 통해 우리 문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창조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족적 주체성을 획득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열하일기』의 문화 지향 교육적 측면을 크게 이용후생의 실학사상과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겠다.

#### 1) 이용후생의 실학사상 - <허생전>을 대상으로

실학사상은 농경사회 교육은 물론 현대의 산업·정보 사회 교육에 긴밀하게 관련된다. 그들이 주창했던 민족주체사상, 평등 사상, 근대지향의식, 민권의식, 진취성, 과학성, 자주성, 개방성<sup>76)</sup> 등은 현대 교육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명분보다는 실리를, 허례허식보다는 현실적이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숭상하고 추구하는 실학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즉,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가치관과 상통한다. 이는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풍토나 허례허식을 강조하는 결혼 문화등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육이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

---

76) 이문원, 「조선 후기 실학교육사상의 현대적 조명」, 『한국교육사학』 24권, 2002, p14.

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현대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열하일기』에서 찾을 수 있는 실학사상의 면모와 그것의 교육적 가치를 살피기 위해 우선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발전양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조선 후기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할 수 있다.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사대부 계층이 주축이 된 조선의 체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고비로 점차 와해되기 시작하였고, 생산력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경제 질서의 재편과 평민의식의 성장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삼정의 문란과 같은 사회의 모순들이 척결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상하층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갔고 19세기에 들어서서는 홍경래의 난과 임술민란, 나아가서는 갑오농민전쟁으로까지 발전했다.

이와 같이 급격히 변동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 이른바 실학사상(實學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된 이 실학사상은 이미 사회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근대적 요소에 착안하여 사회의 제 모순을 근대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 사회 개혁에 있어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실학사상은 이용후생학과(利用厚生學派), 경세치용학과(經世致用學派), 실사구시학과(實事求是學派)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용후생학파는 상공업의 유통 및 생산기구, 일반 기술 등의 혁신을 지표로 하는 유파이며, 경세치용학파는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유파로써 토지제도 및 행정기구 기타 제도상의 개혁에 치중하였으며, 실사구시학파는 추사 김정희에서 일가를 이룩하게 되는 것으로 경서(經書) 및 금석(金石), 전고(典故)의 고증을 위주로

하는 학파이다. 이 중 연암 박지원의 사상은 이용후생학파에 속한다. 조선 후기 상공업의 발달이 피부로 느껴지는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그의 사상은 당연히 상공업의 진흥과 상품의 유통에 관심을 가졌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열하일기』에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수레가 규격이 똑같으면서 중국 천하의 곳곳에 다 다님을 보고 우리나라 수레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개진한 것이 있다.

우리 조선에는 아직도 수레란 것이 없지만, 있다는 것도 바퀴가 똑바르지 못하고 바퀴 자국은 궤도에 들지 못하는 수레가 아주 없는 셈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우리 조선은 산협 지대라 수레를 쓰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다고들 한다. 이런 당도 않은 소리가 어데 있을 것인가? 나라에서 수레를 이용하지 않고 보니 닭지 않고 있는 것이요, 수레만 쓰게 된다면 길은 절로 닭일 것이 아닌가? 거리가 비좁고 산마루들이 험준하다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걱정이다. ……(중략)…… 중국이 재물은 풍성풍성하되 한쪽에 몰려 있지를 않고 철새없이 흘러 퍼지고 장사를 통하여 이곳저곳 옮겨지는 것은 모두 수레를 이용하는 탓이다. 금방 한 가지 분뜰 만한 가까운 예를 들어 보더라도 우리 나라 사신 일행이 도중에 당하는 온갖 폐단을 털어버리고, 이녁 수레에 이녁 물건을 이녁이 싣고 곧 추 연경까지 댄다면 얼마나 편리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가? ……(중략)……

그러나 이 지방에는 혼한 것이 저 지방에는 귀하고, 이름만 들었을 뿐 물건을 볼 수 없는 까닭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는 곧 가져올 힘이 없는 까닭이다. 그래도 넓이가 수천 리나 되는 나라에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대체 무엇이겠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내에 수레가 다니는 못하는 까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이는 참말 백성들의 일상 생활에 유익코저 함이요, 또 국가로 보아서도 절대한 이용물이기……77)

수레의 문제는 경제 유통의 문제인데 수레가 제대로 발달해 있지

---

77)박지원 著(저), 리상호 옮김, 『열하일기』 <일신수필>, p237.

않으므로 해서 지역 간의 물자유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조절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암은 수레만이 아니라 말, 벽돌등의 구체적인 사물에의 통찰을 통하여 당시 경제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利用(이용)이 있는 뒤에야 厚生(후생)이 될 것이요, 후생이 있는 후에야 그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다. 물건을 이롭게 쓸 줄 모르고 그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물건을 이롭게 쓸 줄 몰라 생활 자료가 근본 부족하면서 억지로 잘살겠다고만 한다면 어떻게 그 도덕과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인가.<sup>78)</sup>

경서에서는 정덕이용후생(正德利用厚生)이라고 했지만 연암은 이용후생정덕으로 순서를 바꾸었다. 경제력의 뒷받침 있어야 윤리·도덕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이러한 연암의 사상은 전통적으로 유교에서 상업은 말리(末利)라 하여 배척하였던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연암의 경제사상은 상업 분야만이 아니라 농업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조가 승(령)을 내려 농업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책을 내라 하였을 때 연암은 『과농소초(課農小抄)』를 지어 바쳤다. 『과농소초(課農小抄)』는 그가 평소에 농학에 관심을 가져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또 실제 지방관으로 나가 있으면서 농업의 현실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진 결정체이다. 그가 평소에 농업에 관심이 있었음은 금친 연암협에 은둔했을 때, 뽕·밤·배·복숭아 등의 재배와 양어·양봉·목축등을 시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주로 농업에서의 수리문제, 농기구문제, 토지 문제등에 관심을 가졌다.

---

78) 박지원, 앞의 책, p57.

연암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세계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자연이나 인간세계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설명하려는 태도가 없이는 근대적 사상의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연암의 실학사상이 근대적인 색채를 띠는 이유는 자명해진다. 연암이 『열하일기』에서 북경에 갔을 때 태학(太學)의 명륜당(明倫堂)에서 지전설(地轉說)을 접한 사실과, 김석문의 해·지구·달이 구체(球體)로 우주에 떠 있다는 주장<sup>79)</sup>과 홍대용의 지전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암이 지전설을 상당히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와 달은 오른쪽으로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 도는 궤도가 해는 크고 달은 작으며 도는 속도가 늦고 빠름이 있어 한 해와 한 달은 일정한 도수에 맞고 있거늘 해와 달이 땅을 둘러싸 원편으로 돈다는 말은 우물 속에서 보는 견식이 아닐까요?”

땅덩이의 본바탕이란 둥글둥글 허공에 걸려 사망도 없고 아래 위도 없이 쉼기 돌듯 돌다가 햇빛을 처음 받는 곳을 날이 샌가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구가 더 돌아 처음에 해와 마주 대하는 데는 차차 어긋나면서 멀어져 정오도 되고 해가 기울기도 하여 밤과 낮이 되지 않을까요?……(중략)……

또 등불 앞에 놓은 물레를 가만히 두고 보면 물레바퀴가 돌 때는 물레바퀴의 군데군데가 등불 빛을 받고 있으니, 그렇다고 등불이 물레바퀴를 돌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구의 밝고 어두운 이치도 역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해와 달은 원래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요, 또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땅이 움직여 돌지를 앓고 언제나 한자리에 박혀 있다고 너무 믿기 때문에 생긴 착각이 아닐까요? ……(중략)……”

기공이 내 말을 듣고는 죽겠다고 웃고는 물었다.

“참 용한 이야기요. 땅이 둥글다는 이야기는 서양 사람들이 처음 말했지만 땅덩이가 돈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선생의 이 학설은 스스로가 터득한 학설인가요, 그렇잖으면 어느 선생에게 계승한 학

---

79) 三丸浮空說(삼환부공설).

설인지요?”

“사람의 일도 모르는 터에 하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본디 수학에 어두운 터입니다. 비록 칠원옹<sup>80)</sup>의 깊은 생각으로도 아득한 우주에 관한 지식은 덮어 두고 해설을 안 했지요. 이것은 내가 터득한 지식이 아니라 귀동냥이랍니다. 홍대용이란 친구가 있는 데 호는 담헌입니다. 학문을 좋아하되 사람이 꼼꼼하지 않아 일찍이 나와 함께 달구경을 하면서 장난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로 황당하여 종잡기 어려우니 성인의 지혜로도 해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중략)……<sup>81)</sup>

전통적 관념인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는 인식으로부터의 탈피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탈피일 뿐 아니라, 절대주의적 세계관에서 상대주의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처럼 연암의 과학적 인식은 한편으로는 실학사상으로, 또 한편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탈피로 연결되는 것이다.<sup>82)</sup>

지금까지 우리는 『열하일기』의 실학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제 실학사상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그 대상은 고등학교 국어(하)에 수록된 <허생전>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허생전>은 연암의 이용후생이라는 실학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며, 국정교과서 국어책에 수록되어 모든 고등학생이 접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 (1) 이용후생사상의 교수학습 방안

<허생전>은 겉으로 실학사상이 확연히 드러날 만큼 연암의 실학사상이 잘 반영된 작품이다. 특히 허생이 이상국을 건설하고 군도

80) 중국의 전국 시대의 철인인 장자의 별명.

81) 박지원, 앞의 책 <태학관유록>, p73.

82) 김경희, 「燕巖 朴趾源 문학의 교육 방안 연구 漢文小說 、『熱河日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들의 삶이 넉넉해진 후에 덕이 바로 설 수 있음을 말하는 부분은 연암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드러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허생전>의 큰 줄기를 이루는 이야기 중 하나는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것은 연암 자신이 상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생의 상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허생은 작은 시험에서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유통구조의 원시성과 매점매석이 가능한 현실적 결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변씨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운송수단의 침체성을 문제 삼는다. 산물을 독점함으로써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sup>83)</sup>고 말하면서 이를 ‘소인지매(小人之買)’라고 말한다. 백성을 괴롭히면서 결국은 나라를 병들게 할 작은 장사치들이 횡행할 수 밖에 없는 조선의 유통사정을 폭로하는 것이다.

허생이 국제 무역을 통해서 은 백 만냥을 벌어들인 것은 당시의 조선조가 근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을 통한 자본형성이 중요함을 일깨우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아울러 정치, 경제에 있어 쇄국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

---

83)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단가를 조용히 물어 보았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무릇, 천 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物種)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 냥이 열이라, 또한 열 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아홉 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利)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요? 대개 만 냥을 가지면 죽히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를 전부, 한 고을이면 한 고을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 내듯 할 수 있지요.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요.” - 고등학교 국어(하) p84-85

음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허생은 당시의 벌열층에 의해 야기된 정치, 경제적 쇠국정책의 소산인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상업자본을 형성함으로써 국가경제가 흥할 수 있다는 대내적인 경제난 해결과 함께 조선을 근대화시킬 수 있는 중상주의적 실학 정신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이 작품은 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 작품속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재조직하여 작품을 감상하게 하는 단원에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학습활동 역시 그 쪽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되어 있으며 <허생전>에 실학사상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sup>84)</sup>

문학은 인간의 삶, 그리고 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품 속에는 당대의 사회적·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작가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시대와 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그러한 상황을 제시하였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 따라서 본시에서 <허생전>의 수업은 <허생전>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도록 지도하고, 이를 통해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품이 생겨나게 된 계기와 작가

84) 교과서 하단에 도움말 형식의 간략한 메모 외에는 실학사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도움말\*

연암 박지원의 이용후생 철학-연암은 ‘열하일기’에서 “그들(청나라)의 장관은 기와 조각에 있고, 또 똥무더기에 있다.”라고 말하며 하찮은 물건이라도 실생활에 적절하게 이용하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청나라 사람들의 생활자세를 부러워 했다. 이러한 생각은 “쓰임을 이롭게 한 [利用] 뒤에야 백성들의 생활이 풍부해지고[厚生], 백성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한 뒤에야 그들의 행실을 바른 데로 이끌 수 있다.”는 이용후생철학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러한 연암의 이용후생 철학의 명분과 무기력에 사로잡힌 당시의 양반 사회를 향하 비판의 바탕이었으며, 현실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태도[실사구시(實事求是)]로 이어지고 있다

의 창작 동기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학 작품이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의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 요인을 생각해 보게 하도록 하고 있다.<sup>85)</sup>

표 15 고등학교 국어(하)에서 다루지는 <허생전>의 학습내용

출판사	고등학교 국어(하)	
단원명	2.정보의 조직과 활용	
차시	4-6	
대단원 목표	1. 다양한 매체 언어의 특성 이해 2. 다양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재조직하며 듣고 읽는다. 3.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재조직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소단원 목표	이해	·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 이해하기 ·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의 구체적 의미와 보편적 의미 이해하기
	활동	·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재조직하여 감상하기 · 작가의 상황과 관점을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하기
학습활동	1. 허생에 대한 아내의 말에서 알 수 있는 양반 계층의 문제점 2. 허생의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경제 현실의 문제점 3. 허생이 군도를 이끌고 섬에 들어간 행동을 중심으로 (1) 창작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말해보자. (2)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4. 허생과 변씨의 대화를 역할 놀이로 재구성하여 듣고, 글을 읽을 때와 어떤 점이 다른지 토론 5. 허생과 이완 대장 사이의 대화에 주목, 허생이 제기한 세 가지 정책을 이완 대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 6.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요구한 세 가지 정책을 정리하여 상소문 형식의 글을 쓰려 한다. 이런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재조직해 보자. 7.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기와 작품이 쓰여진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 100년 전의 상황을 풍자한 이 작품이, 박지원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과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이야기.	

85) 교육인적자원부, 국어(하) 교사용지도서, 두산, 2003, p123.

『열하일기』에서 찾을 수 있는 실학사상은 교과 재량 활동-기본 교과 심화 보충 시간을 이용하여 교수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 (하) 2단원 정보의 조직과 활용-(2) 허생전의 심화 수업이 바로 그것이다. 교과 재량 활동-기본 교과 심화 보충 시간의 배정단위는 한 학기에 4-6시간이므로 『열하일기』를 활용한 실학사상 심화는 1-2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해야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수업은 교과 재량 활동-기본 교과 심화 보충 시간을 이용한 수업이다. 학습자는 이미 본시수업을 통해 <허생전>의 텍스트를 접하고 기본적 배경지식을 쌓아놓은 상태이다.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 <허생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수업은 <허생전>의 기본 수업목표 중 ‘작가의 상황과 관점을 고려한다’는 항목을 심화시킨다. 작가의 상황 즉 실학 사상가로서의 연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학에 대해 소개한다.

#### 가. 학습 목표의 제시

- 작품을 읽고 조선 후기 사회·문화 현실을 알 수 있다.
- 실학사상가 박지원에 대해 이해하고, 작가의 관점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안다.
- <허생전>의 인물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한다.

이 수업은 <허생전>의 기본 수업목표 중 ‘작가의 상황과 관점을 고려한다’는 항목의 심화수업이기 때문에 학습목표 1, 2는 작가와 작가의 상황을 이해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세 번째 학습목표는 연암의 실학사상을 대변하는 <허생전>의 인물을 현대사회에서

찾아봄으로써 실학의 현대적 가치를 되새겨보는 데 목표를 두었다.

#### 나. 교수 학습 방안

작품을 통해 당대 사회문화를 알고, 실학사상에 대해 이해하며 그것을 실생활까지 적용할 수 있으려면 우선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최근 학교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마인드맵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sup>86)</sup>

마인드맵은 시각적 형태와 그림을 통해서 개념을 조직화하는 방법인데 인간의 두뇌라는 무한한 용량의 컴퓨터에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뇌 속에 지도를 그리듯 해야 한다는 독특한 방법이다.<sup>87)</sup> 정보화 사회의 진입과 동시에 무한 경쟁시대의 생존 전략을 인간의 창조성, 직관, 독창성을 가지고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일이며 이런 점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마인드 맵의 출현은 다지능의 계발이 요구되는 이 시대의 새로운 학습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마인드맵은 개방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개념이나 이념, 주제에서 나타난 것이 재구성에 도움을 주고 필기를 명확히 하며, 사고를 자유롭게 한다. 때문에 마인드맵의 활용은 작품의 내용을 알기 쉽게 구조화 할 수 있고 학습활동의 집중 효과 및 흥미 유발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의 학습 내용을 간단히 요약

---

86) 마인드맵 만들기의 틀-① 백지를 준비한다. 줄이 쳐진 종이는 자신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각기 다른 서너 가지 색깔의 색연필과 형광펜을 준비한다. ③ 용지를 쓸 때에는 전면을 골고로 사용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④ 백지의 중앙에서 시작한다. ⑤ 그림 이미지로 표현한다. 만약 그림이 어려우면 그림과 핵심단어의 혼용도 가능하다. ⑥ 그림은 3~4색으로 채색한다. 단색보다는 눈에 잘 띄어 기억에 도움이 된다. ⑦ 주(主) 가지에 놓은 핵심단어는 중심이미지와 연결성을 가져야 한다. 곡선을 쓰는 것은 두뇌의 오른쪽 기능인 리듬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다.

87) 이두환, 마인드 맵 학습활동활용에 관한 실증적 사례연구,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 연구대회, 1995.

정리할 수 있고 재학습의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쉽게 기억할 수 있어서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예시1>은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본시수업에서 읽었던 <허생전>의 내용을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sup>88)</sup>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허생전>의 전체 줄거리를 다시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며,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사상을 이해하고, 그들의 갈등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하는 이유가 <허생전>의 이론 학습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자들이 교과서를 펴고 답을 찾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전시 학습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부정적인 강화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sup>89)</sup>

---

88) 제시된 <예시1>은 마인드맵 활용의 예를 보여준 것이므로 교사는 각주45번에 제시된 틀에 맞추어 자자유로운 마인드맵 활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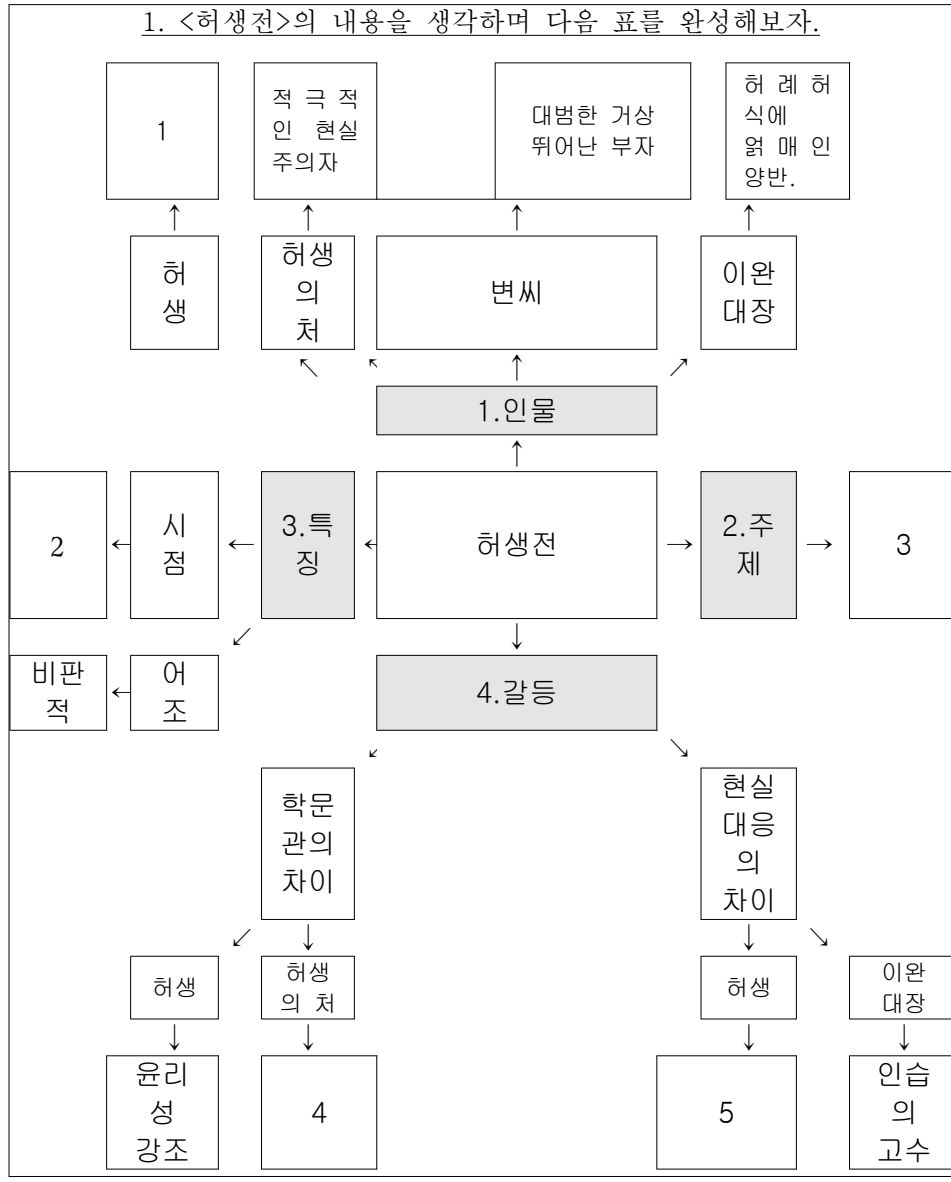
89) <예시답안>

1. 빈곤한 유생으로 당시의 선구자적 인물. 사족양반의 죄악을 여지없이 폭로하여 정·경·사 등 모든 분야에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뿐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인물. 비범한 능력을 가진 비판적 지식인
2. 전지적 작가 시점
3. 전반부에서는 허생이 매점매석으로 부를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나라의 취약한 경제 현실을 비판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지배 계층을 대표하는 이완을 등장시켜 사대부 계층의 무능과 허위 의식을 비판하는 동시에 사대부들의 현실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추구하고 있음
4. 실용성 강조
5. 시사삼책

<예시1>

[마인드맵을 통한 <허생전>의 핵심정리]

※국어시간에 배운 허생전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예시2>

**[인물의 행동, 사건에서 드러나는 실학적 면모 파악하기]**

● 인물의 행동을 파악하여 다음 주어진 내용의 빈칸을 완성하여 보자.

1. 허생이 제시한 ‘시사 삼책’에 대해서 알맞은 내용을 써 넣으시오.

방안	문제	내용	이완 대장이 거부하는 이유
제1책	·( (1) )	·능력에 따른 과감하고 공정한 인재 등용	·명분론에 불과할 뿐 군주가 행한 적이 없다.
제2책	·친명정책	·( (2) )	·청나라의 감시와 훈척의 반대가 심하다.
제3책	·( (3) )	·북벌의 전략적 이용 경계와 비실용적 인습의 과감한 개혁	·( (4) )

2. 이완 대장은 실존 인물이지만, 허생은 실존 인물이라 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작품의 인물이 보여 주는 삶은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반영이며, 당대 현실 속의 삶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인물이 상징하는 바를 정리해 보자.

인물	상징하는 삶	특징
허생	·이용후생하는 북학과 ( (1) )의 전형적인 모습	·( (2) )
변부자	·조선 후기 상업 자본주의 발전에 의해 형성된 ( (3) )	·속물적
이완	·( (4) )을 추진하는 현실 안주의 체념적 지식인	·( (5) )

3. 다음은 연암의 『열하일기』의 일부이다. 이를 읽고 허생이 주장하는 것과 연암이 주장하는 것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자.

우리 조선에는 아직도 수레란 것이 없지만, 있다는 것도 바퀴가 똑바르지 못하고 바퀴 자국은 궤도에 들지 못하는 수레가 아주 없는 셈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우리 조선은 산협 지대라 수레를 쓰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다고들 한다. 이런 당토 얇은 소리가 어데 있을 것인가? 나라에서 수레를 이용하지 않고 보니 닳지 않고 있는 것이요, 수레만 쓰게 된다면 길은 절로 닳일 것이 아닌가? 거리가 비좁고 산마루들이 험준하다는 것은 아무 쓸데 없는 걱정이다. ……(중략)…… 중국이 재물은 풍성풍성하되 한쪽에 몰려 있지를 않고 설새없이 흘러 퍼지고 장사를 통하여 이곳저곳 옮겨지는 것은 모두 수레를 이용하는 탓이다. 금방 한 가지 본뜰 만한 가까운 예를 들어 보더라도 우리 나라 사신 일행이 도중에 당하는 온갖 폐단을 털어버리고, 이녁 수레에 이녁 물건

을 이덕이 싫고 곧추 연경까지 댄다면 얼마나 편리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가?

영남 지방 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강원도 사람들은 주두나무 열매를 담아 간장을 대신하고 서북 사람들은 감과 꿀을 분간 못 하고 바닷가 사람들은 멸치를 거름 삼아 쓰되 어찌다가 한번 이것이 서울까지만 오면 한 움큼에 한 냥 값이니 얼마나 이것이 귀물인가?

이 지방에는 흔한 것이 저 지방에는 귀하고, 이름만 들었을 뿐 물건을 볼 수 없는 까닭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는 곧 가져올 힘이 없는 까닭이다. 그래도 넓이가 수천 리나 되는 나라에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대체 무엇이겠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내에 수레가 다니는 못하는 까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이는 참말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유익코저 함이요, 또 국가로 보아서는 절대한 이용물이기……90)

<예시2>는 인물의 행동, 사건에서 드러나는 실학적 면모를 파악하는 활동이다. 활동1에 제시된 마인드맵을 통해 구조화된 작품을 내용을 심화시키는 활동으로 이 활동 역시 국어 교과서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도록 한다. 1번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시사삼책으로 제시되는 연암의 실학사상을 전모를 알 수 있다. 2번 활동은 등장인물들이 상징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특징을 정리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번 활동은 연암의 실학사상이 드러난 다른 글을 읽어봄으로써 작가의 실학사상적 면모가 ‘허생’을 통해 대변되고 있음을 학습자가 깨닫도록 하는 문제이다. 학습자는 이 활동을 통해 문학작품은 작가의 사상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열하일기』의 텍스트를 하나 더 접하게 된다. 91)

90) 박지원, 앞의 책, <일신수필>, p237.

91) <예시답안>

- 1.(1) 인재등용의 문제(인재등용을 위해 삼고초려하라)
- (2) 실질적으로 친명정책을 펼쳐라.
- (3) 부국강병 (청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부국강병하라)
- (4) 또한 이것도 명분과 권의 형식을 중시하는 사대부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스스로 머리를 깎고 되놈의옷(청나라옷)을 입혀 청나라 시험에 응시하고 장사를 하면서 청의 실정을

<예시3>

[21세기 우리시대 허생찾기]

※아래의 두 글은 나름대로 우리 시대의 허생을 찾아보는 글이다. 글 ‘가’는 <허생전>의 패러디 <허생전>으로 어느 누리꾼이 올려서 화제가 된 글이다. 이 글에서의 ‘허생’은 축구감독 ‘히딩크’이며, 글 ‘나’는 신문 기사로 허생과 ‘벤처기업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 허생은 화란국에 살았다. 곧장 유랍(流拉) 밑에 닿으면, 풍차 위에 오래 된 미두피두(美頭彼兜)가 서 있고, 미두피두를 향하여 골대문이 열렸는데, 두어 칸의 반치(反致)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축구 보기만을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이가 많아 이제 월두겁(月斗怯)에 나가지 않으니, 축구공부는 해 무엇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축구전략을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축구 중계 만담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축구 중계 만담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유니폼(有尼品) 장사는 못 하시나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각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비디오로 적 전술분석만 하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축구 중계 만담도 못한다. 유니폼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 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태양계집 우승하기로 십년공부를 기약했는데, 이제 칠 년일걸……." 하고 획 문 밖으로 나가 버렸다.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 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피파(彼坡)로 나가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어떤 국가대표가 요즘 가장 약하오?"

홍마씨(紅魔氏-붉은악마)가 맡고 있는 고리아(固利亞)를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홍마씨의 집을 찾아갔다 (생략)

파악할리가 없기 때문.

1. (1) 실학자.
- (2) 실용적 성격.
- (3) 신흥 부자계층.
- (4) 북벌.
- (5) 보수적, 반동적.

나. [경제시평-조성대] 벤처와 ‘헌쟁’

국민일보 2006-04-25

흔히 벤처 기업은 도전과 모험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모험이라 함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고, 그런즉 벤처 기업가는 꿈과 기대치로 사업을 밀고 나가게 마련이다.

조선 말기 석학인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이란 소설에는 독서와 면학밖에 모르던 허생이 장안 최대 갑부인 변씨를 찾아가 거두절미하고 “장사를 하려고 하니 만 냥만 빌려주시오”라고 부탁한즉, 변씨가 두말없이 돈 만 냥을 빌려주자 이를 밀천으로 백만냥을 벌게 된다. 변씨는 허생의 당당한 자세에, 자세한 내력도 묻지 않고 거금을 빌려주는데 이 역시 어찌 보면 이른바 ‘묻지마 투자’ 같은 리스크 벤처이지만, 어떤 경우든 불확실한 상황을 기회로 보는 상인의 감각일 것이다.

모험을 기회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근거는 무엇일까? 벤처 기업가들은 흔히 그 감각의 근거로 세 가지 요인을 꼽는다. 첫째는 핵심 기술, 둘째는 인력, 마지막은 자금이다. 어떤 기업이든 이 세 가지 요소가 성공의 필수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남보다 독특한 기술력과 신념 있는 인력이 미래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과 차별화해 벤처라고 부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사업 학업 또는 정치 등 이 세상의 어느 것 하나라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도전 아닌 것이 있겠는가.

1. ‘허딩크’와 ‘벤처기업가’를 우리 시대의 허생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_\_\_\_\_

2. ‘허생’이라는 인물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것은 왜일까?

\_\_\_\_\_

3. 우리 주변에서 ‘허생’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만약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21세기형 허생을 창조해보자.

\_\_\_\_\_  
\_\_\_\_\_  
\_\_\_\_\_  
\_\_\_\_\_

<예시3>은 현대사회의 허생 모델을 찾아보는 활동이다. 주인공 ‘허생’은 그 인물형이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진취성과 실용주의적 태

도와 잘 맞물려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인물 유형이다. 이러한 인물유형을 찾아봄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실용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시된 글은 ‘허생’이라는 인물 유형이 현대 사회에서도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제시한 글이다. ‘가’의 글은 히딩크를 허생으로 패러디한 것으로 히딩크의 실용적인 성향을 허생의 실용적 성향과 연결지어 패러디한 작품이다. ‘나’의 글은 허생의 사업가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벤처기업가에 대입시켜본 것으로 이도 결국은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제시문을 통해 학습자는 구체적인 예를 접하고, 보다 수월하게 현대 사회의 허생을 찾는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 다. 평가

이 수업은 기본 교과목의 심화 보충시간인 만큼 국어시간에 다루어지는 <허생전>의 학습목표에 부합하여 보충하고 심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평가<sup>92)</sup>에 있어서도 그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작가의 실학사상에 대해 이해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실학이 지닌 가치를 말할 수 있는지를 평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2) 상대주의적 관점 - 「막북행정록」을 대상으로

21세기는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이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어 가

---

92) 재량시간은 기본적으로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영역은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위에 제시된 ‘평가’는 교사가 본고의 활동지들을 다른 학습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평가의 기준 정도만을 간략히 제시한 것이다.

는 추세이며, 인터넷을 사용하면 클린 한 번에 외국 사이트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고, 그만큼 우리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우리에게 열린 시각과 타인을 인정하는 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른바 상대주의적 관점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타국의 문화를 선입견없이 받아들이고 타문화의 특성을 인정하는 것도 상대주의적 관점이고, 작게는 역지사지의 태도로 타인의 개성을 인정하고 나를 아는 것도 상대주의적 관점일 수 있다. 즉 상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문화(또는 개인)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개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관점의 기본은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다. 상대방이 되어 나를 되돌아보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나’에 대해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고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연암이 취한 상대주의적 관점에 대해 살피고 그것으로 학습자에게 상대주의적 관점을 교수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려 한다.

연암은 우리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주체의 마음이라고 한 바 있다. <一夜九渡河記(일야구도하기)>에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물소리가 달라지는 경험을 예로 들면서 대상 인식의 핵심은 인식 주체의 관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주체의 관점에 따른 인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인식 주체마다 대상이 모두 달리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소의 꼬리에 붙은 파리를 보고 작다고 하지만,

산에 올라가 도시를 보면 인간은 파리보다 더 작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리는 작다고도 크다고도 할 수 없다. 보는 사람의 관점과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핵심은 彼此(피차), 大小(대소), 遠近(원근), 高低(고저), 貴賤(귀천), 是非(시비) 등 일체의 차별성을 관점의 차이에 따른 假象(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sup>93)</sup> 때문에 각각의 개별적 인식들은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일 따름이고, 그것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인식의 문제를 철저히 ‘관계’로 파악하려는 발상이다. 대상의 해명은 ‘주체와 객체’라는 일원적 소통 관계를 넘어서, 주체와 주체의 상이한 관점들 간의 관계가 핵심 문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론적 사유의 발상법적 원리, 즉 그 사유를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기 다른 관점이 보여주는 인식상의 ‘차이성(差異性)’이다. 사물이 기준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것은 대상의 자기 동일성을 어떤 형태로든 선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온전한 이해는 관점에 따라 차이 지는 이질적인 것들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사유에서 특정 관점의 자기 동일성을 고집하는 대신, 언제나 다른 관점의 타자성을 고려함을 의미한다.<sup>94)</sup>

기공이 나를 이끌고 같이 밖으로 나와 달 구경을 하였다. 달빛이 대낮같이 밝았다. 나는 있다가,

“만약 달 속에 또 한 세계가 있어 달로부터 땅덩이를 바라보는 자가 있다면 역시 우리처럼 난간에 기대고 서서 땅빛이 달에 가득차다  
고 ‘땅 놀이’를 할 터이겠지!”<sup>95)</sup>

93)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p148.

94) 뵡쌍 데콩브, 박성창 역, 『동일자와 타자』, 인간사랑, 1990, p51-54.

95) 박지원, 앞의 책 <태학관유록> 8월10일, p48-49.

연암의 말은 연암의 상대주의적 사고를 잘 반영하는 말이다. 지구의 모습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지구에서의 자기 이해만으로는 가능치 않고, 달에서, 우주에서 바라본 각기 ‘다른’ 지구의 이해와 비교, 대조해야 할 것이다. 거꾸로 생각해야 온전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음을 연암은 알고 있던 것이다. 연암은 이러한 사유방식으로, 기존의 전통적 관념을 해체하거나 현실 주체에 의한 새로운 인식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sup>96)</sup> 구체적인 텍스트를 바탕으로 연암의 상대주의적 사유방식을 고찰해 보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호질(虎叱)-범의 꾸중>은 호랑이가 보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인간중심적 세계를 깨고 생물체 전체의 공존공생의 관계를 역설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볼 때 인간은 동물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호질에서 인간은 호랑이의 눈으로 묘사됨으로써 동물과 같은 존재로 그려지며 호랑이는 인간의 덕목으로 승격된다. 호랑이가 보는 인간의 모습은 “돈을 형이라 부르고, 장수되기 위해서 제 아내를 죽이는 일도 있으며, 메뚜기에게 그 밥을 빼앗고 누에한테서 옷을 빼앗으며 벌을 막지르고 꿀을 굶어 먹고, 심한 자는 개미알을 젓갈로 담아서 그 조상께 제사하는”<sup>97)</sup>한마디로 매우 잔인한 동물이다. 그리고 지조있는 선비라 하더라도 “인자한 염통과 의기로운 쓸개에 충성스런 마음을 지니고 순결한 지조를 품었으며 악(樂)은 머리 위에 이고 있고, 예(禮)는 신처럼 꿇고 다니는”동물과 매한가지의 육체적 존재에 불과하다. 반면 인간만의 고유한 장점으로 이해되었던 ‘인(仁)과 의(義)’

96) 최인자, 「연암 <열하일기>에 나타난 글쓰기 발상법의 한 원리」, (『목원국어국문학』 4권, 1996) p260.

97) 박지원, 앞의 책 上 「관내정사」 <호질>, p375.

는 호랑이에게도 발견된다. 즉 “하루에 한번 사냥하면 까마귀, 솔개, 참개구리, 말개미 따위와 함께 그 대궁을 나눠 먹으니, 우리들의 어진 행실(仁)이야말로 이루 다 칠 수 없겠고, 애매하게 남에게 먹힌 사람들 잡아먹지 않고, 병자나 폐인을 잡아먹지 않고 상주를 잡아먹지 않으니 의로운 행실(義)까지도 이루 다 들 수 있겠느냐.”<sup>98)</sup>는 것이다. 이같은 덕목을 가진 호랑이 이지만 인간처럼 절대자로 군림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인간이 호랑이의 시각으로 비추어짐으로써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인간은 호랑이와 같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며, 그의 도덕의식 역시 위선으로 이해된다.

『열하일기』의 「산장잡기」에는 <일야구도하기>라는 한 편의 절묘한 산문이 수록되어 있다. 작가 자신이 중국 여행시 북경에서 만리장성을 넘어 열하로 가는 도중에 강물을 하룻밤 사이에 무려 아홉 번이나 건넌 이야기이다. 작품은 장성을 무너뜨릴 기세로 흐르는 강물이 실로 수만을 헤아리는 전차와 기마대, 포성과 싸움 북으로도 그 소리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무시무시하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이토록 굉장한 강물소리도 객관적이 아니요, 듣는 여하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한다. 즉, 자신의 가슴 속에 설정한 바에 따라 귀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다.

깊숙한 소나무가 통소 소리를 내는 듯하니 이는 청아한 취미로 들은 탓이요,  
산이 찢어지고 절벽이 무너지는 듯한 것은 분노하는 소리로 들은

---

98) 박지원, 앞의 책 p376.

것이요,  
 못 개구리가 수없이 우는 소리는 발칙스러운 것으로써 들은 것이요,  
 수없는 대가치가 서로 마주 어울려 내는 듯한 소리는 성난 소리로  
 써 들은 것이요,  
 벼락 소리, 청둥 소리인 듯한 것은 공포심으로 들은 것이요,  
 찻물이 부글부글 끓는 듯한 소리는 취미로 들은 것이요,  
 거문고가 궁성, 우성에 맞게 나는 듯한 소리는 슬픔으로 들은 것이  
 요,  
 종이 문창에 풍지 우는 듯한 소리는 의심스럽게 들은 뜻이다.  
 무엇이냐 올바르게 듣지 못하고 더구나 가슴속에 무슨 딴 생각을  
 먹고 있으면 그것이 귀에서 소리가 되는 것이다.<sup>99)</sup> ……(중략)……  
 소리와 빛같은 외계로부터 듣고 보는 데 따르는 것이라 이는 언제  
 나 귀와 눈에 달이 되어 이렇게도 사람으로 하여금 똑바로 보고 듣  
 는 힘을 잃도록 만든다. 더구나 사람이 한 세상 살아감에 그 험하고  
 위태함이야 강물보다 더한지라 보고 듣는 것이 즉시로 병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유는 <환희기(幻戲記)-요술구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  
 데 요술을 구경하고 난 뒤, 연암은 우리가 요술에 속은 것은 요술사  
 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속이  
 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즉 눈 자체가 이미 관점의 공정함을 잃고 있  
 기 때문에 눈으로 대상의 참을 인식함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는 소경은 눈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소경의 역설을 이야기한 서경덕의 일화를 상기함에서 발전적으로  
 사고되고 있다.

연암의 상대주의적 사유방식은 서술자의 관점도 타자의 관점으로  
 상대화함으로써 자아를 이해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간다. 이는 2장  
 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막북행정록」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

99) 박지원, 앞의 책 中권 p451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 떠드는 소리, 말 울음소리,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응당 처음 들어본 소리일 터요, 대문을 열고는 별 때같이 뜨락이 미어지도록 쓸어든 패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꼬?

소위 ‘까오리(조선인)’가 아무런 연통도 없이 예까지 오고 보니, 이곳 북방 사람들로서는 첫 대면이라 응당 안남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유구 사람인지 섬라(필리핀) 사람인지, 머리에 쓴 모자는 둥근 테가 널찍하고 꼭대기에는 검정 모자처럼 발라 처음 보는 눈에는 이상야릇도 했을 터이나, 이것은 또 무슨 것일꼬? 걸친 입성이란 소매는 넓디 넓어 펄렁펄렁하여 활개춤이라도 출 것 같으니 처음 보는 풀이라, 이것은 또 무슨 복장일꼬? 그 말하는 소리는 더러는 짹짹! 더러는 깍깍! 처음 듣는 소리일 터이니, 이것은 또 무슨 말일꼬? 모두다 이상 야릇도 하렀다.<sup>100)</sup>

여기서 연암은 자신들이 청인의 집에 밤늦게 도착했을 때의 초라한 모습을 중국 청년의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의 눈에 미친 조선 사람들은 모자는 ‘검은 우산’을 바친 듯하고, 소매는 너무 넓어 춤추는 듯하고, 모두 각기 옷을 입은 모양이 오랑캐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허구적 관점의 차용은 내가 ‘청인’을 오랑캐라고 혐오해 하지않았지만, 나 역시 타자의 관점에 의한다면 오랑캐로 보일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는 시도로 보인다.<sup>101)</sup>

『열하일기』를 통해 연암의 상대주의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국 상대주의적 관점의 핵심은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관점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사물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배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형식적 조작기 후기에 속하며 청년기 자아 중심적

---

100) 박지원, 앞의 책, p443-444.

101) 최인자, 앞의 책, p266.

사고를 가진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방황한다. 이들은 '상상의 청중(imaginary audience)'이라 하여 마치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위에 있는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라 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 즉 개인적 우화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을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며, 주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또 그들은 스스로 불멸의 존재, 전능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은 결코 다치거나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과격한 행동을 서슴치 않으며, 이것이 높은 비율의 부상과 사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청년기의 특징은 다양한 대인관계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sup>102)</sup>

상대주의적 관점의 교수-학습은 이 시기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고방식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르쳐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막북행정록」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보겠다.

#### (1) 상대주의적 관점의 교수 학습

「막북행정록」은 상대주의적 관점이란 무엇인지를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는 텍스트물이다. 본질이 비록 하나일지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달리 보인다. '나'라는 본질은 하나이지만,

---

102) 이옥형·이종숙·임선빈 공저, 『교육심리학』, 집문당, 2000, p 90.

그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 있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에 자아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

이 수업은 창의적 재량활동-범교과학습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범교과학습 시간은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등의 위해 할애된 시간이다. 상대주의적 태도의 형성은 요즘과 같은 다국적 시대, 지구촌화 시대에 꼭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의 하나이다. 세계시민으로서 자라날 청소년들이 상대주의적 태도를 익혀 민주시민 ·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창의적 재량활동-범교과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다음의 학습을 교수할 수 있다.

#### 가. 학습 목표 제시

- 주어진 글을 통해 상대주의적 관점 · 태도를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다.

- 현대 사회에서 상대주의적 관점 ·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다.

「막북행정록」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상대주의적 관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 지를 습득하기 위해 제시된 학습목표이다. 교사는 이 시간이 상대주의적 관점 · 태도를 익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시간임을 인식하고 교수에 임해야겠다.

## 나. 교수 학습 방안

상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막북행정록」의 상대주의적 관점은 현대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들 예컨대,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문제라든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분쟁, 작게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말다툼까지도 교수 학습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우선 교사는 수업의 도입부분에서 발문을 통해 학습자가 상대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선수학습 수준을 파악한 후 정도에 따라 대략적으로 상대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의 학습지를 제시한다.

<예시1>

### [모두 다 이상 야릇도 하여라.]

O학년 O반 이름: \_\_\_\_\_

※ 아래의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 떠드는 소리, 말 울음소리, 악자지껄하는 소리가 응당 처음 들어본 소리일 터요, 대문을 열고는 별때같이 뜨락이 미어지도록 쓸어든 패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고?

소위 ‘까오리(조선인)’가 아무런 연통도 없이 예까지 오고 보니, 이곳 북방 사람들로서는 첫 대면이라 응당 안남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섬라(필리핀) 사람인지, 머리에 쓴 모자는 둥근 테가 널찍하고 꼭대기에는 검정 모자처럼 발라 처음 보는 눈에는 이상야릇도 했을 터이니, 이것은 또 무슨 것일꼬? 걸친 입성이란 소매는 넓디넓어 펄렁펄렁하여 활개춤이라도 출 것 같으니 처음 보는 꼴이라, 이것은 또 무슨 복장일꼬? 그 말하는 소리는 더러는 짹짹! 더러는 짹짹! 처음 듣는 소리일 터이니, 이것은 또 무슨 말일꼬? 모두 다 이상 야릇도 하렀다.

비록 예절로 유명한 주공 같은 양반의 의관이라도 처음 보는 눈에는 안 놀라고는 못 배길 형편이겠거늘 더구나 우리나라 의관이란 불품이 덜씩 크고 그 위에다 고품으로 되었고 보니 놀라는 것도 무방한 일일 것이다.

게다가 사신 이하 복색은 저마다 달라서 역관 입성을 입은 패가 한 패, 비장 입성을 입은 패가 한 패, 군위 입성을 입은 패가 한 패가 있는가 하면 역졸이

나 마두들은 아무 없이 맨발에다가 가슴을 풀어젖히고 상관은 타고 마르고 흘바지는 찢어지고 미어져 궁둥이와 허벅다리를 감추지 못하고는 왁자지껄 떠들면서 대답한다는 소리는 엄청나게 길게 뿜으니 처음으로 이 꼴을 본다면 대체 이것이 무슨 예법일꼬? 이상야릇도 하렸다.

저들은 반드시 같은 나라에서 같이 온 줄은 모르고 응당 동서남북 갖은 오랑캐가 떼를 지어 저희들 집으로 몰려든 줄로만 알았을 터이니 어찌서 놀라 기겁을 하지 않겠는가? 그나마 백주 대낮이라도 이런 꼴을 당했다면 당황했을 터인데 더구나 오밤중이었으며, 그나마 제정신 가지고 있을 때 말이지 더구나 잠결이겠으며, 하필 열여덟살밖에 안 된 애송이일 것이라. 비록 팔십 난 늙은이라도 놀라 기겁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어휘풀이

뜨락-뜰'의 방언

안남사람-지난날, '베트남 인'을 중국에서 이르던 말.

입성-'옷'의 속된 말.

고풍-옛스러운 모습

1. 시점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의 첫 두 어절을 쓰고,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바뀌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2. 중국 청년이 이상하게 느낀 것들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자.
3. 중국 청년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 무엇이었는가?
4. 요즘 우리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생활습관도 다르다. 평소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발표해보자. 거꾸로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생각할 지 예상해보자.

<예시1>은 「막북행정록」의 텍스트를 통해 상대주의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활동이다. 1번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연암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즉, 잠결에 일어난 열 여덟살 중국청년의 입장에서 자신들 일행을 바라보고 있음을 눈치채게 된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곧 상대주의적 태도의 기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2번과 3번은 중국청년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그 옷차림이 연암과 그의 일행에게는 너무도 익숙하고 평범한 복장이었음을 아는 활동이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학습자의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보는 것이 바로 4번의 활동이다. 요즘은 주위에서 쉽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평소에 그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거꾸로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예상해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다.

교사는 <예시1>의 활동을 끝내면서 상대주의적 관점이 쉽게 말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거꾸로 생각해보기’임을 정리해주고, 다음의 활동지를 제시한다.

<예시2>

**[사설]마호메트 만평사태가 던지는 메시지**

0학년 0반 이름: \_\_\_\_\_

※아래의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덴마크 신문의 마호메트 풍자 만평이 부른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이슬람권의 반발은 수그러들기는커녕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나토 평화유지군과 시위대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해 시위자 4명이 사망했다. 시위는 아프리카·아시아로 번졌다. 이슬람 국가들이 덴마크 주재 대사를 소환했고, 이란은 덴마크와의 경제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은 서방세계와 이슬람 사이의 가치관 차이로 볼 수 있다. 서방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예수도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마호메트의 풍자에 대한 이슬람의 민감한 반응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타리크 라마단 성 앤서니대 교수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표현의 자유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아니다. 이런 혼선은 그야말로 신성 묘사가 금지된 이슬람 문명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인 것이다.

이슬람교는 마호메트의 초상을 조각하거나 그리는 것을 불경스러운 행위로 금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럴진대 시한폭탄 모양의 터번을 머리에 두른 마호메트의 만평을 접한 모슬렘이 느낀 분노의 감정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9·11 테러 후 모슬렘에 대한 외부 세계의 경계심은 더욱 깊어졌다. 모슬렘이 서구 사회에서 소수자로 겪는 소외와 좌절도 그

렇다. 지난해 11월 파리 폭동도 그 표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호메트의 풍자 만평은 모슬렘 전체가 테러범으로 몰리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태를 ‘문명의 충돌’로 보려는 시각은 거부해야 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분법적 세계관과 맞닿는 이런 시각에는 해결책이 없다. 유럽은 우선 이번 사태가 이슬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음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갈등의 해소에 나서야 한다.

경향신문 2006-02-08

\*어휘풀이

격화-격렬해짐. 격렬하게 됨.

몰이해-이해성이 전혀 없음. 이해하지 못함.

1. 앞의 사실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 (5-6줄)

---

---

---

---

---

---

2.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했을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자.

3.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멋진 말, 좋은 글\*

“만약 달 속에 또 한 세계가 있어 달로부터 땅덩이를 바라보는 자가 있다면 역시 우리처럼 난간에 기대고 서서 땅빛이 달에 가득차다고 ‘땅 놀이’를 할 터이겠지!”

이 글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태학관유록> 8월10일자에 쓰여져 있던 글입니다. 우리가 달빛을 감상하며 달놀이를 하듯, 달에 살고 있을 누군가는 ‘땅빛’을 감상하고 ‘땅놀이’를 할 거라는 연암의 말, 참 멋있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예시2>는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상대주의적 태도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는 활동이다. 학습자는 신문 사설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사건의 전모를 알고, 문제 발생의 원인이 다름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활동을 할 때에는 자유로운 발표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모든 의견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학습자가 스스로 상대주의적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조력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요구되며, 과정과 결론 역시 학습자 스스로 끌어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위의 활동들을 통해 학습자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예시2>의 활동을 하고 교사는 학습자들이 상대주의적 태도를 체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 역할놀이는 타인의 역할을 직접 연기해보는 교수학습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주의적 관점의 학습에는 매우 효과적인 교수활동이다. 교사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모둠별로 혹은 개인별로 역할을 나누어 상황극을 해보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역할을 바꾸어 다시 같은 상황을 연기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역할놀이를 통해 학습자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예시3>

**['지하철 자리양보하기' 역할놀이 예시]**

1. 교사는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할머니께서 내 앞에 서셨다.'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5분의 시간을 준다.
2. 이 때 학습자들이 역할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하되 여러 유형의 학생, 노인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양보를 하는 착한 학생, 양보는 하는데 궁시렁거리는 학생, 조는 척 하는 학생, 대드는 학생 등 다양한 성격의 역할이 나오도록 하고 노인 역할도 그렇게 한다.  
노인의 역할을 맡은 학습자는 미리 준비한 모래주머니를 팔과 다리에 차고, 시야를 흐리는 안경을 쓴다.
3. 모둠별로 나와 상황극을 한다. 대본은 미리 만들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과 역할의 성격만을 이용한 즉흥적인 상황극이 되도록 한다.
4. 다시 학생역할과 노인역할을 바꾸어 상황극을 한다.
5. 학생역할이었을 때와 노인역할이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다. 평가

이것은 상대주의적 관점을 학습자가 이해하고 왜 필요한지를 깨닫는 활동이다. 요약에서의 글쓰기 수준이나, 문제의 정답과 같은 것은 평가의 기준에 포함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주의적 관점을 잘 이해했는지, 필요성을 깨달았는지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겠다.

## 2. 표현능력 교육과 『열하일기』의 교수학습 방안

최근 문학 교육학계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것 중의 하나는 창작 교육, 즉 표현 능력 교육이다. 종래 문학 교육이 이해와 감상 위주였던 것에 대한 반성과 보완책으로 창작 교육이 대두된 것이다.<sup>103)</sup>

이 입장에서 문학 교육은 문학의 이해와 감상은 물론 문학을 만들어 내는 힘을 길러 주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문학능력은 단지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학 능력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문학 능력은 문학을 생산하고 소통하며 그 결과를 남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문학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문학 교육이라야 총체적인 문학 능력을 길러주는 문학 교육이 된다. 이는 창작이 문학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완성 단계라는 인식을 포함함은 물론 문학의 생태학적 자생력을 고려한 관점이다.<sup>104)</sup> 삶이 있고 문학이 따로 있어서 문학이 일방적으

---

103) 현대의 국어교육은 국어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국어생활의 기본영역을 정하고 문법, 작문, 문학, 독서 등의 심화 과목을 정하여 세분화하고 있다. 국어의 통합적인 성격을 생각할 때 이러한 국어과의 구분은 어찌면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본고는 현행 교육과정 안에서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104) 이미 정전(正典)으로 자리잡은 작품을 해설하고 이해하도록 촉구하는 절차와 과정은 문학을 가르치는 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까지 문학의 이해와 감상이

로 삶을 비옥하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문학과 삶의 상호 주체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창작은 문학능력의 구체화(具體化)이며, 문학 문화의 실천이다. 창작은 문학현상의 모든 국면과 연관되는데 주체의 대상 수용, 수용한 내용의 재구성, 구성 결과의 언어적 표현에 초점이 놓인다.<sup>105)</sup> 이는 문학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설정하는 이론들, 즉 구조론을 비롯한 생산이론, 효용론, 반영론 등과는 다른 차원의 이해 구조를 설정하게 한다. 창작주체를 언어활동의 주체로 상징하는 구도를 그릴 때 언어활동의 전국면이 동원된다. 창작과정에는 언어의 규범성, 언어의 문화성, 언어의 예술성 등이 동시에 작동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창작 교육은 문학 교육의 통합성을 구현하는 가장 적실한 방법이다.

문학 교육과 창작교육이 통합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창작을 통한 문학의 이해는 인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일이다.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삶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한다. 문학의 과정 자체가 끝없는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이라는 인식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의 조절과 성취라는 과정)을 일깨운다. 우리의 삶은 가능성과 한계가 서로 맞물려 있다. 문학과에서 본다면 기왕에 이룩한 가능성은 오히려 한계로 인식된다. 이미 개연성의 차원을 떠나 사실이 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한계의 인식이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

문학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로 인식해온 것은 문학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데 그 원인이 있다. 문학을 향유하는 주체와 문학작품을 분리하는 인식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105) 최인자,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출판, 2001, p27.

창작 과정에서이다. 창작의 과정은 무수히 많은 망설임과 반추를 동반한 질문과 모색의 과정이다.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데서부터,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섬광과 같은 이미지를 기억 속에 저장해 두고 성숙시키는 과정은 물론, 하나의 절실한 표현을 얻어내기까지 모색하는 수사적 탐색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창작의 과정에서는 많은 결단과 반성이 필요하다. 한 편의 소설을 쓸 경우 주인공의 행적을 성공과 실패로 갈라놓는 일, 주인공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하는 판단 등은 다부진 결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시 그러한 결단이 타당성을 지니는가 여부는 또 다시 반성적 사고로 작가를 몰아넣는다.

창작의 창조성은 허구개념의 도입으로 가능해진다. 모든 문학이 허구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지 모른다. 삶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라야 문학은 공감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허구성은 문학의 본질적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허구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허구의 세계에서 모색하는 일에 대해 현실적인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다. 작가가 신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허구의 세계 속에서는 삶의 존재조건인 현실태나 그 현실을 규제하는 이념태를 훨씬 벗어나 가능세계를 그 극대치까지 형상화해 낼 수 있다. 여기서 작가는 자유를 맛보고 완성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허구의 세계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현실과 무관한 허구란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작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이고, 작가는 현실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된다는 점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학이 현실만을 문제삼고 현실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모든 것을 바친다면, 그 현

실을 초월할 수 있는 전망을 마련하는 일은 어디서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학의 허구성이 문학의 한 속성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미래를 그리고, 전망을 모색하는 데는 허구의 개념이 개재된 상상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창작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실 세계와 허구 세계의 통합이 윤리와 미학이 통합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허구개념이 가능하게 해 주는 문학의 상대적 자율성이 문학의 윤리를 미학에 통합되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sup>106)</sup>

창작은 문학이 감수성과 연관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논리와 감수성의 분열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세계를 극복하고 자아 실연을 성취하는 일이 창작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 준다.

창작은 인간의 이념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를 이해하게 한다. 인간의 삶이 현실에 얽매어 있지만은 않다는 점, 인간은 현실의 여건과 관계없이 늘 유토피아 지향성은 인간의 현실을 처리하는 방법과 꿈을 꾸는 일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창작은 문학이 인간의 자기 완성을 도모하는 상상의 작업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창작은 인간이 자기를 이해하고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 부단히 추구하는 노력은 현실 체임과 함께 인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이는 상상차원에서 세계를 공유하는 체험이기도 하다.

문학 교육은 삶의 실천에서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더구나 창작은 자신의 외적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이 모색하는 세계를 구축하는 상상력과 감수성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통합성이 어느 영역보

---

106) 우한용, 「문학 교육의 윤리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 『사대논총』 제55집, 서울대 사대, 1997.

다도 응집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문학 교육은 창작 교육에서 완성의 단계에 이른다.

지금까지 문학 작품 이해(문학 교육)에 있어서의 창작의 위상에 대해 살피고 왜 문학 교육에서 표현 능력 교육에 주목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열하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 방식과 그것의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다. 지금부터 제시할 표현능력 교육의 교수학습은 재량 시간 중 교과재량활동-선택과목학습 시간을 이용한 교수학습 방안이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선택과목학습시간은 11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선택교과 ‘작문, 문법, 화법, 독서, 문학’중 하나를 선택하여 미리 맛보기 공부를 시간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간은 작문과 문학의 통합적인 수업이 가능하고 정규수업보다 자유로운 교수학습이 가능한 시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열하일기』라는 텍스트를 통해 다양한 갈래를 이해하고 나아가 창작 표현 능력 교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열하일기』의 특색은 기본적으로 기행문이면서도 다양한 갈래를 활용하여 작자가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여정은 일반적인 기행문처럼 서술하되, 인상이 깊었거나 특별히 따로 이야기하고 싶은 소재들은 논설문이나 우연, 소설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갈래의 폭넓은 수용은 당대 다른 연행록에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고, 지금껏 전해지는 여타의 글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연암만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다.

갈래의 특성을 정확히 포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에게 효

과적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글쓰기 방식이야말로 현대 문학 교육이 추구하는 표현능력의 향상에 부합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창의적인 사고능력 향상에 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열하일기』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행문 형식과 함께 에피소드의 형식, 논설문의 형식, 우언의 형식을 살펴보고, 그것을 이용한 표현 능력 교육의 교수학습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 1) 기행문의 형식-에피소드 형식의 활용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열하일기』는 근본적으로 기행문에 속하는 문학양식이다. 열하까지 여행을 하는 도중에 겪는 다양한 경험과 이를 통하여 제기되는 중국문물과 조선 문물의 비교, 그것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작가의 의견, 여행 도중 만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 숨쉬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 얽힌 사건·사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기본적으로 ‘기행문’이라는 틀 안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sup>107)</sup>

우리가 교수학습하려고 하는 기행문의 형식을 『열하일기』에 적용해보도록 하자. 기행문은 체험과 감상을 내용으로 하는 수필로써 호기심과 새로운 발견, 여정에 따른 순차적 구성, 일인칭 서술, 현재 시제 사용을 위주로 한다.

6월 27일 갑술일.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늦게야 개었다.

---

107) 『열하일기』의 기행문적 성격은 『열하일기』가 쓰여진 상황, 『열하일기』가 기본적으로 여정과 시간의 순서를 따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날이 희옴스름할 때 떠나 길에서 되사람 대여섯 명을 만났다. 모두 자그마한 당나귀를 탔는데 모자와 옷이 남루하고 얼굴 모습이 파리했다. 모두 봉성 군사들로서 애자하까지 다른 사람 대신 품팔이 수자리를 살다 오는 길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는 이런 걱정이 없으나 중국의 변방이란 실로 어수선하다……중략……

책문 안에는 청인 구경꾼들이 늘어섰는데, 입에 담뱃대를 물지 않은 자가 없고 번질번질 벗겨진 대머리에 부채질을 하는 자, 혹은 흑공단을 입은 자, 혹은 수화주를 입은 자, 혹은 생포, 생저나 삼승배, 산동주 등 각양각색의 옷을 차려입은 자들이 수놓은 주머니 서너 개씩을 너저분하게 주렁주렁 차고 있었다. 차는 손칼은 모두 상아집에 꽂았고 담배 썩지는 호로병 모양 같은데 갖가지 꽃 모양, 새 모양 혹은 옛날 사람들의 글귀들을 수놓았다.<sup>108)</sup>

위에 제시한 인용문은 6월 27일자 <압록강을 건너며>의 한 부분이다. 날이 희옴스름할 때 떠나 길에서부터 책문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며, 일인칭 서술과 현재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책문 안 청인 구경꾼들에 대한 인상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어 기행문으로서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행문은 표현면에서 사실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 여행의 진행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면서 여행지에서 본 대상의 인상이나 특징을 자세하고 정밀하게 묘사한다는 것이다.

『열하일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정밀한 세부묘사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드러내려는 경향이다. 『열하일기』에서 연암은 중국의 이색적인 풍토와 각종 문물, 그리고 여행 중에 마주친 온갖 부류의 인간들을 가능한 한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노력을 뚜렷이 보여 준다. 대부분의 당시 연행록들이 여행 당시의 기후라든가 경과한 지역의 자

---

108) 박지원, 앞의 책, 「도강록(압록강을 건너며)」, p47.

연 풍경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기술에 그치고 있음에 비해 『열하일기』는 곳곳에서 연암이 연로의 이국적인 자연 풍경과 기상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열하일기』에 나타나 있는 풍경과 일기의 묘사는 이역만리의 낯선 땅을 여행하는 실감을 자아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거니와 때로는 여행 도상에서 겪게 되는 사건들의 배경으로서도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다.

7월 13일 기축일. 바람이 세계 불었다.

고가자에서 새벽에 출발하여 ‘주류하’라고도 하는 거류하까지 8리……중략……이날 모두 82리를 와서 백기보에서 묵었다.

이 날 새벽에 일어나 아침 세수를 마치니 몹시 고단하다. 달이 지세면 온 하늘에 총총한 별들이 모두 깜빡거리고 마을 닭이 서로 회를 친다. 몇 리를 못 가서 안개가 뿌얹게 끼어 큰 별이 삼시에 수은 바다를 이루었다. 한 때의 의주 장사꾼들이 서로 지껄이며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몽롱하여 마치 꿈속에 기이한 글을 읽는 것처럼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 영검스러운 경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조금 뒤에 하늘빛이 환해지며 길에 늘어선 수많은 버드나무에서 매미가 한꺼번에 울기 시작한다. 동쪽 하늘을 돌아보니 불빛 구름이 용솟음 치며 붉은 불덩이가 옥수수밭 저 편에 솟을 듯 말 듯 천천히 온 요동벌에 짝 차게 떠오른다. 땅 위에 오가는 수레며 말이며, 나무며, 집이며, 털끝같이 보이는 것이 불덩이 속에 잠기기 시작했다.<sup>109)</sup>

여기에서 연암은 북중국의 여름날 농촌 풍경을 대단히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해 뜨기 직전의 하늘에는 달마저 지고 별빛이 더욱 반짝거리고 이에 호응하듯 지상의 마을에서 연이어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새벽안개로 인해 수은 바다처럼 보이는 드넓은 요동 벌판과 꿈속에서 奇書(기서)를 읽는 듯 안개 속을 통과하는 일행들의 환상적인 모습 그리고 날이 밝자 견혀 가는 안개 바다 너머로 한낮의 폭염을 예고하는 듯 연도의 수많은 버드나무로부터 일제히 들려오

---

109) 박지원, 앞의 책, 「성경잡지」, p194.

는 따가운 매미소리와,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위로 서서히 이동하며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등 이러한 선명한 이미지들을 절묘하게 구사함으로써 연암은 중국의 광활한 대지와 무더운 여름 날씨 그리고 짙은 안개와 폭염 속을 강행군하는 조선 사행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열하일기』는 여느 여행록들처럼 여행 도상의 경험을 평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묘사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열하일기』의 특색은 무엇보다도 장면 중심적인 묘사에 치중하는 점에 나타나 있다. 예컨대 조선 사행이 갑작스레 판첸라마를 알현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고 낭패하여 소동을 벌이는 장면이나, 마두배가 중국인들과 싸우는 장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적인 장면을 중심으로 사건을 즐겨 묘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목들에서는 대화를 적절히 구사하여 장면 묘사를 더욱 생생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들과의 대화는 白話體(백화체)<sup>110)</sup>로 표현함으로써 그 실감을 더하게 하고 있다. 이 점은 『열하일기』가 단순히 기행문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 에피소드 형식을 활용하여 그 극적 재미를 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열하일기』는 여정에 따른 순차적 구성, 현재 시제의 사용, 인상깊은 일의 사실적인 묘사등 현대 기행문이 요구하는 기본 요건을 모두 충실히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하일기』는 에피소드 형식을 차용하여 여행 도중 겪는 사건을 재미있게 그려내어 읽는 재미까지 더하고 있다. 기행문과 에피소드 형식의 결합. 이것은 갈래의 틀에 얽매인 학습자들의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깨트리고 재미있는 기행문을 쓰도록 하는데 중요한 교수

---

110) 명대에 생긴 구어체 기록법.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기행문 형식과 에피소드 형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성경잡지」 7월 13일자 텍스트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기행문쓰기’ 교수 학습 방안을 구성해보도록 하겠다.

#### (1) 에피소드 형식 기행문쓰기의 교수 학습 방안

「성경잡지」 7월 13일자 텍스트는 기행문으로서의 요건과 에피소드가 잘 어우러져 있는 부분이다. 연암은 참외값을 바가지 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사건을 대화와 행동묘사를 통해 한 편의 단편 소설처럼 형상화하고 있다. 기행문의 일부라는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읽었다면 단순히 ‘참외값 사기사건’을 소재로 다룬 짧은 단편이나 수필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기행문의 갈래적 특성을 에피소드 형식을 통해 보완한 것으로 『열하일기』라는 거대한 장편 기행문을 쉽사리 읽을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sup>111)</sup> 이 부분은 쉽고 재미가 있어서, 에피소드 형식을 차용했을 시 기행문이 입체적이고 재미있어진다는 사실을 학습자들에게 교수하기에 좋은 텍스트 아닐 수 없다.

교육 과정중에는 작문 교과 ‘작문의 실제’영역의 ‘정보전달을 위한 글쓰기’와 연관시켜, 재량시간의 선택 과목 학습 중 작문 교과 수업에서 교수활동이 가능하다.

#### 가. 학습목표의 제시

---

111) 기행문은 기본적으로 순차적 구성을 취하기 때문에 긴 여행을 다룬 기행문은 반복적인 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다소 지루함을 줄 수도 있다.

- 기행문의 형식을 이해하고 주어진 텍스트의 기행문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기행문과 에피소드 형식이 합쳐졌을 때의 장점을 이해한다.

- 에피소드 형식을 활용하여 기행문을 쓸 수 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에피소드 형식을 이용하여 한 편의 기행문을 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습자는 기행문의 형식을 이해해야 하고, 주어진 텍스트에서 기행문의 요소를 찾음으로써 그것을 확인한다. 또한 텍스트를 통해 기행문과 에피소드 형식이 합쳐졌을 때의 장점을 이해하여, 그러한 글을 직접 쓰는 방향으로 학습목표를 규정하였다.

나. 에피소드 형식을 차용한 기행문 쓰기의 교수 학습방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는 고등학교 10학년 학생들은 이미 기행문이라는 형식의 글을 많은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행문의 이론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두 가지 양식의 기행문을 주고 직접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이 학습의 효과가 높을 것이다. 직접 체험하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만큼 효과적인 학습은 없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일기형식처럼 쓰여진 기행문에 매우 익숙해져 있으며, 기행문은 당연히 그렇게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기행문도 수필처럼 자유로운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기행문이라는 갈래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갖는 것, 그래서 보다 개성적인 기행문을 쓰게 하는 것이 바로 다음의 활동지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예시1>

[기행문의 요소는?]

8월 6일, 친척모임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갔다. 이모님께서 언양에 있는 자수정 동굴에 가 보았더니 너무 좋더라 하시며 가자고 하셨다.

우리 가족과 외가 친척들은 오전 10시쯤 되어서 언양 자수정 동굴로 출발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나무 그늘이나 다리 밑에서 피서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나도 빨리 자수정 동굴에 가서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양에 도착하니 11시 30분이 조금 지나 있었다.

“자수정 동굴나라”라고 쓰인 표지가 보이고 내려서 본 그곳은 동굴관람은 물론이고 동굴 속을 배를 타고 관람할 수 있도록 보트장도 있었고 수영장, 물썰매장, 놀이동산 등 많은 시설들이 있었다. 맨 먼저 자수정 전시관을 관람했다. 자수정 전시관은 자수정을 가공하여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를 만들고 그것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이었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 그 다음에는 동굴을 관람했다.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보다 더 시원해서 더운 여름이 이곳에는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너무 동굴시원해서 동굴 속은 몇 도나 되는지 물었더니 10-14도 정도로 항상 유지된다고 하였다. 동굴 관람을 마치고 나와 밥을 먹고 외가친척들과 헤어져집으로 왔다. 우리나라 수정이 세계에서 알아줄 만큼 좋은 것이라는 것과 그런 자수정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진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주신옥

학생의 글)

※ 위의 글은 진주고등학교의 신옥이가 쓴 기행문이다. 신옥이가 쓴 윗글의 구상메모의 열개를 짜보자.

.언제, 어디로, 누구와 같이 갔는가?

언제 \_\_\_\_\_ 제 \_\_\_\_\_ -

-  
어디 \_\_\_\_\_ 디 \_\_\_\_\_ 로 \_\_\_\_\_ -

-  
누구 \_\_\_\_\_ 구 \_\_\_\_\_ 와 \_\_\_\_\_ -

-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_\_\_\_\_  
\_\_\_\_\_

·거쳐간 곳은 어디어디인가?

---

-

·느끼거나 생각한 점, 배운 점은 무엇인가?

---



---

-

·가장 인상깊었던 일과 재미있고 즐거웠던 일은 무엇인가.

---

-

<예시1>의 활동지는 기행문의 요소를 파악해보기 위해 마련한 활동지이다. 구상메모라는 것은 글의 열개를 짜는 걸을 말하는데, 기행문의 구상메모의 경우 위 문제지에 제시한 다섯 가지 요소를 옆두에 두고 구상메모를 짜게 된다.<sup>112)</sup> 때문에 위의 활동은 또래의 고등학생이 쓴 일반적인 기행문을 보고 그 학생이 어떤 구상메모를 썼을지를 추리함으로써 기행문의 요소를 깨달을 수 있다.

<예시2>

**[기행문은 꼭 일기처럼 써야한다는 편견을 버려!]**

7월 13일 기축일. 바람이 세계 불었다.

고가자에서 새벽에 출발하여 ‘주류하’라고도 하는 거류하까지 8리(……중략……)이날 모두 82리를 와서 백기보에서 묵었다.

날이 저물었다. 먼 곳에 자욱히 번지는 연기를 바라보고 말을 채찍질하여 역 마을을 향해 달리는데, 참외밭에서 한 늙은이가 나와 말 앞에 엎드려 멀리 초가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늙은 것이 혼자 길 가에서 참외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데, 아까 당신네

112) 고등학교 『작문』, 법문사, 2002

조선 사람 40~50명이 이곳을 지나다가 잠시 쉬었습죠. 처음엔 참외를 하나들 사먹더니만, 떠날 때 갑자기 모두 참외를 한 개씩 쥐고는 소리를 지르며 냅다 달아나 버렸습디다요.”

“그럼 왜 그 우두머리 어른에게 하소연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도 그리했습니다만, 그 어른이 귀 먹고 병어리인 척하시디이다. 이 늙은이 혼자 어찌 그 40~50명이나 되는 힘센 장정들을 당하겠습니까. 방금도 쫓아가니까 한 사람이 길을 막으며 참외로 저의 얼굴을 후려갈기디이다. 눈앞에는 별이 반짝이고 아직도 참외물이 마르지 않았는걸요.”

늙은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고는 청심환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없다고 말을 하니 이번에는 창대의 허리를 붙들고 참외를 팔아달라고 떼를 쓰며 참외 다섯 개를 앞에 갖다 놓는다.

나는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한 개를 깎아 먹어보니, 향기와 단맛이 보통이 아니었다. 장복이에게 남은 네 개를 마저 사가지고 가서 밤에 먹자 했다. 창대와 장복이에게 각기 두 개씩을 또 먹였다. 이래서 모두 아홉 개인데, 늙은이가 80문을 달라고 떼를 썼다. 장복이 50문을 내니 그는 성을 내며 받지 않았다. 창대와 둘이 주머니를 탈탈 털어 세어보니 모두 71문이었다. 나는 먼저 말에 오르고 장복을 시켜 주게 하였더니, 성을 내가 장복이 주머니를 털어보이자 그 제야 가만히 있다. 그는 맨처음 눈물을 흘려 가련한 빛을 보인 다음 참외 아홉 개를 100문에 가까운 비싼 값에 팔려하니 매우 통탄한 일이었다. 그보다도 우리 나라 하정배들이 길에서 못되게 구는 것이 더욱 한스럽기만 했다.

어두워져서야 마을에 도착했다. 참외를 내어 청여, 계함등에게 주어 저녁 식사 후 입가심으로 먹게 하고 길에서 하인들이 참외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하니 마부들이 말했다.

“도무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외판 집 참외 파는 늙은이가 본디 간교하기 짝이 없어, 서방님이 홀로 떨어져 오시는 걸 보고 거짓말로 꾸며댄 것이지요. 짐짓 가엾은 꼴상을 지어서 청심환을 얻어내려던 속셈이 분명합니다요.”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속은 것을 깨달았다. 그 참외 산 일을 생각하니 분하기 짝이 없었다. 더구나 그 응급적인 눈물은 어디서 그렇게 솟아났는지 원. 시종이 말했다.

“그 늙은 바로 한족일 겁니다. 만주족은 실로 그런 요악한 짓은 하지 않거든요.” 라고 했다.

\*어휘풀이

영검스러운-사람의 기원에 대한 신불의 반응이 영묘함, 또는 기원에 대해서 나타나는 효험.

요악한-요사스럽고 간악함.

\*창대와 장복이

창대는 연암의 말물이꾼이고, 장복이는 연암의 하인이예요. 영악한 듯하면서 어눌하고, 모시고 있는 상전 연암을 많이 좋아하는 녀석들이지요. 술은 입에도 못 대면서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주인에게 사드리고, 다리가 부러져도 연암을 따라 가려 애를 쓰고, 사정이 생겨 북경에 남겨두고 열하로 떠날때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등 연암 곁의 이 녀석들덕에 연암의 여행에는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장복이와 창대가 연암을 그렇게 따르고 좋아했던 건 ‘참외값 사기 사건’에서 엿볼 수 있는 연암의 다정함과 인간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열하일기』는

1780년 6월, 압록강 국경을 건너 열하에 도착한 뒤 그 해 8월, 다시 연경에 돌아오기까지, 여행 기록은 물론 청조 문인 명사들과의 친교나 청나라의 문물제도 등에 대한 느낌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선생님! ‘열하’가 어디예요?

열하(熱河)는 현재 중국 허베이성 청더(河北省 承德)예요. 바로 옆 사진의 저곳! 멋지죠? 당시 황제의 피서지였다고 하네요. 나중에 시간나면, 『열하일기』 들고 한 번 가보아요~



※위의 글은 연암 박지원이 팔촌형님이던 정사(正使) 박명원(1725~1790)을 수행하는 자격으로 청나라를 여행하고 쓴 기행문 『열하일기』의 일부이다. 다음 활동을 해보자.

\* 일반적인 기행문의 특징

1. 여정에 따른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는가?
2. 화자는 누구인가? (1인칭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3. 현재형시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4. 여행지에서 본 대상의 인상이나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가?

1. 다음은 일반적인 기행문의 특징이다. 윗글이 일반적인 기행문의 특징과 부합하는지 O, X로 표시해보자.

2. 아까 활동했던 신옥이가 쓴 기행문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점이 다른가? 연암이 쓴 이 기행문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행문은 어떤 점이 다른가?

· 신옥이의 글은 일기같은데, 연암의 글은 단편 소설같다.

· 신옥이의 글은

3. 신옥이의 기행문과 연암의 기행문중 어느 것이 더 재미있었는지 생각해보자.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발표해보자.

4. 우리는 1학기 때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을 배웠다. 이 소설은 작품의 서두에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를 차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보았다. 소설과 시, 기행문과 에피소드 형식등 이렇게 서로 다른 갈래를 섞어서 썼을 때의 효과를 생각해보자.

<예시2>는 「성경잡지」 7월 13일자 텍스트를 통해 에피소드 형식의 장점을 깨닫는 활동이다. 위의 활동은 제시문이 기본적으로 기행문의 형식에 부합하지만 일반적인 기행문과는 다름을 깨닫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활동한 신옥이의 글과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에피소드 형식의 활용이 기행문을 더욱 재미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위의 활동을 할 때는 앞서 제시된 활동과 연계하여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에피소드 형식의 차용이 글의 감동과 재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가 느끼도록 교사는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위의 활동이 끝나면 여행의 경험을 떠올려, 한 편의 기행문을 써보도록 한다. 수학여행이나 소풍과 같은 현장체험학습 직후 써보면 더욱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겠다. 이 활동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기행문이라는 기본 요소는 지키되 틀에 너무 얽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익힌 것처럼 무조건 시간의 순서대로 그 날의 일정을 기록하기 보다는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그것을 부각시켜서 쓰는 것이 독자에게 더 흥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예시3>

[기행문, 나도 한번 써볼래요.]

\*구상메모짜기

언제, 어디로, 누구와?	언제	
	어디 로	
	누구 와	
여행의 목적		
거쳐간 곳		
느끼거나 배운 점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 에피소드를 활용한 기행문을 쓰려면 여정이 아니라 사건중심의 기행문이 되어야 해요.

여행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친구에게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기분으로 써보자구요.

\* 소설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죠? 내가 쓴 구상메모에서 인물에 해당하는 것, 사건에 해당하는 것, 배경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해봅시다. 각기 대응시켜보면 글쓰기가 더욱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예시3>은 기행문을 쓰기위한 구상메모를 작성하는 활동지이다. 위의 구상메모의 요소들을 각기 소설에 대응시켜보면 에피소드 형식을 활용한 기행문쓰기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여행지’라는 배경에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일종의 ‘사건’ 된다. 이렇게 학습자에게 예를 들어주고 구상메모를 작성하게 한다. 그리고 그 구상메모를 바탕으로 짧은 기행문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차시에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과제로, 1차시로 수업을 할 경우에는 1차시에는 위의 활동을 2차시에는 기행문을 쓰는 활동을 진행한다.

#### 다. 평가

이 수업은 기행문의 형식을 이해하고, 기행문에 에피소드 형식을 차용했을 때의 장점을 『열하일기』를 통해 체험한 후, 에피소드 형식을 활용한 기행문쓰기를 하는 것이다. 평가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에피소드 형식을 기행문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에피소드 형식을 기행문에 활용했을 때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와 기행문의 요소를 이해하고 있는가가 평가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 2) 논설문의 형식-〈벽돌론〉을 대상으로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로 어떤 사실에 관하여 글쓴이가 옳다고 믿는 것이나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치에 맞게 주장하여 자신의 관점을 독자에게 확신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그래서 주장하는 글 또는 설득하는 글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논설문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글 쓰기이기 때문에 논설문을 잘 쓰려면 우선 당면한 문제를 잘 파악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목표를 잘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sup>113)</sup>

연암은 여행을 하는 동안 중국의 발달된 문물을 접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하며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함을 작품의 곳곳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의 그러한 글들은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까지 논리정연하게 서술되어 있어 논설문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도강록>6월 28일에는 연암이 중국의 집을 관찰하고 벽돌과 기와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처음에는 벽돌 우리나라의 기와는 법과 비교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기와 이는 법은 이와는 아주 다르다. 지분에는 진흙을 잔뜩 올리고 위가 무겁고, 바람벽은 벽돌로 쌓아 회로 때우지 않고 보니 네 기둥은 의지할 데가 없어 아래가 허하며, (중략) 그렇고 보니 무릇 집을 짓는 데는 벽돌을 쓰는 것이 얼마나 득이 되는지 모른다.

---

113) 논설문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와는 달리 논리적이고 타당하며 합리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견해를 주장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정서적인 글에서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과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한다. 논설문에서 필요로 하는 지적인 능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창의성

창의성이란 사고에서 얻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창의적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것과는 다른, 또는 현재에서 새롭게 어떤 대안을 발견 하는 정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새롭고 기발하며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문제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2) 논리성

논설문은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때 타당한 근거를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창의성만을 강조하여 참신성이나 독창성만을 강조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일관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가능한 논리적인 대안이어야 한다.

3)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자신의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위해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고 판단하는 사고이다. 쉽게 떠오르는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추해보는 사고를 말한다.

4) 유창성

유창성은 당면한 문제 상황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오른 대안에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문제 상황을 좀 더 풍부한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비단 담벽을 쌓는 데 쓸 뿐만 아니라 방 안이나 방 밖이나 벽돌을 깔지 않은 데가 없다. 넓은 마당을 통으로 벽돌을 쌓아 '정(井)'자로 또렷또렷한 금이 바둑판같이 보이고 집채는 담벽 속에 박혀 비바람을 겪지 않으니, 이로써 화재 염려가 없고 도적이 뚫을 걱정이 없고 더구나 새, 쥐, 뱀, 고양이의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한번 복판문을 닫으면 온 집은 절로 성새같이 되어 집안에 든 물건은 께짝 속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이 된다.<sup>114)</sup>

우리나라의 집짓는 방법은 비합리적이어서 온갖 폐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집을 짓는 데는 벽돌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고 득이 된다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음 글을 보자. 다음 글은 온돌에 관한 이야기인데, 중국식 온돌을 관찰하고 어떤 점이 좋은지를 이야기한 후 우리나라 온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온돌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가난하고 글읽기 좋아하는 많은 선비들이 삼동의 고생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는 동안 같이 간 동료는 중국은 구들 만드는 법이 괴상스러워서 우리나라 온돌만 못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연암은 동료가 하는 말에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그것이 매우 논리적이다.

“‘강’이 우리의 방보다 못하다는 것은 옳네. 다만 구들 놓는 법만 본떠서 이것을 방에다 적용하고 장판을 깔들 누가 말릴 것인가? 대체 우리나라 구들 놓는 법은 여섯 가지 탈이 있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네. 내가 이야기해 줄 터이니 자네는 떠들지 말고 잠자코 듣게나.

흙을 이겨서 쌓아 구들 겹을 내고 돌을 걸쳐 엮어 온돌을 만드니 돌이란 크고 작고 두텁고 얇어서 본디가 고르지 못한 것이라 반드시 조약돌을 겹쳐 네 모서리를 피어 놓지 않도록 하고보니 돌은 달고 흙은 말라 언제나 짜그라져 통겨나니 이것이 첫째 탈이요, 구들장 거죽이 움푹움푹 들어간 데를 흙으로 두텁게 메우고 새벽질을 관관하게

114) 박지원, 앞의 책, <도강록>, p67-68.

고르고 보니 불을 때고 골고루 덥지 못한 것이 둘째 탈이요, 고래가 높고도 넓어 불길이 미처 닿질 않으니 이것이 셋째 탈이요, 바람벽이 얇고도 성글어 언제나 틈서리로(……중략 ……)구들을 말리는 데는 아무래도 나무 백 단은 들 것이요, 열흘 안에는 거집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것이 여섯째 탈이거든. 자, 어떤가? 자네와 함께 벽돌 수십 장을 깔았고 웃고 이야기 하는 동안에 벌써 온돌 몇 칸을 놓고 그 위에 누운 셈이로구먼!”<sup>115)</sup>

구들 놓는 법을 본떠 방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있다. 대화의 형식으로 실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논설문이 필요로 하는 지적 요건 즉 창의성, 논리성, 비판적 사고, 유창성을 모두 갖춘 논설문적 글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연암은 논설문 형식을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논설문의 효용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열하일기』에서 발견되는 논설문 형식의 글을 통해 표현 능력 교육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 (1) <벽돌론>을 이용한 논설문 형식의 교수-학습

<벽돌론>은 연암이 중국의 벽돌을 본받아 우리나라의 집짓는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치밀하고 논리적이어서 짧지만 논설문 형식의 효용성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텍스트이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교과재량활동-선택과목학습 작문 교과 시간 중 ‘작문의 실제’영역의 ‘설득을 위한 글쓰기’단원과 관련하여 수업할 수 있다.

---

115) 박지원, 앞의 책, <도강록>, p102.

가. 학습 목표 제시

· 논설문의 형식을 이해하고 주어진 텍스트의 논설문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주어진 텍스트를 모방하여 논설문 형식의 글을 쓸 수 있다.

<벽돌론>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논설문 형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부목표를 잡았다. 짧은 글 안에서 논설문적 요소를 찾아봄으로써 논설문의 성격을 이해하고, 나아가 모방하기의 방법을 통해 짧은 논설문을 써보는 것이 이 수업의 세부 목표가 되겠다.

나. 교수 학습 방안

근래 논술에 대한 관심은 논설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논설문을 접하고 쓰는 연습을 하고 있다.

글 쓰는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방식 중의 하나는 바로 ‘습작’이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다. 습작을 통해 작가의 글쓰기 방식을 익히고, 그것을 재창조하면서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습작의 효과이다.<sup>116)</sup>

교사는 활동지를 제시하기 전 논설문 쓰기의 유의사항을<sup>117)</sup> 제시하여 오늘 학습자들이 쓰게 될 글이 논설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116) 김대행, 『문학 교사용지도서』, 교학사, 2002.

117) 첫째, 주장할 관점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읽는 이를 제대로 설득할 수 없다.

둘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나 이유를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적절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읽는 이가 쉽게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주장하기 위한 내용의 제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내세우고 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고, 근거나 이유를 먼저 제시한 후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장할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여 제시할 것 인지는 글의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인지시켜 학습목표를 분명히 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킨다.

<예시1>

**[우리나라 집짓기의 문제점과 벽돌의 효용성 “벽돌을 사용합시다!!”]**

우리나라의 집을 짓는 법은 중국의 것과는 아주 다르다. 지붕에는 진흙을 잔뜩 올리고 위가 무겁고, 바람벽은 벽돌로 쌓아 회로 때우지 않고 보니 네 기둥은 의지할 데가 없어 아래가 허하며, 기왓장이 너무 크고 보니 지붕의 비스듬한 각도에 맞지 않아 절로 빈틈이 생겨 부득불(어쩔 수 없이) 진흙으로 메우게 되며, 진흙이 내리눌러 무겁고 보니 들보가 휠 염려가 없지 않다. 진흙이 마르면 기와 밑창은 절로 들떠 비늘처럼 이어 댄 데가 벗어지면서 틈이 생겨 바람이 스며들고 비가 새고 새가 뚫고 쥐가 구멍을 내고 뱀이 붙고 고양이가 뒤집는 등 온갖 폐단이 생긴다.

그렇고 보니 무릇 집을 짓는 데는 벽돌을 쓰는 것이 얼마나 득이 되는지 모른다. 비단 담벽을 쌓는 데 쓸 뿐만 아니라 방 안이나 방 밖이나 벽돌을 깔지 않은 데가 없다. 넓은 마당을 통으로 벽돌을 쌓아 ‘정(井)’자로 또렷또렷한 금이 바둑판같이 보이고 집채는 담벽 속에 박혀 비바람을 겪지 않으니, 이로써 화재 염려가 없고 도적이 뚫을 걱정이 없고 더구나 새, 쥐, 뱀, 고양이의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한번 복판문을 닫으면 온 집은 절로 요새같이 되어 집안에 든 물건은 께속 속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이 된다.

※위의 글을 읽고 다음의 활동을 해보자.

1. 내용을 정리해 보자.

전반부	
후반부	

2. 빈칸을 채워보자.

주장	집을 짓는 데는 ( )을 쓰는 것이 득이 된다.	
근거	1. 지붕에는 진흙을 올려 위가 너무 ( ).	우리나라 집짓는 법의 ( )
	2. 진흙이 마르면 기와 밑창이 들떠 ( ) 될 수 있다.	
	3. 틈이 생기면 ( )이 스며 들고 ( )가 샌다.	
	4. 쥐가 구멍을 내고 뱀이 붙고 고양이가 뒤집는다.	
	5. ( )을 겪지 않는다	벽돌로 집을 지었을 때의
	6. 새, 쥐, 뱀, 고양이의 피해가 없다.	

7. 도둑맞을 염려도 없다.	좋은 점
-----------------	------

3. 당시의 집짓는 법을 고려하여, 작가가 제시한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해 보자.
4. 윗글의 형식을 모방하여 개선해야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물을 가지고 <\*\*론>을 써보자.  
(예시) <컴퓨터론>

제목	컴퓨터론
주장	학생들 모두의 책상에 개인컴퓨터가 있어야 한다.
근거	수업시간에 쫓기하느라 선생님의 수업을 놓칠 때가 있다.
	쫓기하느라 손도 아프다.
	개인컴퓨터가 있으면 쫓기도 빠르고, 수업도 모두 들을 수 있다.
구조	전반부-노트북이 없는 우리 교실을 살펴본
	후반부-노트북 사용 시 좋은 점

우리 교실의 수업 풍경은 민족사관학교와는 많이 다르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 모두들 쫓기를 하느라 바쁘다. 쫓기를 하느라고 선생님의 수업을 놓치기도 하며, 쫓기 내용이 많을 때는 손이 아프고, 손가락에 글은살이 박히는 등 온갖 폐단이 생긴다.

그렇고 보니 민족사관학교처럼 학생들 각자의 개인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득이 되는지 보른다. 비단 컴퓨터를 쫓기하는 대신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수업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라고 한다. 키보드를 치니까 쫓기도 빠르고, 선생님의 수업을 놓칠 일도 없고, 손가락에 글은살이 박힐 일도 없다. 한번 녹음하면 다시 들을 수 있으니 선생님의 수업을 내가 보관하는 거나 다름없게 된다.

제목	
주장	
근거	
구조	

<hr/> <hr/> <hr/> <hr/> <hr/> <hr/> <hr/> <hr/>
---

이 활동은 습작을 통해 간단한 논설문 쓰기 방식을 익히는 활동이다.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함을 깨닫고, 주위 사물을 관찰하여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벽돌론>처럼 써보는 것이다. 완전한 창작이 아니라서 학습자는 ‘논설문’이라는 형식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쉽게 논설문을 접할 수 있으며, 일종의 패러디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논설문 쓰기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벽돌론>을 모방하여 논설문을 쓰기 위해 학습자는 <벽돌론>의 구조를 분석해본다. <벽돌론>은 전반부에서는 우리나라 집짓는 법의 문제점을, 후반부에서는 벽돌의 사용했을 때의 장점을 다루어 벽돌을 사용해야함을 은연중에 주장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 해야 한다.”식의 논설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이 논설문이라는 사실에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때문에 교사는 논설문이라는 것이 어떤 사실에 관하여 글쓴이가 옳다고 믿는 것이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치에 맞게 주장하여 자신의 관점을 독자에게 확신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임을 다시 한 번 이해시키도록 한다. 또한 위의 인용문이 『열하일기』라는 기행문의 일부이며, 실학사상가인 작가가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 쓴 글임을 알리는 것도 이 글이 논설문임을 이해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구조를 파악한 후에는 제시문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본다. 이 활동은 빈칸채우기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제시문이 논설문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는 작가가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을 학습자 스스로 판단해 보는데, 이 활동을 통해 논설문에서 제시되는 근거는 타당성을 지녀야함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활동은 인용문을 모방하여 론(論)형식의 글을 직접 써보는 활동이다. 인용문을 모방하여 쓰는 것이므로, 논설문의 형식을 쉽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 평가

평가는 주장하는 이야기가 분명한가, 근거는 타당한가를 중심으로 살피되, <벽돌론>을 적절히 모방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수업은 모방하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다양한 사물을 창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할 수 있다. 교사는 이 수업이 재량시간임을 기억하고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를 존중하여 학습자가 글쓰기에 자신감을 하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야겠다.

### 3) 우언의 형식-〈호질〉을 대상으로

『열하일기』 서(序)에서 연암 자신도 언급했듯이 『열하일기』에서 사용된 우언적 수법은 중요한 표현기법의 하나이다. 우언(寓言)이란 「장자」 우언편에서 유래한 용어로, 상대방을 더욱 잘 설득

하기 위해 자기 견해를 직접 주장하는 대신 허구적인 이야기를 빌어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가리킨다. 우언은 주로 주객간에 주고받는 대화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 때 화자와 청자는 실제 인물인 경우도 있지만 의인화된 동식물이나 사물까지 포함하여 가공적인 인물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 인물이라 해도 그들이 등장하는 작품배경과 대화내용 자체는 전적으로 허구이다. 그리고 우언에 있어서 허구적인 이야기는 수사의 일종이며 작자의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로서 사용될 뿐이므로, 우언은 소설처럼 허구자체의 흥미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허구는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우언은 작자의 분신인 작중화자가 개진하는 도도한 변론과 그 논리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반면, 소설이 중시하는 등장신물의 형상화나 배경에 대한 세부묘사, 교묘한 사건 구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화내용을 부각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배료를 할 따름인 것이다.

우언의 형식은 그 형식뿐만 아니라 우언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 즉, 현실 ‘풍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풍자란 어떤 부정적 현상을 측면 또는 이면(裏面)에서 공격하며 그 치부를 노출해보임으로써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자는 당면 사회 또는 역사의 어두운 면에 처한 의미있는 발언이 되며, 인간의 생존에 대한 절실한 문제를 제기, 고발하면서 그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해결점을 구하는 것이 된다. 풍자는 익살, 역설 및 기타 어떠한 수단이라도 단독으로 또는 혼합시켜 사용한다. 또한 풍자는 기지, 조롱, 아이러니, 비꼼, 조소, 냉소 및 역석, 즉 풍자의 스펙트럼대에 있는 모든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그 표면을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시킨다.

풍자에는 그 대상이 있어야 하며, 풍자의 주체, 풍자 작가의 윤리, 해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풍자는 인간 사회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냉엄한 고발이므로, 그 사회적 환경은 밝고 안정된 사회가 아니라, 어떤 악덕이나 모순으로 득실거리는 암담한 사회라는 것

㉡. 그러한 암담한 사회의 모순과 폐단을 개성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가진 지성, 즉 새로운 가치관에 바탕을 둔 비판적 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 그러한 부정적인 면을 날카롭게 고발하여 그 모순을 더욱 뚜렷이 노출시키되, 부정되는 현상은 주체와 무관하며, 자기부정을 내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 해학이 없는 풍자는 한낱 악담이나 독설에 지나지 않으므로 예술적인 향취로 작품 속에 용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18)</sup>

이를 다시 연암 문학의 경우에 적용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 연암 문학에서 풍자의 대상은 주로 그 시대와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책임이 있는 지배계층이었다. 이러한 지배계층이 무능하고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시대가 암담하고 모순에 가득차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연암을 비롯한 북학파들은 연행을 통해 이미 선진 문화를 목격하였고, 각종 토론과 저술 활동 등을 통해 시대와 사회의 모순을 개성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가졌으며, 이는 그들의 새로운 세계관과 과학사상, 문학회 등을 통해 표출된 바 있다.

---

118) 김학성, 「연암 소설의 풍자성」(Encyclopaedia Britannica, Vol20, 1963) p.6 (재인용)

㉔. 풍자가 문학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그 분노의 대상이 한 개인을 넘어서는 공적인 차원으로서 승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사심없는, 동기가 순수한 문학적 정열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㉕. 이는 풍자 문학의 성패를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문학적 역량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풍자와 해학은 상보적인 관계를 지니며,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해학 속에서 풍자를 볼 수 있으며, 풍자 속에서 해학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유능한 풍자작가일수록 구수한 해학을 구사하면서 동시에 날카로운 풍자를 번득이게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해학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풍자를 예술미적인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풍자문학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열하일기』에서 이러한 우연과 풍자적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호질>과 <옥감야화>라 할 수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이 두 작품을 소설로만 다루어 왔다. 그러나 <호질>과 <옥감야화>에는 소설적 속성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고유의 특징이 다분한 바 이는 우연의 경지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1) <호질>을 이용한 우연의 교수 학습

<호질>은 당대 지배층의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하기 위해 풍자와 희화화의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범의 입을 빌려 북관선생으로 대표되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인간의 부도덕한 악행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연으로서의 성격을 지

닌다.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영역에서의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과 ‘문학의 본질’영역 중 ‘문학의 가치’를 통합하여 재량시간의 선택 과목 학습 중 문학 교과 수업에서 교수활동이 가능하다. 작품에 대한 창조적 재구성, 글쓰기는 현재 학습자의 문학적 경험, 문학 활동과 고전 작품을 연결함으로써 고전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적절한 지도 방법이다.

그리고 <호질>은 작가의 비판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작품이므로 문학의 가치 지향적 성격을 학습하기에 좋은 제재이다. 또한 조선 후기에 사회의 지배계층을 풍자, 비판한 작품으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학습하기에 매우 적절하다. 따라서 ‘문학의 본질’ 영역 중 ‘문학의 가치’를 지도할 수 있는 단원이라 생각된다.

#### 가. 학습 목표 제시

- 우언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하고, 주어진 텍스트의 우언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우언 형식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을 이해하고 한 편의 우언을 쓸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의외로 우언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언과 우화를 구분하기 힘들어 한다. 위의 학습목표는 학습자들이 우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직접 우언을 쓸 수 있는데 초점을 두었다.

#### 나. 교수 학습방안

<호질>의 제목은 범의 꾸짖음이라는 뜻이다. 범은 전통적으로 강자의 상징이며 신령한 동물로 인식되어 왔는데 작가는 이러한 범

의 입을 빌려 북곽선생으로 대표되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인간의 부도덕한 악행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가 범의 입을 빌려 당대 지배층을 꾸짖고 있는 것은 사회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까닭이다. 즉, 자신의 생각을 범을 등장시켜 우회적으로 대변하게 함으로써 도학자를 비롯한 당대 지배층의 위선과 비도덕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작품의 묘미와 흥미를 더하게 하였다.

<예시1>

[우언이 뭐예요?]

※"우언이 뭐예요?"

우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솝 '우화'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우화가 동물의 의인화, 허구성을 통해 교훈을 전달해주는 이야기라면, 우언은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물에 빗대어 돌려 말하는 이야기로 어떠한 대상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우언은 우화와 달리 의인화, 허구성을 지닌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익히 알려진 이야기에 개인의 새로운 의미를 담아 재창작, 얼마든지 새로운 이야기로 창작될 수 있어요. 즉 우화보다 우언이 더 큰 개념이라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강아지똥"이나 "술견설", "허생전"등도 우언의 일종이 될 수 있답니다.

가. 범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듣건대 유(儒)는 유(諷)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이듣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뿐이다. 범의 본성(本性)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善)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너희들의 떠드는 천 소리 만 소리는 오륜(五倫)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은 내내 사강(四綱)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도회지에 코 베이고, 발꿈치 찢리고, 얼굴에다 자자(刺字)질하고 다니는 것들은 다 오륜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포승줄과 먹실, 도끼, 톱 같은 형구(刑具)를 매일 쓰기에 바빠 겨를이 나지 않는데도 죄악을 중지시키지 못하는구나. 범의 세계에서는 원래 그런 형벌이 없으니 이로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보다 어질지 않느냐? 범은 초목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

를 먹지 않고, 술 같은 좋지 못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며, 순종 굴복하는 하찮은 것들을 차마 잡아먹지 않는다. (후략)

나. 어떤 손(客)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 저녁엔 아주 처참(棲慘)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 너무 참혹(慘酷)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火爐)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 불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손이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는 미물(微物)이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는 필연(必然)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血)와 기운(氣)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지절(支節)과 작은 부분이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 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터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봉(大鵬)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道)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연못에 아름다운 황금색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살고 있었죠. 다른 물고기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곁에 가려고 했지만 그의 자세가 너무 도도해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황금물고기는 혹 자신의 비늘이 다칠까봐 다른 물고기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다녔고 마을의 축제때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언젠가부터 그는 늘 혼자였어요. 황금물고기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만한 친구가 하나도 없어 슬펐습니다. 그즈음 다른 연못에서 이사온 물고기가 그의 아름다움에 반해 말을 걸어왔어요. 외로워하던 황금 물고기는 그를 반갑게 맞았고, 둘은 곧 친구

가 되었죠.

어느날 이사온 물고기가 황금 물고기에게 부탁했습니다.

"친구야 너의 아름다운 비늘을 하나만 내게 주렴. 그것을 간직하고 싶어."

그러자 황금 물고기는 선뜻 자신의 황금 비늘하나를 내 주었고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서 그도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본 연못의 다른 물고기들은 너도 나도 황금 물고기에게 몰려와 비늘 하나만 달라고 졸랐죠 마침내 비늘을 다 주고 난 황금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처럼 되었지만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생겨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답니다.

그 뒤 어느 날 밤, 연못을 지나던 사람은 연못 전체가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못속 물고기들이 하나씩 지니고 있는 황금비늘이 저마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죠.

라. “꿈을 꾸고 있는 꿈”



곽충렬씨의 그림.

1. 가는 박지원의 <호질>, 나는 이규보의 <슬견설>, 다는 동화 <황금물고기>, 라는 곽충렬의 <꿈을 꾸고 있는 꿈>이다. 모두 그 장르는 다르지만, 우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위 네 작품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우언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2. 우언을 사용하여 말을 할 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는지 자유롭게 생각해 보자.

<예시1>은 우언의 기본적인 정의와 성격을 알아보는 활동이다. 제시된 텍스트들은 모두 모두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고 있으며,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호질>은 호랑이의 입을 빌려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또한 북곽선생과 동리자를 통해 유학자의 위선을 풍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언의 성격을 갖는 우화적 성격의 우언이다. <슬견설>은 손(客)과 나의 대화를 통해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보자는 것과 만물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우언의 성격

을 가지고 ‘다’의 <황금물고기>는 일종의 동화로서 도도한 황금물고기 이야기를 통해 친구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 다른 사물에 빗대어 돌려 말한다는 점에서 우언의 성격을 갖는다. ‘라’는 광충렬 화백의 그림으로 제목이 <꿈을 꾸고 있는 꿈>이다. 꿈조차도 꿈을 꾸고 있다는 그림을 통해,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반성하게 하고, 꿈을 꾸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림의 형식을 통해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을 풍자했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제를 전달했기 때문에 우언의 성격을 획득했다고 보았다.

우언의 돌려말하기 방식은 직접적인 주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만큼 독자 참여의 폭이 넓다. 또한 간접성으로 말미암아 시대상의 제약을 피할 수 있고 독자의 첨예한 반응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돌려말하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 문제는 학습자들이 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사의 유도 질문<sup>119)</sup>이나 예시<sup>120)</sup>가 필요하다. 학습자는 이 활동을 통해 우언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우언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119)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느꼈지? 느낀 점을 말해보자.”라고 말하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이를 통해 돌려말하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분명히 전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유도질문을 할 수 있다.

120) 돌려말하기의 상황을 제시해본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랑 명동을 걷다가 예쁜 옷을 발견했어. 남자친구한테 직접 사달라고 하기 민망하지? 그래서 ‘저거 참 예쁘다.’라고 말을 했어. 이런 게 바로 돌려말하기야. 이렇게 돌려말하면 남자친구는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상대방의 첨예한 반응을 피할 수도 있단다.”식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어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예시2>

[접먹지 마세요. 당신도 우연을 쓸 수 있습니다.]

우연을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음 우연의 성격만 유의하자.

-우연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사물에 빗대어 돌려 말한다.

-우연은 어떤 대상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익히 알려져 있는 이야기에 우의를 담아 재창작하는 것도 우연이 될 수 있다.

\* '스노우캣' 카툰을 보고 우연쓰기에 도전해보자!



(과연 뭘 하기는 했을까 생각하고 있다.)

1. 옆에 제시된 만화를 통해 무엇을 느꼈는가?

요즘 나의 브릅을 보는 것만 같다. 침대에 누워서 멍기적거리는 시간을 아까워 하다가도, 그런 나를 합리화시키는 브릅이 나랑 비슷하다.

2. 만일 이 만화를 미니홈피에 올린다면 제목은 무엇으로 할까? 그림의 내용에 걸맞는 제목을 지어보자.

자기 합리화의 극치, 멍기적거리기 대항,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킬킬킬킬 스노우캣. 등등등

3. 위의 만화의 교훈을 주제로 한편의 우연을 써보자.

<예결>

제목-스노우캣에게 물다.

너적은 여전히 침대위에서 킬킬거리고 있었다. 언제나 너적은 침대위를 킬킬거리고 있다. 불끄는 것도 킬킬고 밥 먹기도 킬킬다는 스노우캣..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니?

<제목>

<내용>

이 활동은 학습자가 직접 우언을 써보는 활동이다. 앞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우언’이라는 것이 다른 갈래에 비해 비교적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갈래임을 배웠다. 교사는 <예시1>의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우언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사물에 빗대어 돌려 말한다는 것, 어떤 대상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익히 알려져 있는 이야기에 우의를 담아 재창작하는 것도 우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학습자의 인지활동을 돕고 다음 활동에 들어가야겠다. <예시2>의 활동은 인터넷 만화를 통해 느낀 것을 우언의 형식으로 작성해보는 활동이다. 위의 만화는 ‘스노우캣’이라는 유명한 인터넷 만화인데 매사를 귀찮게 여기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귀차니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유명한 인터넷 만화이다. 이 만화 역시 게으름과 귀찮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 침대에서 멍기적거린 시간을 아까워하다가, 멍기적거리지 않았어도 무엇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식의 자기합리화를 하며 다시 멍기적거리는 고양이를 통해 게으른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한다. 이렇게 학습자에게 친숙한 만화를 사용하여 학습자는 흥미를 느끼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 활동은 학습자들의 생활습관이 되어버린 미니홈피 게시물 올리기를 이용한 활동이다. 미니홈피는 웹상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대변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미니홈피 꾸미기에 공을 들이며, 게시물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게시물을 올릴 때는 제목을 반드시 붙여야 하며, 그 제목은 남들이 읽고 싶어지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경써서 쓰게 된다. 제목은 글의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게시물은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돌려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언형식의 글쓰기는 인터넷 게시물 올리기와 닮아있으며, 이 점은 인터넷에 익숙한 학습자를 상대로 한 좋은 교수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친숙한 인터넷 게시물 올리기 과정을 이용하여, 글의 내용에 걸맞는 제목을 지어보도록 한다. 그리고는 그 제목과 그림에 모두 어울리는 우언을 쓰게 된다. 스노우캣에서 얻은 교훈이 주제가 되고, 스노우캣을 통해 돌려말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니면 스노우캣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짓는 것도 가능하다. 교사는 이 활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비판적 언사나 행동을 자제하고, 재미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다. 평가

이 수업은 우언의 형식을 이해하고 한 편의 우언을 작성해보는 시간이었다. 우언이라는 것은 이면에 감추어진 의미가 독자에게 잘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쓴 우언이 이면적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가 최우선의 평가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우언이라는 양식의 특징을 잘 이해했는지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열하일기』의 표현 능력 교육적 측면을 살피고, 다양한 갈래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안을 만들어 보았다. 『열하일기』는 기본적으로 기행문을 형식을 갖추면서도 에피소드를 활용하거나, 논설문의 형식을 차용하고, 또한 우언의 형식을 이용하여 작가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에피소드를 활용한 기행문 쓰기의 활동을 통해 갈래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벽돌론>을 모방하여 한편의 논설

문을 써보기도 했고, <호질>을 이용하여 우연을 써보도록 했다.  
『열하일기』를 다양한 측면의 학습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는  
『열하일기』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글이 반드시 하나  
의 방식으로 쓰일 필요는 없다는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IV. 결 론

연암의 문학이 학교교육에 수용된 것이 올해로 벌써 50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사십 여년의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연암의 작품을 읽고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교육자료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암은 유명한 조선시대 한문소설 작가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연암 문학의 업적, 위대한 문학사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착안하여 본고는 연암의 대표작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삼아 『열하일기』가 가진 교육자료로서의 가치를 모색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I 장에서는 연암 문학의 연구 방향이 일부 전(傳)문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도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II 장에서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연암 문학의 수록 작품 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7차 교육과정까지 연암의 문학은 <도강록>, <일야구도하기>, <양반전>, <호질>, <허생전> 등이 수록되었으며, 특히 <양반전>의 경우에는 6차 교육과정에서는 12종의 문학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에서는 10종의 문학교과서가 수록하고 있어 단일 작품으로는 최대 수록으로 꼽을 수 있었다. 또한 연암의 작품은 동일한 작가의 작품 수로 보나, 작품이 실린 교과서의 수로 보나 가장 많은 수가 수록되어, 그 문학적 가치가 학교교육에서도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록된 작품이 모두 전(傳)이었고, 그것이 다루어지는 단원이 대부분 ‘문학과 문화’라는 영역으

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발견하였다. 최근 문학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잘 맞는 연암의 문학이 이렇게 한 쪽 방향으로만 치우쳐서 교육되어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Ⅲ장에서는 최근 문학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열하일기』의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찾고,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최근 문학 교육은 문화지향의 문학 교육과 표현능력 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Ⅲ장은 『열하일기』가 이 두 방향에 모두 부합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녔음을 증명하고 두 가지 방향에 맞추어 활동지를 중심으로 한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열하일기』의 ‘문화지향의 문학 교육’적 성격은 실학사상과 상대주의적 태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연암의 이용후생 실학사상은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실용적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학습자는 실학사상을 이해함으로써 실용적 태도의 중요성을 체화하고 사회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업은 교과학습의 심화보충 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하)에서 이미 배운 <허생전>텍스트를 통해 허생이라는 인물의 행위를 통해 실학사상의 의미를 깨닫고, 현대 사회에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상대주의적 관점은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으로 『열하일기』의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 상대주의는 본질은 하나일지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연암은 이러한 상대주의적 관점을 통해 남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대주의적 관점의 학습을 위해 「막북행정록」과 ‘마호메트 풍자 만화 사건’의 신문 사설을 비교하여, 상대주의적 관점이 왜 필

요한지를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안을 구성해 보았다.

『열하일기』의 표현능력 교육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기행문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때에 따라 에피소드나 논설문, 우언의 형식등 다양한 갈래를 수용하여 작품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주제 전달의 효용성을 높이는 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기행문과 『열하일기』를 제시하여 어떤 글을 더 재미있게 읽히는지 깨닫게 하고 에피소드 형식을 활용한 기행문을 써보도록 함으로써 갈래의 장점을 수용하여 혼합했을 경우의 장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논설문 쓰기는 습작활동을 통해 간략한 논설문을 써보도록 유도했으며, 우언의 형식은 다양한 종류의 우언들을 제시하여 우언의 성격에 대해 익히도록 한 후, 만화를 이용하여 우언쓰기를 유도해보았다.

『열하일기』는 조선시대 대문호 연암의 대표작이다. 연암의 자유롭고 혁신적인 사상과 문체적 특질로 인해 연구계의 중심에 섰고 끊임없이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 작품의 우수성에 비해 교육되어지는 방식이나 활용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인해 미진하게나마 『열하일기』를 학교 교육에 활용해 보고자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열하일기』의 다양한 텍스트들을 학습자들에게 소개하고, 효과적인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자료와 모델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겠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 강황구의, 『문학』, 상문연구사, 2002.
- 교육부, 『고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 1995.
- 교육부, 『국어과 교육 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997.
- 교육인적자원부, 국어(하) 교사용지도서, 두산, 2003.
- 교학 도서 편집부, 『인문계 고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 교학 도서 주식 회사, 1968.
- 교학 도서 편집부, 『인문계 고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 교학 도서 주식 회사, 1975.
- 구인환외, 『문학』, 교학사, 2002.
- 권영민, 『문학』, 지학사, 2002.
- 김대행, 『문학 교사용지도서』, 교학사, 2002.
- 김명호, 『박지원 문학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 김병국외, 『문학』, 한국교원미디어, 2002.
- 김상태외, 『문학』, 태성, 2002.
- 김윤식외, 『문학』, 디딤돌, 2002.
- 김창원외, 『문학』, 민중서림, 2002.
- 문교부, 『고등 학교 교육 과정』,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1982.
- 문교부, 『고등 학교 교육 과정』, 문교부, 1988.
- 박갑수외, 『문학』, 지학사, 2002.
- 박경신외, 『문학』, 금성출판사, 2002.
- 박영목외,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2002.
- 박지원, 『열하일기』 상·중·하(上中下), 보리, 2004.
- 박호영외, 『문학』, 형설출판사, 2002.
- 서울 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국어』, 교육인적자원부, 2002.
- 오세영외, 『문학』, 대한교과서, 2002.
- 우한용외, 『문학』, 두산동아, 2002.
- 조남현외, 『문학』,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 한계전외, 『문학』, 블랙박스, 2002.
- 한철우외, 『문학』, 문원각, 2002.

## 2. 저서

- 곽재용, 「국어과 제7차 교육 과정의 검토와 국어 교육의 전망」, 『한민족어문학』 33, 1998.
- 김대행, 『문학 교육 뜯짜기』, 역락, 2000.
- 벵쌍 데퐁브. 박성창 역, 『동일자와 타자』, 인간사랑, 1990.
- 우한용, 「문학 교육의 윤리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 『사대논총』 제55집, 서울대 사대, 1997.
- 이문원, 「조선 후기 실학교육사상의 현대적 조명」, 『한국교육사학』, 2002.
- 이옥형 · 이종숙 · 임선빈 공저, 교육심리학, 집문당, 2000.
- 최인자,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출판, 2001.
- 최인자, 「연암 <열하일기>에 나타난 글쓰기 발상법의 한 원리」, 『목원국어국문학』 4권, 1996.

## 3. 논문

- 구희옥, 「서사표현 방식에 따른 기행문 쓰기 지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권용진, 「燕巖 朴趾源의 教育 思想」, 全州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3.
- 김경희, 「燕巖 朴趾源 문학의 교육 방안 연구 漢文小說 . 「熱河日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은미, 「熱河日記의 敘述形態 考察」,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2.
- 김정희, 「연암소설에 나타난 작가정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김혜경, 「1-5차高等學校 古典小說 教育研究 教科書 作品 收錄을 中心으로 高等學校 古典小說 教育研究 教科書 作品 收錄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박춘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전소설 교육방안 연구-〈허생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徐慶兒, 「창조적 발문을 통한 문화교육 방안 연구-「허생전」의 인물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오현정, 「재량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교사들의 관심도와 실행수준 및 관련 변인 연구」,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2003.

- 유민정, 「'許生傳'의 教育的 受容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장광순, 「朝鮮後期 實學思想의 現代教育的 意味」,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2004.
- 장유경, 「허생전의 현실 인식과 문학 교육적 가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전부용, 「燕巖 朴趾源의 熱河日記 研究 燕行文學의 성격과 表現上 특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정명진, 「기행문학의 교수-학습방법론 연구 열하일기, 연행가를 대상으로」, 全北大學校 教育大學院석사학위논문, 2003.
- 최화순, 「연암소설 학습자 수용 燕巖小說의 教育的 意味 研究」, 水原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2003.
- 한기영, 「허생전 소고 풍자성과 연암의 사상적 단면」,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홍승현, 「1-7차高等學校 文學教科書에 收錄된 古典小說 教育 研究」, 西原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4.

## 부 록

※부록 1. <양반전>의 문학교과서 수록 양상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활동
지학사 (권)	II. 한국 문학의 흐름(1) 3. 조선 시대의 문학	<p>&lt;대단원&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 고전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한국 문학의 전통과 지향성을 이해한다.</li> <li>2. 사회상과 문학의 관련성을 이해한다.</li> <li>3. 한국 문학 속에 담긴 민족의 사상과 감정, 정서를 이해한다.</li> <li>4. 시대에 따른 갈래의 변화 양상을 알고 그 문학사적 의의를 이해한다.</li> </ol> <p>&lt;소단원&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선 시대 문학의 전개 양상을 파악한다.</li> <li>2. 조선 시대 문학의 주요 갈래를 이해한다.</li> <li>3. 조선 시대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주제의 다양한 변모를 당시의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한다.</li> <li>4. 조선 시대 문학에 반영된 당대인들의 세계관을 이해한다.</li> </ol>	<p>&lt;내용학습&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작품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성격을 정리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선 양반</li> <li>- 부자</li> <li>- 군수</li> </ul> </li> <li>2. 작품에 나오는 두 개의 문서를 통해 작가가 제시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li> </ol> <p>&lt;목표학습&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부자의 마지막 발언이 주는 풍자적 효과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li> <li>4. 소설의 장르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의 소설적 한계점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li> </ol>
교학사(구)	II.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1.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p>&lt;대단원&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이해한다.</li> <li>2.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흐름을 이해한다.</li> <li>3.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 서로 교섭하는 양상을 이해한다.</li> </ol> <p>&lt;소단원&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한다.</li> <li>2. 한국 문학의 갈래와 특질을 이해한다.</li> </ol>	<p>&lt;내용이해&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작품에 나타난 풍자적 특질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말해 보자.</li> <li>2. 한문 소설로서의 갈래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말해 보자.</li> </ol>
대성	VII. 한국 문학의 특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 문학의 특징에 대하여 안다.</li> <li>2.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의 특징에 대하여 안다.</li> <li>3. 민족 문학과 세계 문학의 특징에 대하여 안다.</li> </ol>	<p>&lt;심화학습&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소설에 반영된 사상적 배경과 풍자 대상</li> <li>2. 이 소설에서 작가가 심도 있게 비판하고 있는 당대의 사회상</li> </ol>
블랙박스	VIII. 한국 문학의	<p>&lt;학습목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세 전기와 구별되는 중세 후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li> </ol>

	<p>특질과 흐름</p> <p>4. 중세 후기 문학의 흐름</p>	<p>문학의 특징을 이해한다.</p> <p>2. 중세 후기를 대표하는 문학의 갈래와 변모 양상을 안다.</p> <p>3. 중세 후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서와 세계관이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안다.</p> <p>&lt;감상의 포인트&gt;</p> <p>1. 작품의 배경이 된 당시의 시대상을 떠올리며 읽는다.</p> <p>2. 작가의 의도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고려하며 읽는다.</p> <p>3. 작품에 담긴 비판 의식을 박지원의 실학 사상과 관련지어 이해한다.</p>	<p>(1) 이 작품에서 주된 풍자의 대상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p> <p>(2) 부자가 양반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p> <p>2.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p> <p>(1)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사회, 경제적 특징을 조사해 보자.</p> <p>(2) 이 작품에 나타난 양반과 평민의 관계가 조선 전기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p> <p>3. 문학 작품은 '작가 의식의 산물'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박지원의 실학 사상을 조사해 보고, 이러한 사상이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발표해 보자.</p>
<p>형식</p>	<p>IV. 주제별 수용과 창작</p> <p>6. 웃음과 비판정신</p>	<p>&lt;대단원&gt;</p> <p>1. 풍자와 해학의 개념 이해</p> <p>2. 작가가 사회상을 비판할 때, 어떻게 풍자와 해학을 사용하는지 이해</p> <p>3. 사회 현실과 연관해서 우화에 의한 풍자의 특징과 표현을 이해</p> <p>4. 고전 작품과 현대 작품에 나타난 풍자의 대상과 표현 방법을 이해</p> <p>&lt;소단원&gt;</p> <p>1. 작품에 담긴 비판 의식을 박지원의 실학 사상과 관련지어 이해</p> <p>2. 박지원의 작품들을 소설사적 맥락에서 이해</p>	<p>&lt;확인하기&gt;</p> <p>1. 「양반전」에서 일어난 사건은 조선 후기 사회상의 변화 중 어떤 측면을 반영했나?</p> <p>2. 이 작품에서 풍자하고 있는 양반의 행위는 어떤 것들인지 정리</p> <p>&lt;적용하기&gt;</p> <p>1. 다음은 1900년대 한일 합방 이전의 부패한 정부 관료와 사회를 풍자한 내용을 담은 '사회등 가사'로, 신문에 실렸던 것이다. 이 가사에서 풍자하는 데 주로 동원한 표현의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병문수작」-대한 매일 신보)</p> <p>2. 다음 글(이회승의 「딸각발이」)은 강인한 선비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의 글로, 선비의 삶의 모습이 다소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 글속의 선비가 「양반전」의 양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양한 언어 형식(시, 소설, 수필, 편지, 만화그림) 등으로 표현해 보자.</p>
<p>문원각</p>	<p>II. 한국 문학의</p>	<p>&lt;대단원&gt;</p> <p>1. 조선 시대 문학의 갈래적 특징을</p>	<p>&lt;감상과 반응&gt;</p> <p>1. 이 글을 읽고 사건에 대한 자신</p>

	<p>흐름</p> <p>3. 조선 시대의 문학</p>	<p>이해</p> <p>2. 조선 시대의 문학사적 전개를 이해 &lt;소단원&gt;</p> <p>1. 작품을 감상하고 주제를 이해</p> <p>2. 작품을 통해 조선 후기 한문 단편 소설의 특징을 이해</p>	<p>의 느낌 말하기</p> <p>&lt;목표다지기&gt;</p> <p>1. '양반전'에 반영된 당대의 현실 모습은?</p> <p>2. 실학사상을 반영하여 지어진 조선 후기의 한문 단편 소설의 특징</p> <p>3. 양반 문화에 대한 도덕적 비판</p>
대한	<p>V.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2-4 (조선후기의 문학)</p>	<p>&lt;대단원&gt;</p> <p>1.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사회, 문화에 어떤 변화</p> <p>2. 문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양상 이해</p> <p>3. 조선 후기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문학사의 흐름을 정리</p>	<p>&lt;이해활동&gt;</p> <p>1. 이 작품에서 풍자하고 있는 대상</p> <p>1) 군수가 작성한 첫 번째 문서와 두 번째 문서에서는 각각 양반의 어떤 점 풍자?</p> <p>2) 작가는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사려 한 부자의 모습을 통해 어떤 점 풍자?</p> <p>3) 무능한 양반과 부자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 사회상의 모습</p> <p>2. 이 작품에서 양반을 사고자 했던 '부자'를 현대 법정에서 재판하고자 한다. 검사와 변호사의 입장으로 나누어 재판</p>
두산	<p>IV. 문학의 문화적 특징, 3. 문학으로 시대 이해하기</p>	<p>&lt;대단원&gt;</p> <p>1. 문학이 시대정신을 반영함을 이해한다.</p> <p>2. 문학은 시대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이해한다.</p> <p>3. 문학이 문화적 유산으로 형성됨을 이해한다.</p>	<p>&lt;이해활동&gt;</p> <p>1. 이 작품에서 풍자하고 있는 대상</p> <p>1) 군수가 작성한 첫 번째 문서와 두 번째 문서에서는 각각 양반의 어떤 점 풍자?</p> <p>2) 작가는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사려 한 부자의 모습을 통해 어떤 점 풍자?</p> <p>3) 무능한 양반과 부자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 사회상의 모습</p> <p>2. 이 작품에서 양반을 사고자 했던 '부자'를 현대 법정에서 재판하고자 한다. 검사와 변호사의 입장으로 나누어 재판</p>
지학사 (박)	<p>II. 문학의 수용과 창작</p> <p>1.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p> <p>(3) 문학</p>	<p>&lt;대단원&gt;</p> <p>1. 문학의 미적 구조를 이해,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 관련성을 이해.</p> <p>2. 작품의 주제가 구성되는 방식 이해.</p> <p>3. 작품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적,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그 가치를 내면</p>	<p>1.(1) 양반의 무능함이 나타나는 부분.</p> <p>(2) 양반 계급의 비리와 횡포가 나타나는 부분.</p> <p>(3) 증서를 두 번 쓰는 과정은 양반 계급에 대한 어떤 비판이 될 수 있는지.</p>

	<p>작품의 주제</p>	<p>화, 4.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하여 삶 속으로 구체화. 5. 기본 갈래에 따라 작품을 창작하여 이를 발표하고 서로 평가.</p> <p>&lt;소단원&gt; 1. 문학의 미적 구조가 갈래와 작자,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함을 이해. 2. 내용, 형식, 표현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작품이 이루어짐을 안다. 3. 작품의 주제가 문학 활동의 주제, 구조, 맥락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됨을 이해.</p> <p>&lt;작품 읽기&gt; 조선 후기 양반 사회의 폐단을 여러 측면에서 비판한 풍자적인 한문 소설 1. 주제와 관련되는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작품의 주제. 2. 작자와 독자, 작품의 구조, 문학 활동의 맥락 속에서 주제가 다양하게 형성되는 과정.</p>	<p>(4) 양반되기를 염원하다 거부하게 된 부자의 변화가 작품 구조의 주된 축을 이룬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의미. (5) 양반을 동경한 점과 증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구한 점에서 부자의 어떤 면을 비판할 수 있는지. 2.(1) 당대 사회의 잘못된 지배 질서에 맞서는 비판적인 작가 정신을 강조하는 맥락에서라면 이 작품의 주제는 어떤 것으로 수용될지. (2) 잘못된 지배 질서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태도를 강조하는 맥락에서라면 이 작품의 주제는 어떤 것으로 수용될지. (3) 지식인이 관념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 현실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하는 맥락에서라면 이 작품의 주제는 어떤 것으로 수용될지. (4) 독자가 위의 세 관점 중 어느 하나를 이미 확고히 가지고 있다면 작품의 수용은 어떻게 될지. 3. 작품에 대한 독자의 수용 활동이 비판적이고 창조적이면서도 동시에 보편성을 띠 수 있는지. 4. 조선 후기 양반 사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조사, 이 작품에 나오는 다음 내용들이 당시의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말해보자. (1) 강원도 감사가 환곡의 장부를 열람했을 때의 정황 (2) 양반 매매가 이루어지는 정황 (3) 고쳐 쓴 양반 증서의 내용</p>
<p>케이스</p>	<p>III. 문학의 수용과 창작 (2)갈래에 따른 수용과 창작 1.서사의 세계</p>	<p>&lt;대단원&gt; 1. 소설의 사건과 구성의 관계 이해 2. 인물의 유형과 배경의 기능 이해 3. 제재의 배열로 주제가 형성되는 과정 이해 4. 소설의 서술 시각에 대해 이해 5. 소설 창작의 방법을 알고 작품 창작</p>	<p>&lt;이해하기&gt; 1. 작품에서 언급한 '원네, 음관(蔭官), 남인(南人), 환곡(還穀), 양반 매매 증서' 등의 어휘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신분 제도 조사. 2. 작품에서 부자는 양반 신분을 사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이를 포기한다. 부자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생각하며 그 이유 설명.</p>

	(2) 인물과 배경	<소단원> 1. 인물의 유형을 이해 2. 고대 소설과 현대 소설의 인물의 차이점 이해 3. 배경의 종류와 기능 이해 4. 인물과 배경의 관계 이해	3. 작품의 결말 부분을 보면, 작가는 결국 양반을 도둑놈과 같다고 비판하는데, 그 비판은 부자의 입을 빌려 간접적으로 제시. 인물과 배경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런 표현 방식의 효과에 대해 설명. <확장하기> 1. 오늘날의 현실에서 ‘양반전’의 양반과 비슷한 인물 유형을 찾아보고, 그런 인물 유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 2.(1) ‘꺼삐딴 리」-전광용’의 이인국 박사와 「양반전」의 부자와의 공통점. (2) 이인국 박사의 행태와 시대적 배경과의 관계.
--	------------	---	---

※부록 2. <허생전>의 문학교과서 수록 양상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활동
고등학교 국어(하)	2.정보의 조직과 활용	1.다양한 매체 언어의 특성 이해 2. 다양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재조직하며 듣고 읽는다. 3.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재조직하여 작품 감상	학습활동 1. 허생에 대한 아내의 말에서 알 수 있는 양반 계층의 문제점 2. 허생의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경제 현실의 문제점 3. 허생이 군도를 이끌고 섬에 들어간 행동을 중심으로 (1) 창작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말해보자. (2)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4. 허생과 변씨의 대화를 역할 놀이로 재구성하여 듣고, 글을 읽을 때와 어떤 점이 다를지 토론 5. 허생과 이완 대장 사이의 대화에 주목, 허생이 제기한 세 가지 정책을 이완 대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 6.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요구한 세 가지 정책을 정리하여 상소문 형식의 글을 쓰려 한다. 이런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재조직해 보자. 7.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기와 작품이 쓰여진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 100년 전

			의 상황을 풍자한 이 작품이, 박지원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과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이야기.
금성	Ⅲ.민족 문학의 흐름	<p>&lt;대단원&gt;</p> <p>1.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큰 흐름</p> <p>2. 각 시기의 사회상과 문학의 상관관계</p> <p>3. 각 시기 문학들 사이의 연계성</p> <p>4. 각 시기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p>	<p>&lt;심화활동&gt;</p> <p>1.(가) 「봉산탈춤」 (나): 「허생전」 - 박지원 (다) 「붉가버튼 아해   들리」 - 이정신</p> <p>(1) 위의 세 작품은 모두 조선 후기의 작품이다. 문학상의 갈래 명칭을 말하고 표현상의 공통점을 찾아보자.</p> <p>(2) (가)와 같은 작품은 일제 시대에 공연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일제가 공연을 금지한 이유를 작품에 나타나는 주제 의식과 관련하여 말해보자.</p> <p>(3) (나)에서 '이 대장'은 실존 인물인 이완을 가리키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는 용력이 뛰어나고 매사에 의연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작가가 '이 대장'을 줄장부로 묘사한 의도.</p> <p>(4) (다)의 화자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p>
교학사 구	Ⅱ. 문학의 수용과 창작 3. 문학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1) 문학 작품의 재구성	<p>&lt;대단원&gt;</p> <p>문학의 수용과 창작의 원리를 안다.</p> <p>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내면화한다.</p> <p>문학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p> <p>문학 활동을 창작, 발표, 평가한다.</p> <p>&lt;소단원&gt;</p> <p>문학 작품을 수용자의 입장에서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p> <p>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p>	<p>학습활동</p> <p>1. 박지원의 「허생전」과 비교해 볼 때, 채만식의 「허생전」에서 작가가 이상국을 '제주도'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자.</p> <p>2. '줄거리, 인물, 배경'의 측면에서 두 작품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 효과를 말해보자.</p> <p>3. 2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해 보자.</p>
디딤돌	I.문학의 본질 1.문학의 특성,	<p>&lt;대단원&gt;</p> <p>1.문학이 언어를 표현 매체로 하는 예술의 한 형태임을 이해할 수 있다.</p> <p>2. 문학이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p> <p>3. 문학이 인지적,정의적,심미적,구조물임을 이해할 수 있다.</p>	<p>&lt;심화&gt;</p> <p>1.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이 삶에 대한 문제 제기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설명해 보자.</p> <p>2. 이 작품에서 '변씨'는 어떤 성격의 인물로 그려져 있는지 정의해 보자.</p> <p>3. 이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변씨'는 어떤 말과 행동을 가치있게 평가했는지 생각해 보자.</p>

※부록 3. <호질(虎叱)>의 문학교과서 수록 양상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활동
민중	II.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5. 조선 후기의 문학	<p>「소단원」</p> <p>1. 조선 후기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표작을 안다.</p> <p>2. 이 시기의 문학을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안목</p> <p>「길라잡이」</p> <p>조선 후기의 대표적 한문 소설로, 북관 선생으로 대표되는 도학자의 위선을 폭로, 풍자. 인물들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그리면서 당대 현실의 모순을 선명하게 보여줌. 인물에 대한 풍자가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p>	<p>&lt;익히기&gt;</p> <p>1. 북관 선생가 동리자의 위선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곳</p> <p>2. 북관 선생이 지은 노랫말에 나타난 위선적인 내용</p> <p>3. 동리자의 다섯 아들이 북관 선생을 여우의 변신으로 판단한 이유</p> <p>4. 범이 북관 선생을 꾸짖는 말의 요지를 정리. 인간 세상의 어떠한 면을 비판?</p> <p>5.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농부와 북관 선생을 대비시킨 의도에 대해 생각. 그리고 두 인물이 역사의 진보에 각각 어떤 역할.</p> <p>&lt;적용&gt;</p> <p>1. 이 작품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 찾기. 그리고 풍자하고자 하는 내용.</p> <p>2. 이 작품에서 범을 내세워 당대 현실을 풍자하는 이유와 그 효과.</p> <p>3. 조선 후기에는 사설시조, 소설, 가사 등 거의 전 갈래에 걸쳐 세대를 풍자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각 갈래별 대표작들을 조사하여 그 내용 정리.</p>
중앙	II. 한국 문학의 흐름 4. 근대 여명기(입진 왜란부터)의 문화와 문학	<p>「소단원」</p> <p>1. 조선 후기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표작을 안다.</p> <p>2. 이 시기의 문학을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안목</p> <p>「길라잡이」</p> <p>조선 후기의 대표적 한문 소설로, 북관 선생으로 대표되는 도학자의 위선을 폭로, 풍자. 인물들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그리면서 당대 현실의 모순을 선명하게 보여줌. 인물에 대한 풍자가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p>	<p>더 읽을거리-박지원의 ‘양반전’, ‘허생전’, ‘예덕 선생전’, 이육 ‘십생전’</p> <p>1. 안국선의 금수회의록과 비교</p> <p>1) 이 글에 나오는 호랑이와 이 작품의 호랑이는 각각 인간의 어떤 면을 나무라고 있나</p> <p>2) 호랑이가 말하는 방식 측면에서 호질과 이 글의 공통점.</p>

※ 부록 4. <광문자전>의 문학교과서 수록 양상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활동
금성	IV. 서사 문학의 수용과 창작-3. 소설의 내용과 주제-(1)	<p>&lt;대단원&gt; 소설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 소설의 내용을 이루는 요소. 소설의 주제와 그 표현방법. 소설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파악.</p> <p>&lt;소단원&gt; 작가가 그려 내고자 했던 새로운 시대의 바람직한 인간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주의.</p>	<p>확인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문이 약방 고용살이를 하게 된 직접적 계기.</li> <li>2. 광문과 같은 거지를 주인공으로 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li> </ol> <p>학습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일화들을 종합하여 광문의 성격 말해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픈 거지 아이를 위해 밥을 빌어옴.</li> <li>-버려진 거지 아이의 시체를 묻어 줌.</li> <li>-약방 주인의 돈을 탐내지 않음.</li> <li>-전당 유무도 묻지 않고 남의 보증을 해 줌.</li> <li>-우스꽝스러운 짓을 해서 사람들의 싸움을 말림.</li> <li>-장가들기를 권유받으나 사양함.</li> <li>-살림살이 차려 주려는 것을 사양함.</li> <li>-광문 앞에서 운심이 춤을 춤.</li> </ul> </li> <li>2. 광문을 통해서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인물형은 무엇이었는지.</li> <li>3. 「광문자전」에서 「허생전」-박지원의 '변씨'와 역할이 유사한 인물을 찾고, 그들이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말해보자.</li> <li>4. 광문의 태도에 대해 '남녀평등'의 개념을 중심과제로 삼아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자.</li> </ol>

※ 부록 5. <민옹전>의 문학교과서 수록 양상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활동
금성	I. 문학의 가치화와 생활화-2. 문학 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	<p>&lt;대단원&gt; 문학이 삶의 가치를 일깨운다는 것을 안다. 문학이 실천적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문학 활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p> <p>&lt;소단원&gt; 문학이 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안다. 문학의 가치는 수용 주체에 의해 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품 속의 '나'라고 한 것은 연암 자신이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암은 어떤 병이 들었는지.</li> <li>(2) 이런 병이 든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을지</li> <li>(3) 이야기 속의 민옹을 통해 사물이나 대상을 남과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li> </ol> </li> </ol>

	<p>현된다는 것을 안다.</p> <p>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의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p> <p>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기르기.</p>	
--	---	--

※부록 6. <예덕선생전>의 문학교과서 수록 양상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활동
상문연구사	V. 문학과 삶 1. 개인의 삶과 문학 (2) 삶의 의미	<p>「대단원」 작품을 인지적, 미적, 윤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작품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한다. 자신의 삶에서 소재를 찾아 적절한 갈래로 창작한다. 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한다.</p> <p>「소단원」 문학 작품이 삶의 표현임을 이해한다. 작품 속에 나타난 다양한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자신의 삶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다.</p>	<p>&lt;확인활동&gt;</p> <p>◆ 「예덕 선생전」 박지원, 「오봉산의 불」 구전 설화</p> <p>1.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p> <p>(1) 「예덕 선생전」에서 인물들이 지닌 가치관과 그 근거를 드러내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보자.</p> <p>(2) 「오봉산의 불」의 구조는 ‘행복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아내의 정성과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p> <p>▪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 → 남편이 문둥병에 걸리다. → ( ) →스님에게 남편 살릴 방법을 얻게 되다. → ( ) → 행복을 되찾게 되다.</p>

※부록 7. <통곡할 만한 자리>의 문학교과서 수록 양상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활동
민중	IV. 문학 문화의 발전 3. 한국 문학의 전망	<p>「소단원」</p> <p>1. 한국 문학이 한국 민족의 언어 및 문화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이해.</p> <p>2. 문학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한국 문학의 방향 탐구</p> <p>3. 한국 문학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 갖기</p>	<p>맞보기 (A. 박지원 ‘열하일기’, B. 이육사 ‘광야’)</p> <p>1. 두 작품의 작가 의식 비교.</p> <p>2. 두 작품은 시대와 언어와 갈래면에서 서로 다르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 ‘한국 문학’이라고 부르는 근거.</p>

<p>디딤돌</p>	<p>II.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2) 3. 조선시대의 문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선 시대 문학의 전반적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li> <li>2. 국문 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훈민정음의 창제 의의를 이해한다.</li> <li>3. 작품 수용을 통해 조선 시대 사람들의 정서와 의식을 이해한다.</li> <li>4. 조선 시대 당시의 세계 문학의 전개 양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li> <li>5. 조선 시대 문학의 수용을 통해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른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자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요동 별판을 묘사한 부분을 찾아보자.</li> <li>2. 요동 별판을 처음 본 순간 작자가 보인 반응과 그 직후 깨달은 바를 알아보자.</li> <li>3. 태복의 말을 아래와 같이 바꾸면 어떤 묘미가 사라지는지 비교해보자. “백답이 현신함을 아뢰오.” --」 “백답이 곧 보일 것입니다.”</li> <li>4. 작자는 요동 별판에서 칠정(七情) 중 무엇의 지극함으로 울고자 했는지 지적해 보자.</li> </ol>
------------	---	---	---

# ABSTRACT

## A plan to teach "Diary of Yul-Ha" through discretionary class

Kim Jin-A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one of the best writers and thinkers of his time, Yeon Am Park Ji Won has received consistent concern and was a devoted scholar by doing a lot of research. However, regardless of how much work he has done, there has been little study in the world of his literature. Actually, it is concentrated on his Chinese novels such as <Yangban Biography>, <Hersang Biography>, <Hojil> written in 1920s. This inclination of studies on his work also occurs in educational studies, which is affected by academic research. Therefore, almost all studies about Yeon Am are focused on novels in Chinese. The abstracts of his work in the high school textbook consist of "biography modes". To figure out

the true nature of Yeon Am's literature, and to enable students to utilize his works as learning materials, we need to focus of study from Chinese novels to " Yul-Ha Diary", which is great in quantity and is his masterpiece.

Hereby, I present various teaching-learning methodology for 10th graders in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Yeon Am's most important work, "Yul Ha Diary". This methodology is for discretionary class, where teachers can teach students more flexibly and elastically.

Today, the literature education in high school aspires to teach based on cultural understanding and focuses on the ability of expression. Under this circumstance, I tried to prove that "Yul Ha Diary" has both cultural and literary value and present a new teaching methodology combined with both values in this thesis. I found the cultural and educational property of "Yul Ha Diary" from Practical Science and Relative Concept and through <Hersang Biography> and <Makbook hangjuklock> presented teaching methodology.

The educational value of "Yul Ha Diary" basically takes the form of a travelogue, and sometimes it takes episodes and editorial form. This gives the work cubical concept and efficiency to understand the work. I also presented the teaching methodology by using the ,<SungKung Magazine>, <The theory of bricks, <Hojil>

The Work Book consists of each part for one class activity

and this can be good teaching materials for teachers to introduce "Yul Ha Diary"

"Yul Ha Diary" is written by Yeon Am, who is the greatest author of Cho-Sun Dynasty. It is his masterpiece. He was in the center of the literary world in those days, and is now studied because of his liberal and progressive thought and unique writing style. Compared to, however, the superiority of his works, the educational use has not been desirable and has not met the expectation. Disappointed by this phenomenon, I have attempted to utilize "Yul Ha Diary" in high school education in various ways. I hope this humble thesis will be a great help for teachers.